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7년 5월호

# 리아호나



## 연차 대회 말씀

새로운 성전 다섯 곳이 발표되다  
칠십인 여섯 명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새로 부름받다

#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이 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전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 미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교리와 성약 110:3~4)

이 선지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에베소서 2:20)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함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2000년 1월 1일

## 여성 총회

- 6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니 에이치 코든
- 9 아름답고 거룩한 것  
캐럴 에프 맥콩키
- 12 확신에 찬 여성  
린다 케이 버튼
- 15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토요일 오전 모임

- 19 하나님 가족의 집합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3 매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  
엠 조셉 브로
- 26 우리 아버지의 영화로운계획  
웨더포드 티 클레이튼 장로
- 29 우리의 선한 목자  
데일 지 켈렌드 장로
- 33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36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마크 에이 브래그 장로
- 39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43 교회 역원 지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45 2016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케빈 알 저건슨
- 45 2016년 통계 보고서  
브룩 피 헤일즈
- 4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49 입으로 부르는 노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52 내적으로 힘을 되찾고 일어서서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게리 비 사빈 장로
- 55 복음의 언어  
발레리 브이 코르돈 장로
- 58 세상을 이기십시오  
닐 엘 앤더슨 장로
- 62 돌아가서 받으십시오  
엠 러셀 밸라드 장로

## 신권 총회

- 66 친절, 자애, 사랑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67 그 일에 부르심을 받으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75 길을 예비하라  
제럴드 코세 감독
- 78 너희 중에 큰 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82 “나와 동행하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86 물몬경의 권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87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  
조이 디 존스
- 90 옆이 아닌 위를 보십시오!  
최윤희 장로
- 93 성령 인도하시어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97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 100 신화와 구원의 계획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 104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108 경외의 음성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112 친구 여러분과 교회를 알아보고 계신 구도자 여러분께  
호아킨 이 코스타 장로
- 11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에스 마크 파머 장로
- 117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121 영생은 곧 이것이니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 124 우리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합시다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
- 127 신앙의 기초  
쿠엔틴 엘 쿡 장로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 132 연사들이 전한 말씀: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 134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35 교회 소식



# 제187차 연차 대회

##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저녁, 여성 총회

사회: 보니 엘 오스카슨.  
 개회 기도: 로빈 본햄.  
 폐회 기도: 엘리자베스 로즈.  
 음악: 브리검 영 대학교 상호부조회 연합 합창단. 지휘: 진 어폴로니.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자브리스키 편곡, 홀리 시트 뮤직 출판.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쪽, 머피 편곡.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주는 이 몸을 사랑해요”, 어린이 노래책, 16쪽, 스타헬리 편곡.

##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김 비 클라크 장로.  
 폐회 기도: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 라이언 머피.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어찬송가, 41장, 케이스 편곡, 잭맨 출판. “의의 일하세”, 찬송가, 177장.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찬송가, 192장, 월버그 편곡.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머피 편곡.

##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폰 지 키치 장로.  
 폐회 기도: 휴고 몬토야 장로.  
 음악: 유타 주 트레몬틴, 갈런드, 필딩 지역의 스테이크 회원들로 구성된 가족 합창단. 지휘: 제시카 리 길버트.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사랑 넘치는 우리 집”, 찬송가, 166장, 바스티앙 편곡. 메들리: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및 “How Will They Know?”, *Children's Songbook*, 182-85, 길버트 및 몰만 편곡. “신앙으로 나아가서”, 찬송가, 157장.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쪽, 페리 편곡, 잭맨 출판.

##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신권 총회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빈 피 스탠필 장로.  
 폐회 기도: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음악: 유타 주 할러데이 및 머레이 지역 스테이크의 청년 독신 성인들로 구성된 신권 합창단. 지휘: 브렛 테일러.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 “Rise Up, O Men of God”, 영어 찬송가, 324쪽, 스타헬리 편곡, 잭맨 출판. “구유에서 나신 예수”, 찬송가, 121장, 리플링거 편곡, 잭맨 출판.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케이스 편곡, 잭맨 출판.

## 2017년 4월 2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닐 에프 매리엇.  
 폐회 기도: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앤드루 언스워스.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월버그 편곡. “사랑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102쪽, 카든 편곡.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송가, 40장, 월버그 편곡.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 2017년 4월 2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  
 폐회 기도: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월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 보니 굿리프. “와서 기쁜 노래하라”, 찬송가, 15장, 머피 편곡.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스타헬리 편곡. 잭맨 출판. “최막대”, 찬송가, 170장. “계명을 지키라”, 찬송가, 191장.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월버그 편곡.

##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http://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lds.org](http://disability.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표지 사진 촬영: 메이슨 코벌리.  
 뒤표지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연차 대회 사진 촬영: 코디 벨, 재네 빙엄, 메이슨 코벌리, 랜디 콜리어, 웨스톤 콜튼, 애슐리 라슨, 레슬리 닐슨, 크리스티나 스미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테르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도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스, 데일 지 랜런드

편집자: 조셉 더블유 시타리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트, 캐럴 에프 맥쿱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콜든, 더글러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쿠퍼피츠키,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일다 애머렐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아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플라,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샬럿 라카빌,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파카, 잭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앤 셸루, 머리아 윌슨

편집 인턴: 제시카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테드 알 피타스

디자인: 제넷 앤드루, 페이 피 앤드러스,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마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디자인 인턴: 에밀리 차에코 레인먼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타스

제작팀: 글렌 에데어,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낄슨, 가일 타데 라퍼미, 데렉 리처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14호, 제54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영업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예수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면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된 그리스어, 라틴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소와힐리아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말바니아어, 에스투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안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y 2017 Vol. 41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 게리 비 사빈, 52
- 게리 이 스티븐스, 117
- 닐 엘 앤더슨, 58
- 델린 에이치 옥스, 100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67
- 데일 지 랜런드, 29
- 디도드 크리스토퍼슨, 108
- 디테르 에프 우흐트도르프, 43, 78, 104
- 러셀 엠 넬슨, 39
-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93
- 로버트 디 헤일즈, 46
- 린다 케이 버턴, 12
- 마크 에이 브래그, 36
- 발레리 브이 코르돈, 55
- 벤자민 데 호요스, 124
- 보니 에이치 코든, 6
- 브룩 피 헤일즈, 45
- 시 스코트 그로우, 121
- 예수 1년 파머, 114
- 엘 휘트니 클레이튼, 97
- 엠 러셀 벨라드, 62
- 올리세스 소아레스, 33
- 워드포드 티 클레이튼, 26
- 제랄드 코세, 75
- 제프리 알 홀런드, 49
- 조셉 엠 브로, 23
- 조이 디 존스, 87
- 최운환, 90
- 캐럴 에프 맥쿱키, 9
- 케빈 알 저건슨, 45
- 쿠엔틴 엘 쿡, 127
- 토마스 에스 몬슨, 66, 86
- 헨리 비 아이어링, 15, 19, 82
- 호아킨 이 코스타, 112

주제 색인

- 가르침, 87, 124
- 가족 역사, 19, 90, 124
- 가족, 19, 36, 55, 62, 87
- 간증, 86
- 개종, 90, 112
- 결심, 52
- 겸손, 15, 78
- 경전 공부, 6, 23, 39, 55, 86, 121
- 계명, 23, 26
- 교회 부름, 78
- 교회 지도자, 23, 78
- 교회 활동, 36
- 구원의 계획, 19, 26, 52, 62, 100, 104
- 그리스도의 빛, 19, 36
- 기도, 6, 121
- 단합, 15, 49, 75
- 두려움, 104
- 모범, 55, 121
- 목표, 62
- 몰몬경, 86, 112
- 보고 책임, 108
- 봉사, 6, 15, 75, 78, 82
- 부모의 본분, 23, 55, 87, 108
- 사랑, 29, 36, 46, 49, 66, 104, 108, 114
- 사망, 26
- 선교 사업, 67, 90, 114
- 선지자, 108
- 선택의지, 26
- 성신, 9, 15, 19, 36, 39, 87, 93, 100., 117, 127
- 성약, 9, 12, 39, 52, 58, 62, 87
- 성전 사업, 19, 36, 90, 124
- 성찬, 9, 15, 75, 124
- 성찬식 모임, 127
- 세속, 58
- 소망, 104
- 속삭임, 93, 117
- 속죄, 6, 9, 19, 26, 29, 39, 62
- 순종, 46, 97, 114, 121
- 신권, 67, 75, 82
- 신뢰, 6, 33, 97
- 신성한 본질, 9, 87

- 신앙, 33, 39, 46, 49, 90, 97, 127
- 신회, 93, 100, 117
- 안식일, 55, 58, 124
- 어린이, 87, 117
- 여성, 12
- 역경, 29, 33, 39, 46, 49, 52, 90, 97, 104, 127
- 연민, 29
- 연차 대회, 124
- 예수 그리스도, 6, 9, 12, 19, 23, 26, 29, 33, 36, 39, 46, 49, 58, 62, 66, 82, 90, 93, 97, 100, 104, 108, 114, 121, 124, 127
- 외설물, 55
- 용서, 29
- 음악, 49
- 자애, 15, 46, 66
- 전세, 6, 26, 100
- 전통, 55
- 제자 됨, 12, 39, 46, 49, 52, 58, 78, 87
- 조셉 스미스, 127
- 준비, 67, 75
- 지도력, 78
- 창조, 26, 100
- 청소년, 19, 23, 75
- 치유, 29
- 친절, 29, 66
- 평화, 58
- 표준, 108
- 하나님 아버지, 6, 62, 93, 100, 104, 121
- 합당성, 67, 93, 117, 121
- 활동 촉진, 15
- 회개, 29, 52, 87, 112, 121
- 희생, 12, 23



## 제187차 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매** 6개월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들과 영감에 찬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시간대와 언어가 다른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정이나 집회소에 모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회를 시청합니다.

그러나 연차 대회는 한 번 보고 끝나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가 원한다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 대회는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대회입니다.

여러분이 연차 대회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저희는 6개월마다 특집호를 마련하여 그 대회의 영을 간직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인쇄물, 인터넷, 휴대폰 중 어느 방법을 선호하시든, 이 대회가 여러분이 종종 돌아와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8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고 숙고하”라고 간청했다.

**66쪽:** 그는 또한 형제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차고 자애를 베풀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 새로 발표된 성전

**86쪽:** 몬슨 회장은 다음 지역에 건축될 새로운 성전 다섯 곳을 발표했다. 브라질 브라질리아, 필리핀 대마닐라 지역, 케냐 나이로비, 미국 아이다호 주 포커텔로, 미국 유타 주 새리토가스프링스.(더 자세한

정보는 141쪽 참조)

### 새로 지지받은 지도자

**43쪽:** 토요일에 제일회장단은 린다 케이 버튼, 캐롤 엠 스티븐스,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로 구성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해임한다고 발표했다.

**135쪽:**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을 포함하여 새로 부름받은 열 명의 총관리 역원 및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알아보자.

### 재강조된 선언문들

**표지 안쪽:** 몇몇 연사들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언급했다.(26, 36, 39, 62, 100쪽 참조) 이 중요한 선언문들을 이번 호 표지 안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구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시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다가오신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두 팔로 저를 감싸 안으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매님은 이 복음이 정말로 참되다고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잠언 3장 5~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경전 구절에는 권고와 경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는 두 가지 권고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경고, 그리고 “[그분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나옵니다.

먼저, 경고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 의미를 머릿속에 시각적으로 그려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에서 “의지하지 말라”라는 단어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한다는 영어 단어 *lean*은 다른 것에 몸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몸을 어느 한쪽으로

기댈 때 우리는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집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명철에 기대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주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댈 때 우리는 중심에서 벗어나고, 균형을 잃게 되며,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세에서 구주를 따르고 지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시하신 행복의 계획을 지지했고, 열렬히 환영했으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간증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군대에 가담했고, 그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악간의 이 전투는 지상으로 옮겨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주님을 신뢰하고 증거할 성스러운 책임을 받았습니니다.

우리는 각자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중심을 지키며 내 명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세상의 거센 목소리 가운데 어떻게 구주의 음성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는가? 구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구주를 더 잘 알고 더 잘 신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임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초등학교, 청년 공과에서 늘 다루지며, 수많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들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원리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주님을 잘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일러 주”기 때문입니다.<sup>2</sup>

몇 달 전, 저희 가족의 경전 공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두 살배기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방문한 아들네 가족과 함께하면서 저는 할머니만이 느끼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경전 공부 끝나고 물문경을 덮자 제 손자는 이제 곧 자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자는 푸른 눈동자를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경전 더 읽어주세요.” 제게 그 말은 마치 영원한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훌륭하고 일관된 부모인 제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주지 마세요. 그냥 자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제 손자가 경전을 더 읽자고 하는데 어떻게 경전을 덮을 수 있었습니까! 경전을 더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화되고, 영적인 양분을 섭취하게 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두게 됩니다. “이를 부지런히 상고할 것을 기억하여 그로 인해 유익을 얻”으십시오.<sup>3</sup>

둘째,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sup>4</sup>

저에게는 기도에 관한 아주 소중한고도 감미로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여름 방학 동안 텍사스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이라는 애칭을 붙였던 제 낡은 차를 타고 아이다호에서 텍사스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번의 지붕까지 짐을 가득 싣고서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포옹을 나눴고,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자꾸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무릎을 꿇고 앉았고,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 안전을 간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없던 제 차가 필요한 만큼 잘 움직여 주기를 기도하셨고, 여름 방학 동안 천사들이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얻은 평안으로,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제 명철에 의지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제가 내렸던 여러 결정에서 주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는 구주를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그분과 똑같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직 신앙으로써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축복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sup>5</sup>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모질고 치명적인 병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봉사의 원리를 깨닫게 된 에이미 라이트라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본인의 허락하에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에이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암 선고를 받았다. 생존율은 17퍼센트. 회복될 가망성은 높지 않다.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 같다. 나 자신은 물론, 더 중요한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다짐했다. 12월에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제의 수많은 부작용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어느 순간, 나는 항암 치료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남편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말 그만뒀다!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은 지혜롭게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에게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남편은 지금 아내가 암에 걸려 이제 한 차례의



구역질도, 한 순간의 극심한 고통도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잊은 걸까요?

에이미의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증상이 갈수록 악화되어, 살아 숨을 쉬는 사람으로 다소나마 구실을 할 수 있는 ‘잠을 만한’ 날이 한 달 중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즈음 우리 가족은 봉사를 할 수 있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에이미의 가족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용품들을 채운 항암 치료 세트도 나눠 주었습니다. 에이미는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방법들을 구상했습니다. 그 방법들에는 규모가 큰 일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격려와 사랑이 담긴 메모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너무도

극심해 잠을 이룰 수 없는 날이면, 침대에 누워 아이패드를 들고 돌아가신 조상들을 대신해 완료해야 할 의식들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고통은 진정되었고, 견딜 만해졌습니다.

에이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를 구한 건 봉사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며 찾은 행복에서, 오히려 제가 견뎌 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주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머리가 다 빠진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지금만 나만 생각할 때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 내 상황, 내 고통, 내 괴로움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세상은 아주 어둡고

우울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돌릴 때, 빛과 희망, 힘과 용기, 그리고 기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는 치유의 권능, 지지하는 힘, 가능하게 하는 힘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에이미는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철에 조금이라도 의지했다면 에이미는 봉사하지는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이미는 봉사를 통해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다음 경전 구절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라].”<sup>6</sup>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그분의 무한한 속죄 덕분에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잘될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것임을 알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sup>1</sup>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지지했었으며, 이제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 지상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간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고난이 폭풍우처럼 몰려올지라도, 역경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질지라도,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올바르게 걷[는] ... 한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위로해 ... 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sup>2</sup>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들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팔을 펼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참조: 고든 자매는 2017년 4월 1일에 본부 초동회 회장단 제2보좌에서 해임되고 제1보좌로 부름받았다.

주  
1. 고든 비 힝클리, “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야호나, 2004년 5월호, 81쪽.  
2. 니파이후서 32:3.  
3. 모사이야서 1:7.  
4. 모로나이서 7:48.  
5. 경전 안내서 참조, “기도”, scriptures.lds.org.  
6. 모사이야서 2:17.  
7. 아브라함서 3:27.  
8. 토마스 에스 몬슨, “기뻐하라”,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92쪽.

# 아름답고 거룩한 것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계 도처에서 만났던 많은 충실한 자매님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윗 왕의 이 감사 송가가 그분들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sup>1</sup>

모든 선한 것에 온 마음을 쏟으며 좀 더 구주를 닦고자 하시는 자매님들의 모습에서 저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봅니다. 그분들은 온 영혼과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매일을 살아갑니다.<sup>2</sup> 거룩함이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었던 성약을 지키고자 애쓰며 고군분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늘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 수 있게 해 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sup>3</sup> 거룩함이란 우리의 타고난 성향을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sup>4</sup>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 주님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sup>5</sup>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sup>6</sup>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무척 큼니다. ... 그분은 ‘해의 왕국[을] 감당하고’(교리와 성약 88:22)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있도록(모세서 6:57)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셨습니다.”<sup>7</sup> Lectures on Faith(신앙 강좌)에는 “그분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갖추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sup>8</sup>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당신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각자 거룩함의 신성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거룩한 사람이 나의 이름이요.”<sup>9</sup> 전세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했으며 그분처럼 되고자 소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인자이시며<sup>10</sup> “거룩하다 이름”한 분이시며,<sup>11</sup>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sup>12</sup>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거룩함을 바라는 우리 희망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며<sup>13</sup>,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흠 없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침수으로써 침례를 받으며 마음을 열고 성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성결해집니다. 매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진심으로 의로움을 갈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분의 영광 함께하도록 성약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성신과 하나가 되려고 힘쓸 때, 우리는 그분들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sup>14</sup>

#### 거룩함은 성약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덕하고 칭찬할 만한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시련을 압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필멸의 경험은 거룩함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약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할 때 성결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저는 가나에 사는 열세 살 소녀, 이벤젤린의 얼굴에서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이벤젤린이 성약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꿀벌만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벤젤린은 저활동 청녀들의 집에 들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부모님의 허락을 구한다고 겸손히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벤젤린에게

일요일에는 아이들이 집안일을 해야 하니 교회에 가는 건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벤젤린은 친구들의 집안일을 함께 도와서 친구들이 교회에 가도 된다는 허락을 종종 받아 냅니다.

관련된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는 성스러운 신권 의식을 통해 변화되고 성결해지며 주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될 것입니다.<sup>15</sup>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강화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며 벗은 자와 병든 자를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구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sup>16</sup>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sup>17</sup>

우리는 가족을 축복하고 가정을 거룩한 곳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게 격정을 자제합니다.<sup>18</sup> 우리는 친절함과 연민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섭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된 시온 백성, 즉 단합과 의로움 속에 함께 거하는 순수한 백성이 됩니다.<sup>19</sup> “시온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sup>20</sup>

자매 여러분, 성전으로 오십시오. 구주의 재림 시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sup>21</sup> 강건하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순결함으로 참으로 의의 겹옷으로 옷 입기” 위하여<sup>22</sup>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성약을 지킵니다.

#### 거룩함은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는 것이다

거룩함은 영의 은사입니다. 삶에서 성신의 성결하게 하는 힘을 증대시키는 일을 할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은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셨을 때, 그녀는 최선을 다해 그분을 대접하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르다는 홀로 손님을 접대하는 게 버거워서 불평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구주께서 하신 이 질책을 좋아하는데, 이보다 더 부드러운 질책을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과 무한한 연민으로, 구주는 이렇게 충고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sup>23</sup>

자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발치에 앉아 배우며, 거룩함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결코 끝이 없는 할 일의 목록을, 그리고 세상의 관심사를 제쳐 놓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는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초대하게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시간을 내어 그분의 성스럽고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 채웁시다.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 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sup>24</sup>

###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는 것이다

베냐민 왕의 영감 어린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된 이들은 구주처럼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sup>25</sup>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모든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권능으로써 하늘로부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흠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시[리라].” 주님은 병든 자,  
걸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자, 눈먼  
자를 축복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sup>26</sup>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었는데도,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무덤에서 일어나셨기에 우리 모두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의로써 세상을 심판하러  
서실 이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구속하실 이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고 거룩하십니다.

베냐민 왕의 말이 끝나자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한 경건함과 겸손함이 참으로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속된  
상태’를 인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에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영적, 현세적 은사가 온다는 것을  
인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이생의 평화와 영원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한 아들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베냐민 왕의 백성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다음과 같은 외침에 우리 역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하심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발치에 앉아 배우며, 거룩함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마리아는 구주의 말씀을 들었다. 웰터 레인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그리스도를 믿음이니이다.”<sup>27</sup>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죄 사함과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록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약을 지키고 성신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불멸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이 성스러운 헌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역대상 16:29.
2. 교리와 성약 20:31~34 참조.
3. 교리와 성약 45:57 참조.
4. 모사이아서 3:19.
5. Brigham Young, *Deseret News*, Apr. 2, 1862, 313; 또한 제임스 이 파우스트, “거룩한 곳에 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2쪽 참조.
6. 레위기 11:44.
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7쪽.
8. *Lectures on Faith* (1985), 77.
9. 모세서 7:35.
10. 모세서 6:57 참조.
11. 이사야 57:15.
12. 니파이전서 22:21, 24, 26, 28.
13.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14. 베드로후서 1:4 참조.
15. 교리와 성약 84:20 참조.
16. 모사이아서 4:26 참조.
17. 교리와 성약 59:9 참조.
18. 엘마서 38:12 참조.
19. 모세서 7:18~19 참조.
20. 교리와 성약 82:14.
21. 니파이후서 8:24 참조.
22. 니파이후서 9:14.
23. 누가복음 10:38~42 참조.
24. 교리와 성약 45:57~59 참조.
25. 모사이아서 3:19 참조.
26. 모사이아서 3:5, 7.
27. 모사이아서 4:2.

# 확신에 찬 여성

확신에 찬 여성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그분의 속죄 희생에 담긴 약속을 통해 희망을 품는 제자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제일회장단의 권고와 “#나그네 되었을 때” 구호 활동에 마스하고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의 사랑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받은 속삭임에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저를 기억하세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완벽한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인 저는 많은 경우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으로, 저는 그분의 소중한 딸들과 아들들을 만날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그 진실된 사랑은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감옥에 있는 여성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그중 한 사랑스러운 분이 제게 “버튼 자매님, 저희를 잊지 마세요.”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통해, 그분은 물론 다른 분들도 자신이 결코 잊히지 않았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의 시대에 살았던 확신에 찬 여성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다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실한 모범을 보였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신약전서에는 이름이 언급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그분의 성역과 기적, 위대함을 증거한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구원 사업에서 모범이 되는 구주의 제자이자 중요한 증인이 되었습니다.”<sup>1</sup>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음 내용을 숙고해 보십시오. 먼저,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

어떤 여자들 ...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 그들을 섬기더라.”<sup>2</sup>

이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들이 ...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sup>3</sup>

저에게 “어떤 여자들”이라는 표현은 전에 수차례 읽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더 주의 깊게 숙고하던 중에 이 단어들의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으로 번역된 영어 단어 *certain*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는 충실하고 **확신에 찬** 여성이라는 의미와 관련된 다음 동의어들이 포함됩니다. “신념이 있는”, “확신하는”, “굳게 믿는”, “단호한”, “확고한”, “확실한”, “믿음직스러운.”<sup>4</sup>

이 동의어들을 숙고하면서, 저는 구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굳게 믿으며 단호하고도 확고한 간증을 전했던 신약전서의 두 **확신에 찬** 여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불완전한 여성들이었지만 그들의 간증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주께 배운 것을 와서 보라고 권했던, 우물가의 그 이름 모를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sup>5</sup> 그 여성의 강한 간증과 권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sup>6</sup>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친구였던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의 사망 이후,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어지는 말 속에 담긴 그녀의 확신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sup>7</sup>

이 자매들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확신에 찬** 여성이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그분의 속죄 희생의 약속을 통해 희망을 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시기에 성약을 지킨 확신에 찬 여성: 기꺼이 희생하다**

고대의 **확신에 찬** 여성들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희생을 치렀습니다. 회복 초기의 **확신에 찬** 여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드루실라 헨드릭스와 그녀의 가족은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주리 주 클레이 군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핏박을 감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크루트 강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드루실라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남편도 돌보아야 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바닥나 몹시도 힘들었던 어느 날, 그녀는 ‘기다리거라, 주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니’라는 음성이 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드루실라는 아들이 몰몬 대대에 자원해야 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반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치 ‘가장 높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더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했고 그녀가 ‘예’라고 대답하자 그 음성은 ‘커다란 희생 없이 어찌 그것을 얻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sup>8</sup>

이 **확신에 찬** 여성을 통해 우리는 성약을 지키는 데는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확신에 찬 여성: 구주의 재림을 기억하고 이를 찬미하기 위해 준비하다**

지금까지는 구주의 시대와 복음 회복의 초기에 살았던 확신에 찬 여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제자로서 확신에 찬 여성은 어떤 분들이며, 그분들의 간증은 또 어떠할까요?

최근에 아시아를 방문하며 만난 수많은 확신에 찬 여성들을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만났던 교회 1세대 회원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복음과 가족, 아니면 복음과 자국 문화가 상충하면서 생기는 큰 희생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홍콩과 대만에서 만났던 여러 세대의 확신에 찬 여성들은 구주에 중심을 두고 성약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함으로써 가족과 교회 회원들은 물론 지역 전체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여성들을 교회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 삶에 축복이 되어 준 확신에 찬 여성이 계십니다. 그녀는 15년째 봉입체 근엄이라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난치성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그녀는 감사하러 노력하며 “할 수 있는 일 목록”을 만듭니다. 그녀가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란 숨을 쉬는 것, 무언가를 삼키는 것, 기도하는 것, 구주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거의 매일같이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확신에 찬 간증을 전합니다.

최근에 저는 제니라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귀환 선교사인 제니는 선교 사업 도중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선교부 회장님 댁에 들렀던 제니는 확신에 찬 여성의 소박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선교부 회장님의 부인께서 부드럽게 제니의 머리를 빗겨 주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제니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또 다른 확신에 찬 여성인 테리를 통해 삶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테리는 제니가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던 당시 그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제니는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테리는 제니에게 교회 지도자로서 멘토가 되어 주었을 뿐 아니라 제니가 백혈병 진단을 받던 날 병원에서 10시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테리는 병원을 찾아왔고, 이후에는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추어 차로 제니를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테리의

차에다 몇 번 토했던 것 같아요.”라고 제니는 말했습니다.

병마에도 불구하고 제니는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계속해서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제니는 병상에서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고, 자매들에게 자기를 보러 와 달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에게 카드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와드 역사 기록에 쓰려고 받은 제니와 상호부조회 회장단 사진입니다. 제니는 본인 스스로가 확신에 찬 여성이기에, 자신의 짐은 물론 다른 이들의 짐을 나눠지도록 모두에게 권유하였습니다.

확신에 찬 여성인 제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할 때, 즉 그분의 은혜와 속죄를 이해하고, 교회 여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빗겨 주고, 희망과 은혜에 대한 영감에 찬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 또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sup>9</sup>

자매 여러분, 혼란스럽거나 불안하거나 낙담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슬픔에 잠겼거나 고통스러울 때, 우물가에서 확신에 찬 그 여성이 그러했듯 주님의 생수를 마시라는 그분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인가 아니냐”라는 확신에 찬 간증을 전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합시다.

오빠의 죽음을 겪은 마르다가 느낀 것처럼 인생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때, 외로움, 불임,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결혼과 가정을 이룰 기회를 잃는 일,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결혼 가정, 무기력한 우울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숨 막힐 듯한 스트레스, 불안, 중독, 경제적 어려움, 이 밖에 다양한 종류의 고통에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다면, 마르다를 기억하고 그녀와 같이 확신에 찬 간증을 전합시다. “그러나



백혈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제니(가운데)와 그 회장단.



나는 ... 주는 그리스도시요 ...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 [알고] 믿나이다.”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소중한 구주를 버리지 않았던 여러  
확신에 찬 여성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한 확신에 찬 사람들에  
속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도록 합시다. 매주 성찬 의식을 통해  
구주의 속죄 희생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성약을 지키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찬미할 확신에 찬  
여성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무한한 속죄에 대해  
간증합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로서 예임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물문경이 참되며, 그 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 계신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함께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리들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버튼 자매는 2017년 4월 1일에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주

1.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3쪽.
2. 누가복음 8:1~3; 강조체 추가.
3. 누가복음 24:22~23; 강조체 추가.
4. *certain*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어릿” 또는  
“다양한”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확신, 자신, 충실함의  
의미이다.
5. 요한복음 4:29.
6. 요한복음 4:39.
7. 요한복음 11:21~22, 27; 강조체 추가.
8. Jennifer Reeder and Kate Holbrook, eds., *At the  
Pulpit: 185 Years of Discourses by Latter-day  
Saint Women* (2017), 51 - 52 참조.
9. 저자인 제니퍼 리더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  
제니퍼 리더는 교회 역사부 소속으로 19세기  
여성들의 역사 관련 전문가이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력한 자매 지도자분들의 영감 어린 말씀과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강화되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은 더 커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속죄 희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밤 평안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 그런 평안함이  
자주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6~27)

레이먼인들을 향해 선교 사업을 떠나던 모사이야의 아들들도 바로 그런 평안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막중함을 깨닫고 적잖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의 영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위안을 받으시어다 하시니, 그들[은] 위안을 받”았습니다.(앨마서 17:10; 또한 앨마서 26:27 참조)

때로 눈앞이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평안을

갈구합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로나이에게도 가르치셨던, 바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이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모로나이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이더서 12:29)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보하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며, 우리를 강하게 할 권능이 있으나 구주께 계속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은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속죄가 작용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 우리의 본성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런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내려면 항상 성신을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성신은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권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느꼈던 때를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은 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요한복음 14:26) 그럴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거나 신권 의식을 받았던 일, 간증에 대한 확증을 얻었거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았던 순간 등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어느 날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할 때, 영은 이 모임에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감정들을 기억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영은 저에게 오래전에 있었던 어느 저녁,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간이 철제 창고에서 열린 성찬식 모임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창고는 철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안에는 목제 의자가 놓여 있었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겨우 열두어 명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 연령은 다양했습니다. 이 소수의 회중 사이로 성찬이 전달되자 몇 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구주께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 또한 구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남아 있는 기억은 그 간이 창고 안이 빛과 평안의 느낌으로 가득해진 듯한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입니다. 밤이었고, 창문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 안은 한낮의 햇살이 비추듯 밝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곳에는 눈부신 성령의 빛이 흘러넘쳤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겸손한 마음이 그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자 주님 앞에 왔던 그들의 마음이 곧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기억으로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주님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성찬 기도문의 약속이 성취되어 빛과 평안의 느낌이 찾아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평안이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 보혜사로 저를 돌아봐 주신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보혜사”란 경전에서 성신을 묘사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경전에서는 성신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 그 영을 신뢰하라.”(교리와 성약 11:12) 우리가 성신의 도움을 받아 행하게 되는 선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위안을 받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를 발휘하시어 우리가 그분 교회의 어떤 조직과 반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키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직

안에서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여러분은 흔히 “저활동 회원”으로 칭해지는 어느 월계반 청년에게 연락을 해서 관심을 보여 달라는 감독님의, 또는 청년 지도자의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독님이나 청년 지도자보다 그 청년을 더 잘 알 수도 있고, 그 청년가 집이나 학교에서, 혹은 양쪽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에서 비롯된 영감으로 이 사업을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 여러분이 구조해야 할 그 청년의 마음까지 모두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러려면 성신이 필요합니다. 영은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그 저활동 월계반 청년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두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그 친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며 겸손과 용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이 한 마리의 양에게 무리로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데 필요한 언행을 보일 수 있도록, 또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월계반 반원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원들은 잃어버렸던 양을 사랑하고 환영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교회로 돌아온 그 청년은 자신이 집에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들로서 선을 행할 능력은 여러분이 속한 무리가 얼마나 단합하며 서로 사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성신을 통해 오는 또 다른 평안의 은사입니다.

엘마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8:21)

우리의 반과 가정에 영이 함께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항상 단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성신을 동반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온화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제 아들이 일곱살 때 살 썸 되었을 때, 침대를 부술 기세로 그 위에서 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깨를 움켜잡고 아들을 들어 올려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영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요하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란다.” 저는 아들을 부드럽게 침대에 내려놓고 사과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40년 전 성신이 말해 준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게 성신을 보내시어 제가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자녀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불친절한 마음에서 저를 구해 주신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는 물론, 서로에 대해 생각할 때도 성신의 영향력을 통해 우리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단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을 통한 시각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이 사랑을 묘사한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딤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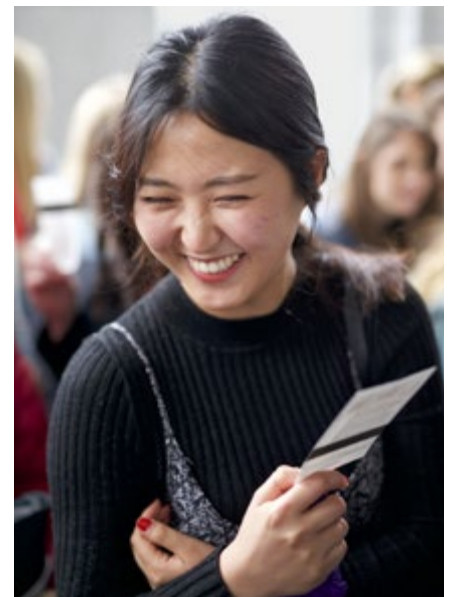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이다.”(모로나아서 7:45~4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소중한 딸인 여러분이 이 목표를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이 목표가 여러분에게는 요원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계속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에 대한 저의 확고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분께 나아오라고 여러분에게 권유하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그분들을 대신해 다른 이에게 봉사하려 노력할 때 성신을 보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신을 동반할 수 있고, 그 영향으로 마음이 성결하고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주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심으로써 왕국을 이끄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빛과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하나님 가족의 집합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가족과 함께 영광스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연차 대회 모임을 시작할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차 대회는 늘 후기 성도들이 한데 모이는 집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연차 대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연단에 서는 저희는 항상 전 세계에서 대회를 시청하는 수백만의 청중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가족과 함께 모여 계시고, 또 친구나 교회의 동료 회원들과 함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방식으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든, 지금 우리와 한 공간에 계시지는 않더라도 저희는 여러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저희와 하나라고 느끼기를, 또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 때마다 임하는 영적인 권능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종류의 집합에 대해 말씀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집합은 연차 대회처럼 꼭 6개월이 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가 회복된 초기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며, 최근 몇 해 동안은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가족의 집합입니다.

이 집합을 설명하려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즉 성경에 언급된 “태초”(창세기 1:1)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거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은 단순히 친근한 인사나 호감을 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호칭은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각자가 그분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임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여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 단위로 지구에 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언젠가 그분께 돌아가고 그분이 사시는 삶을 영위할 준비를 하도록 계획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여 구주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야 하고 그분과 함께한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됨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지한 채로 이곳에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빛의 일부, 즉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돕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을 거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떤 행위는 공정하고 도덕적이며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음을 마음속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자녀를 양육할 때 특히 더 예리해지는 듯합니다. 거의 모든 부모에게 내재하는 열망은 자녀에게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포함된 기적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는, 가족이라는 영원한 본을 따라 당신의 자녀들이 지상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가족은 영원한 왕국의 기본 단위 조직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가족이

지상에서도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상의 가족이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 느꼈던 사랑을 지상에서 가장 비슷하게 느끼게 해 주는 유일한 곳으로서 부모의 사랑으로 환영받으며 지상으로 오게 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도덕적 가치와 참된 원리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고, 구주의 속죄 권능이 우리 삶에 온전히 효력을 미치게 하는 신권 의식과 성약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조차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충실히 생활할 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관해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하거나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권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구원을 위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로 삼거나 그 계획에는 구체적 요건이 없다는 것의 증거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소수만 접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을 리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중 누구를 구원할지 미리 정해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주었고,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진리 덕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보다 훨씬 더 사랑과 공의로 충만함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가족을 모두 모아 축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분도 그들 전부가 그런 선택을 내려 함께 모이는 일은 없으리라는 점을 아시지만, 그래도 그분의 계획은 각 자녀에게 그러한 초대와 받아들여지거나 거절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중심에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선지자 말라키는 장차 다가올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말라기 4:6)

이 예언은 매우 중요했기에, 구주께서는 부활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이를 인용하셨습니다.(제3니파이 25:5~6 참조) 그리고 모로나이 천사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했을 때 엘리야, 마음, 조상, 후손에 관한 이 예언을 인용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36~39 참조)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이를 후인 4월 3일은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지 181년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엘리야가 와서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신권 권능을 조셉 스미스에게 주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역사를 탐구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마음으로 자신의 가계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전역에서 계보 도서관 및 각종 협회와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인터넷 덕분에 가족들은 전례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가족 역사 조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런 일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엘리야의 영”입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실제로 왔음을 간증합니다. 자녀들의 마음, 곧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우리의 아버지들, 즉 우리 조상들에게로 돌이켜졌습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느끼는 애정은 이 예언의 한 부분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인자보다 더 많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역사에 대해 알아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은 먼 친척에게서 여러분과 얼굴 생김새가 닮았다는 점이나 책을 좋아하는 취향이나 노래를 잘 하는 재능과 같은 여러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발견은 정말 흥미롭고, 통찰을 더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뭔가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고 결속하는 데는 단순히 따뜻한 느낌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권 의식들과 연결된 성스러운 성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조상 중 많은 분이 그러한 의식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은 그 의식들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조상에게 이끌릴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여러분이 그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거룩한 성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상들을 위해 이 일을 성취하리라는 점에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긴박하고 중요한 여러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일에 주의와 시간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의 일부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 각자가 가족 역사 사업을 비롯한 모든 봉사에서 확신과 만족을 얻을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니파이전서 3:7)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주께서 명하시는 일을 할 힘을 얻습니다.

경험으로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오래전 대학 시절에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컴퓨터 기술이 아직 초기 수준일 때였는데, 회사에서 우연히 그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컴퓨터 영업을 하러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영업 사원에게는 종교가 없는 듯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경탄과 놀라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에선 그들 말로 ‘계보 사업’이라고 부르는 일을 하더군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검색해서, 자기 조상들을 찾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 주로 여성들은 서류 정리장 사이를 뛰어다니며 작은 카드들을 뒤져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여성들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일의 규모를 보면서, 저는 이게 바로 컴퓨터가 발명된 이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에서 장차 컴퓨터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긴 했지만, 그가 파는 컴퓨터는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어느 영감받은 지도자가 그의 컴퓨터를 구입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당시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 해 동안 저는 최고의 기술조차도 하늘에서 오는 계시를, 예를 들면 그 교회 지도자에게 온 것과 같은 계시를 절대 대신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며,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제 가족 역사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제 곁에는 상담자 한 분과 전화로 도와주는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제 앞의 컴퓨터 화면에는 제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의식을 기다리고 있을 두 사람의 이름이 놀라운 기술의 힘으로 제 앞에 나타났지만, 이름이 서로 다른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자들에게 그 결정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회장님이 선택하셔야만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컴퓨터는 탁월한 능력과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화면에 보이는 두 이름을 응시하고, 주어진 정보를 검토하며, 다른 조사를 해 보고, 조용히 기도하여,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내는

축복은 제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힘에 의지해야 했던 다른 상황에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을 모으는 사업을 돕기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것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놀라운 발명품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영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영감을 보내 주실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의 청소년들은 엘리야의 영에 훌륭하게 화답했습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이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침례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쁩니다. 일부 성전은 청소년의 성전 참여가 늘어나서 성전 운영 시간표를 개편해야 했습니다.

전에도 청소년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은 드물고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었고, 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은 직접 찾아낸 이름들을 들고 옵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은 시간을 내어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을 함으로써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그들의 삶에서 영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대적의 영향력은 감소시켰습니다. 또, 그 일 덕분에 그들은 가족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사업이 죽은 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청소년들은 이 사업을 훌륭하게

이해했으며, 이제는 부모들이 따라잡을 차례입니다. 청소년들이 이행한 작업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침례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의 성전에서 오직 성인들만이 할 수 있는 다른 의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모으는 사업은 청소년들만을 위한 것도, 조부모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으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의 일이며,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1:10 우리말 성경에는 괄호 안 구절의 번역이 누락되어 있음-역자 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것입니다].”(에베소서 2:13~14) 여러분도 제가 그랬듯, 조상의 사진을 들여다볼 때 마음의 사랑이 커지는 경험을 통해 이를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은 카드에 적힌 이름이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지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느꼈다는 느낌을 받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가족과 함께 영광스럽게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보며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모으려 충실히 봉사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하고 필요로 하는 영감 어린 도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엠 조셉 브로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 매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할 때 가장 즐겨 쓰시는 방법의 하나는 의로운 조부모를 두시는 것입니다. 제 친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의 일인데, 한번은 아버지께서 저를 훈육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시던 할머니는 “몬티,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구나.”라고 한 마디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제 아이니 제 뜻대로 바로잡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시자

현명하신 할머니는 이렇게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저의 아버지는 그날 분명히 할머니의 현명한 인도를 따르셨을 것입니다.

인도에 대해 생각할 때면,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찬송가인 “난 하나님의 자녀”가 떠오릅니다. 후렴에는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최근에야 그 후렴 부분이 부모에게 신성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는 그런 지침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길을

찾아가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필요 사항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는 우리에게 놀라운 현세적, 영적 자원을 제공하시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요 영광입니다.”<sup>2</sup>

다시 한 번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고안된 맞춤형 개인 돌봄 패키지를 개발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속죄, 성신, 계명, 경전, 기도, 선지자, 사도, 부모, 조부모, 지역 교회 지도자 등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 모두는 우리가 언젠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돌아가는 일을 돕는 데 쓰입니다.

오늘 저는 그 돌봄 패키지 요소 중에서, 사랑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제 가족을 이끌고, 인도하시며,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닫게 해 준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기를, 그리고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그 돌봄 패키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엘마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고 단언했습니다.<sup>3</sup> 부당하고 잘못된 행동을 사랑으로 교정해





주지 않고 참는 일은 잘못된 동정심이며, 간악함도 사실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통념을 강화합니다. 레이먼인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런 통념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는]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 크시고도 영원하신 머리되시는 이 안에 있는 저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sup>4</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의로움이 곧 행복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예를 들어,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거니와, 이에 대해 만일 너희가 행하면 그가 실로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나니.”<sup>5</sup> 또 다른 찬송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  
주 축복 주시리<sup>6</sup>*

저는 제 열네 번째 생일 즈음에 이와 같은 축복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점을 알아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선교 사업을 갈 건가요?” 저는 깜짝 놀라는 어머니의 표정으로 제

생각이 맞다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이후 가족 평의회에서 저희 남매들은 부모님이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와이오밍 주의 아름다운 목장에서 살았습니다. 제 눈에 우리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사냥이나 낚시를 가거나 개를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부름에 대해 듣고 보니 제가 돌보던 개, 블루를 놓고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블루는 어떻게 하나면서 아버지께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의 부당함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르겠구나. 아마 우리와 함께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 보렴.” 그건 전혀 제가 예상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를 포기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답이 곧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말거라. 그분들께 부담을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네 부모에게 부름을 주었던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블루를 보내는 아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던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경전과 기도, 성신, 그리고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된 교사라는 역할을 이해하셨던, 합당한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길을 찾아가게 이끌고, 인도하며,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해야만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러한 돌봄 패키지 구성 요소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신권 지도자의 안내와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독은 영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권고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에서 받는 권고든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든 감독의 권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 마십시오.”<sup>7</sup>

그들은 주님을 대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사탄이 속삭일 때, 우리가 나이가 많은 적든 감독님이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 감독들과 이야기하면서 듣게 되는 공통된 주제는 불순종에 대한 고백, 또는 의도치 않은 끔찍한 비극이 주는

고통이었습니다. 감독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 동안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패키지 중 가장 위대한 구성 요소는 아마도 다음의 표현에서 잘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sup>8</sup>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본보기를 주심으로써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팔을 벌리며, 와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sup>9</sup>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듯 우리가 실패를 맞볼 때, 주님은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sup>10</sup>을 일깨워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회개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특권입니다. 경전에서 회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단언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sup>11</sup>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분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며, 동행할 기회를 매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본부 청남 회장단으로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 이끌고, 인도하며, 동행해 줄 부모와 지도자들이 있을 때 청소년들이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 패키지의 일부분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원리<sup>12</sup>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과 함께하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교리대로 생활하는 모범입니다.”<sup>13</sup> 청소년을 이끌려면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며,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말과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진정으로 인도하려면 그들을 하늘과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이 이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의 손을 잡아 주는 사랑 많은 부모처럼, 청소년들이 성장하게 하려면 그들이 직접 걷게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이끌게 하려면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끌 때보다 어렵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청소년들이 도중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의 축복이 멀리 있거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낙담의 시기에 관해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일 때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sup>14</sup>

저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일 년 이상을 꾸준히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조언을 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심을 담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게 관심이 있긴 하신 건가요?”라는 질문을 품고 성전에 갔습니다.

유타 로건 성전 대기실 뒤편에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본 제이 페더스톤 성전 회장님이 대기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페더스톤 회장은 저희 가족과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실에 있던 참여자들 앞에 서서 모두를 환영하시며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있던 저를 알아보시자, 그분은 말씀을



웨더포드 티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멈추시고는 제게 눈을 맞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로 형제님, 오늘 성전에서 뵈게 되어 기쁩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인사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모든 자녀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sup>15</sup> 그분의 자녀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제 기도에 대한 답이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언젠가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며, 곁에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아들을 따르고 그분의 종인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리아호나*, 2016년 6월호, 5쪽.
3. 엘마서 41:10.
4. 힐라맨서 13:38.
5. 모사이야서 2:24.
6. “계명을 지키라”, 찬송가, 191장.
7. 보이드 케이 패커, “감독과 그의 보좌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72쪽.
8. 요한복음 3:16.
9. 누가복음 18:22 참조.
10. 교리와 성약 19:16.
11. 모사이야서 18:20 참조.
12. “청남 보조 조직 훈련”, [lds.org/callings/aaronic-priesthood/auxiliary-training](https://www.lds.org/callings/aaronic-priesthood/auxiliary-training) 참조.
13. 헨리 비 아이어링, “에비 신권”,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61쪽.
1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2쪽.
15. “어린이의 기도”, *어린이 노래책*, 6~7쪽 참조.

# 우리 아버지의 영화로운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통해, 출생과 사망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중요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수련의 시절 초기에 첫 아이를 출산하는 한 젊은 엄마를 도울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모는 침착하게 신경을 집중했으며, 그리고 행복해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저는 그 소중한 갓난아기를 산모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산모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기를 꼭 끌어안고 엄마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 방에서 산모와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출생이 인생의 시작인 것일까요? 세상은 출생과 사망을 시작과 끝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통해, 출생과 사망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으로 가는 여정에서의 중요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압니다.<sup>1</sup> 이는 아버지의 계획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지상의 삶과 하늘이 교차하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출생과 사망을 지켜보며 배운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완전한 형제 자매”이며,<sup>2</sup> 우리 개개인 은 그분께 소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배우고, 선택하고, 준비하며 아주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께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sup>3</sup> 이 은사는 그냥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분 곁을 떠나 신앙과 성장과 변화라는 멋지고도 힘든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여정을 구원의 계획 또는 행복의 계획이라고 합니다.<sup>4</sup>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국회의에서 이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sup>5</sup> 계획을 이해한 우리는 몹시 기뻐 소리를 질렀고, “새벽 별들[도] 기뻐 노래”했습니다.<sup>6</sup>

이 계획을 떠받치는 큰 기둥, 즉 영원의 기둥이 세 개 있습니다.<sup>7</sup>

첫 번째 기둥은 지상 생활이라는 여정의

무대인 지구의 창조입니다.<sup>8</sup>

둘째 기둥은 우리의 첫 번째 지상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으로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9</sup> 저는 저와 제 형제들을 세상에 데려오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준 제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선택의지, 즉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과 특권도 주셨습니다.<sup>10</sup> 그리고 선택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면 그분은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sup>11</sup>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내리지는 않을 것임을, 즉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것임을 아신 하나님은 셋째 기둥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육체적 사망과 죄,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sup>12</sup>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sup>13</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영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sup>14</sup>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sup>15</sup> 당신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sup>16</sup>

지상 생활 말미에 그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sup>17</sup>

그 고난의 정도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



하였느니라.”<sup>18</sup>

겻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병, 고통과 결점에 대한 값을 치르기 시작하셨습니다.<sup>19</sup>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그분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불완전함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sup>20</sup>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sup>21</sup>

그런 뒤, 안식 후 첫 날에<sup>22</sup> 주님은 다시는 죽지 않을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음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일어나시기 위해 그분은 먼저 죽음을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임종하는 사람들 곁에서 하늘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른 아침, 저는 남편을 여의고 암 투병 중인 한 충실한 후기 성도 자매님의 병실로 갔습니다. 두 딸이 그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로 갔을 때, 그분이 방금 임종해서 이제는 고통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실은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딸들은 평온한 가운데 슬픔을 느꼈지만, 마음에는 신앙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떠난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갔음을 알았습니다.<sup>23</sup> 극심한 슬픔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인생이 너무도 불공정한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는 구주 안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sup>24</sup> 그 방에 있는 것이 제게는 특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영은 육신을 떠나 우리 여정의 다음 단계인 영의 세계로 갑니다. 그곳은 배우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변화하는 곳으로,<sup>25</sup> 거기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sup>26</sup>

언젠가 위대한 날이 오면,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영과 육신이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입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 남자나 여자, 약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가 부활할 것이며, “모든 것이 … 그 완전한 구조[로] … 회복”될 것입니다.<sup>27</sup>

부활 후, 우리는 구주의 심판을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sup>28</sup>

그런 다음,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뎌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모든 이들은<sup>29</sup> 자신들의 여정이 다 끝나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sup>30</sup>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단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sup>31</sup>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 기록하며 흠 없게” 될 것입니다.<sup>32</sup>

아직 이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께는 와서 몰몬경을 읽고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권유합니다. 와서 신앙을 갖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와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으십시오. 와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행복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와서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 무질서한 지상 생활의 경험 속에서 평안과 목적을 찾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sup>33</sup>

이런 진리를 경험했으나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는 다시 돌아오실 것을 권합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고,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으신다는 점을 간증합니다. 저는 이 간증이 참됨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참됨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31:18 참조.
2. "구원의 계획", 복음 주제, topics.lds.org.
3. 교리와 성약 14:7; 모세서 1:39 참조.
4. 앨마서 42:8 참조.
5. 아브라함서 3:24~28 참조.
6. 욥기 38:7.
7. Russell M. Nelson, "Standards of the Lord's Standard-Bearers," *Ensign*, Aug. 1991, 5~6 참조.
8. 제3니파이 9:15 참조.
9. 니파이후서 2:22~25 참조.
10.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6쪽; "선택의지",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11. 요한복음 14:15, 23 참조; 또한 앨마서 38:1 참조.
12. 앨마서 34:8~16 참조.
13. 요한복음 3:16; 또한 요한복음 3:17 참조.
14.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15. 사도행전 10:38.
16. "살아 계신 그리스도", 2쪽.
17. 누가복음 22:42, 44.
18. 교리와 성약 19:16~18.
19. 이사야 53:4~6; 앨마서 7:11~13 참조.
20. "살아 계신 그리스도", 2쪽.
21. 제3니파이 11:10~11.
22. 요한복음 20:1 참조.
23. 앨마서 40:11 참조.
24. 베드로전서 2:21~25 참조.
25. 교리와 성약 138:57~59 참조.
26. 앨마서 40:2~12 참조.
27. 앨마서 11:44.
28. 제3니파이 27:15~16.
29.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1쪽 참조.
30.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1. 니파이후서 9:50~51; 31:13 참조.
32. 모로나이서 10:32~33.
33. 교리와 성약 59:23.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양들이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을 깊이 연민하시며 죄와 죄지은 자를 동일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온전하심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sup>1</sup>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대하시는 구주의 선하심과 연민에 찬 감정은

우리를 그분께로 나아가도록 이끌며,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도 회개하고 그분을 닮아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려는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성품과 행동을 보이든지 그분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은 사람의 겉모습과 그 사람 자체를 동일시하지 않으므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축으로 해서 전개됩니다.<sup>2</sup> 소설의





서두에서 서술자는 디뉴의 주교인 비앵브뇌 미리엘을 소개하며 그가 빠진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에는 자칭 무신론자로 과거 프랑스 혁명 시절에 저지른 잘못을 두고 멸시를 받던 남자가 있었는데, 주교는 그를 만나 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sup>3</sup>

서술자는 주교가 그 남자에게 깊은 혐오감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짧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더라도, 양이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목자가 돌아설 수 있겠는가?”<sup>4</sup> 서술자가 주교를 대변해 내린 결론은 명백히 “아니다!”였습니다. 서술자는 그런 뒤 재치있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어찌하면 좋을까!”<sup>5</sup>

여기서 위고는 사람의 “사악한 면”을 양의 피부병에, 주교를 병든 양을 앞에 두고 물려서지 않는 목자에 빗대었습니다. 소설이 더 전개되면, 동정심 많은 주교는 또 다른 남자에게 비슷한 연민을 보입니다. 저열한 전과자인 그 남자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자비와 공감에 힘입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경전에서 하나님이 죄를 질병에 빗대어 말씀하기도 하시기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에 비유되는 우리의 죄와 마주하여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sup>6</sup>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불완전한 우리를

혐오하거나 질색하고 외면하지 않으시면서 말입니다.

답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선한 목자이신<sup>7</sup>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병을 치료하고 돌보며 측은히 여겨야 할 상태로 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병든 양들이 치유되어 가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구주께서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sup>8</sup> “잃어버린 자를 ... 찾으며 쫓기는 자를 ...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 싸매 주며 병든 자를 ...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9</sup> 묘사된 바에 따르면, 배도한 이스라엘은 죄로 물들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만 가득하다고 하였으나,<sup>10</sup>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치유받을 것을 독려하고 권고하셨으며, 또 치유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11</sup>

진정 구주께서 필멸의 삶을 사시며 행하신 성역은 사랑과 연민, 공감으로 대변됩니다. 그분은 갈릴리와 유대의 흙길을 걸으실 때, 죄인들을 보시고 주춤하거나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끔찍이 싫어하시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고,<sup>12</sup> 그들을 돕고 축복하고 교화하고 가르치셨으며,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목자시기에, 우리를 찾아 구제하고 희망을 주고자 하십니다.<sup>13</sup> 구주의 연민과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해 회개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구주의 공감이 한 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구주께 데려왔습니다. 그 여인을 고발한 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질문이 끈질기게 이어지자, 마침내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은 자리를 뜨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sup>14</sup>

분명 구주께서는 간음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녀를 격려하셨습니다. 여인은 구주의 연민과 자비 덕분에 변화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이 일로 그녀가 구주의 제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sup>15</sup>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죄를 용납하고 수용하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구주께서 지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sup>16</sup> 심문에 능했던 지에스롭은 엠올레크를 함정에 빠트리고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시겠느냐? 엠올레크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말을 부인하심은 불가능함이라. ... 그는 그들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실 수 없으시니라.”<sup>17</sup> 엠올레크는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회개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주의 권능이 임한다는 근본 진리를 들어 말했습니다.<sup>18</sup>

구주의 연민과 사랑, 자비는 우리를 그분께로 이끕니다.<sup>19</sup>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죄로 물든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sup>20</sup>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용인할 만하며, 무엇이 그르고 죄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추종자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충분히 알면서 기꺼이 당신을 따르고,<sup>21</sup> 당신께서 누리시는 삶을 영위할 자격을 갖추기를<sup>22</sup>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성한 목적을 이루며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얻을 상속자가 됩니다.<sup>23</sup> 그렇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편의나 유행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이나 교리를 그분의 뜻에 반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진 자에게 친절을 베푸신 그분의 모범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특히 큰 가르침을 줍니다. 완전하지 않고 때때로 죄를 짓는 우리는 당연히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연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돕고 축복하고 교화하고 가르치며, 두려움과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자기의 기준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자신보다 남의 죄가 크다고 독선적으로 판단하는 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sup>24</sup> 이에 관해, 구주께서는 특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 뒤 주님은 이렇게 결론지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sup>25</sup>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하는 죄인이 그 죄인을 비난하는 독선적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독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남을 판단하곤 하는 성향은 엘마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더욱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자] … 교회[가] …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 교회의 백성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며 … 서로 조소하기 시작하고,

그들 스스로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sup>26</sup>

이러한 박해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백성 가운데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어떤 사람도 일어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핍박해서는 아니되며, 또 그들 자신들 중에서도 핍박이 있어선 아니된다는 엄격한 법이 있었더라.”<sup>27</sup> 후기 성도에게 주어진 인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박해를 당해 본 사람들은 불공평과 편협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압니다. 저는 1960년대에 유럽에서 십대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미국인이고 교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힘과 비난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평판 나쁜 외교 정책이 제 탓인 양 저를 대하던 학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현지 국가에서 후원하는 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교회가 그 국가를 모욕하고 있다는 듯 저를 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인종과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어 잔혹한 편견과 차별을 감내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짧게나마 접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는 비웃음, 괴롭힘, 배제, 고립, 비난, 증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험악하게 대하는 편협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편협은 표현의 자유를 동등하게 부여하기를 꺼릴 때도 부분적으로 드러납니다.<sup>28</sup> 종교인을 비롯해 누구든 공개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혐오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회원들이 증오와 편협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우리가 남들에게 그대로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구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29</sup> 존중받으려면, 존중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개종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이어지며, 그럴 때 “성신”은 “완전한 사랑”,<sup>30</sup> 즉 다른 사람을 향한 “거짓 [없는] 사랑”으로<sup>31</sup>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언제나 한결같이시며, 오늘날에도 그분이 지상에 계셨던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죄와 죄인을 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에 따라 “이 양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sup>32</sup> 그 과정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이시어 우리가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 그 누구도 버림받았다거나 홀로 되었다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끼지 않도록 서로 마음을 열고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sup>33</sup>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시며,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Lectures on Faith*(1985), 38.
2. 빅토르 위고(1802~1885)의 소설 *레 미제라블*은 누이의 가족을 먹이려고 빵을 훔치는 사소한 죄를 저지른 장발장의 이야기이다. 장발장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네 차례 탈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끝에 19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 그렇게 형을 마친 그는 냉소와 적의에 차 있었다. 장발장은 전과 기록 때문에 일자리도, 음식도, 묵을 곳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지칠 대로 지쳐 아무런 의욕이 없던 그에게 마침내 거처를 내준 사람은 디뉴의 주교였으며, 주교는 장발장을 친절과 연민으로 대해 주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다. 그러나 그는 체포되어 다시 주교 앞에 오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발장의 예상과 달리, 주교는

경찰에게 자신이 장발장에게 은식기를 주었으며, 장발장이 은총대 두 개도 마저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Hugo, *Les Misérables* [1987], book 2, chapter 10 참조)

3. Hugo, *Les Misérables*, book 1, chapter 10 참조.
4. *Toutefois, la gale de la brebis doit-elle faire reculer le pasteur*[그렇더라도, 양이 끔찍한 피부병에 걸렸다고 목자가 돌아설 수 있겠는가]? (Hugo, *Les Misérables* [1985], book 1, chapter 10, page 67)는 서술자의 질문에 나오는 *Gale*라는 말은 기생 진드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피부 질환을 가리키는 수의 병리학 용어로, 탈모 및 딱지를 동반한 발진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한국어로는 “개선” 또는 “옴”이라고 한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다.
5. *Mais quelle brebis!*라는 말은 국민공회 당원에 관한 서술자의 재치가 묻어나는 평이다.(주교가 만날 것을 고민했던 그 남자는 프랑스 혁명 시절 국민공회 출신인데, 국민공회는 1793년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을 단두대로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한 주범이었다-옮긴이) “그런데 이 지지분한 양을 어찌하면 좋을꼬.”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
6. 교리와 성약 1:31.
7. 요한복음 10:11, 14; 알마서 5:38; 교리와 성약 50:44 참조.
8. 이사야 40:11.
9. 에스겔 34:16.
10. 이사야 1:6.
11. 이사야 1:18 참조.
12. 누가복음 15:1~2 참조.
13. 마태복음 18:11 참조.
14. 요한복음 8:3~11 참조.
15. Joseph Smith Translation, John 8:11 (John 8:11, footnotec)
1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48쪽.
17. 알마서 11:34, 37.
18. 힐라맨서 5:10~11 참조.
19. 제3니파이 27:14~15 참조.
20. 현대에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를 구하며, 죄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율법으로나 자비로나 공의로나 심판으로도 성결하게 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더러운 채로 있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8:35)
21. 니파이후서 2:26~27 참조.
22. 교리와 성약 14:7; 132:19~20, 24, 55 참조.
23. 로마서 8:16~17;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24. 마태복음 23:13 참조.
25. 누가복음 18:9~14.
26. 알마서 4:4, 6, 8.
27. 알마서 1:21.
28. *Oxford English Dictionary*, “bigotry” and “intolerance,” oed.com 참조.
29. 마태복음 7:12.
30. 모로나이사 8:26.
31. 베드로전서 1:22.
32. 신앙개조 제3조 참조.
33. 요한복음 10:11~15 참조.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한결같고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가 삶의 역경 너머로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릴 역량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이심을 안다는 간증으로 오늘 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들 또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십니다. 이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그들이 계시받은 주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권고에 따를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주님은 이분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우리 시대의 역경에 맞설 때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물론경에 등장하는 암몬은 제이라헤물라 땅을 떠나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가서 동족의 행방을 알아보라는 임무를 받았습시다. 거기서 그는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된 립하이 왕과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암몬이 제이라헤물라의 백성들 소식을 전하자 립하이 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립하이 왕은 마음에 큰 희망과 기쁨을 얻었고,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 하나님을 신뢰할지이다.

...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좇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내시리라.”<sup>1</sup>

암몬의 말씀은 립하이 왕 백성들의 신앙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은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 백성은 그들의 신앙 덕분에 레이맨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계획을 세우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sup>2</sup>

형제 자매 여러분, 립하이 왕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 제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 하나님을 신뢰할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립하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그들의 두려움을 신앙이 주는 희망으로 바꾸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필멸의 삶은 시험의 기간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는지를 증명할 때입니다.<sup>3</sup>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변함 없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리라 신뢰하면서 영의 인도 아래 나아가야 합니다.<sup>4</sup>

구주의 지상 성역이 끝나갈 무렵, 그분은 결박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5</sup>

잠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겹세마네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짐을 맡입니다. 그분의 삶과 고통,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셨습니다. 주님의 속죄 희생이 주는 혜택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진정한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미칩니다.<sup>6</sup>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되고, 짐이 가벼워지고, 주님을 통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주로부터 받는 힘과 희망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머리를 들고 기뻐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sup>7</sup>

림하이 왕 또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좇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내시리라.”<sup>8</sup>

구주께서 주신 이 권유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sup>9</sup>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sup>10</sup> 신앙은 거룩한 목적과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됩니다. 신앙은 부지런함을 독려하는 실질적인 원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려는 긍정적 태도와 열의에서 나타나는, 필수적이고 살아 있는 힘입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과 인도를 구한 후, 일어나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일들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품고 행동합니다.



여러 해 전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중 한 장로의 부모로부터 그 장로의 여동생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순간에 그 장로와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 지식이 그를 위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놀라고 슬펐던 이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발휘하여 여동생의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온 신앙과 부지런함을 다해 선교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결의에 차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이 충실한 선교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앙과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한결같은 신앙과 그분을 섬기려는 열망이 없다면, 필멸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자신이 무거운 굴레를 지고 있다고 느끼며 복음대로 온전히 생활하려는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이생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sup>11</sup>

늘 기회를 노리는 대적은, 시련과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활용하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그는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논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sup>12</sup>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꾀며 유혹함”<sup>13</sup>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속이도록 두면 안 됩니다. 속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가 삶의 역경 너머로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릴 역량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정적인 충동을 없애고, 설령 견디기 힘든 장애물조차도 극복할 역량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림하이 왕의 백성은 레이맨인들의 속박에서 멋지게 탈출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권유합니다. 인생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새로이 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림 없는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은 죄와 의심, 불신앙, 불행, 그리고 고통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것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실재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할 때에도, 의심과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구속주이십니다.

포르투갈어 찬송가에 있는 “Not Now but in the Coming Years[언젠가 다가올 해에]”의 가사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해 대신 구름이 우리 맘에 그림자 드리우고  
괴로움 닦쳐도 개의치 말라 우리는 곧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리  
우리가 귀 기울이면 머지않아 말씀해 주시리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의지하라  
끊임없이 그의 영광을 노래하라 그가 언젠가  
설명해 주시리니<sup>14</sup>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사이야서 7:19, 33.
2. 모사이야서 21:32; 22:1~14 참조.
3. 아브라함서 3:25 참조.
4. 니파이전서 4:6~7; 니파이후서 31:20 참조.
5. 요한복음 16:33.
6. 누가복음 9:23 참조.
7. 야고보서 1:6, 8.
8. 모사이야서 7:33; 강조체 추가.
9. 요한복음 14:1, 15, 21.
10. 니파이후서 27:23; 엘마서 37:40; 이더서 12:29 참조.
11. 교리와 성약 58:3 참조.
12. 고린도전서 2:14.
13. 모로나이서 7:12.
14. “Not Now but in the Coming Years(언젠가 다가올 해에),” 포르투갈어 찬송가, 156, “Agora Não, mas Logo Mais”의 번역.



마크 에이 브래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는 빛과 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희망에 관한 훌륭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sup>1</sup>

바울이 품었던 희망의 근원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그의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sup>2</sup>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에도 우리는 빛과 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난 10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빛과 진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sup>3</sup>

그러나 대적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우리를 세상의 길로 이끄는 “어둠의 안개”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sup>5</sup>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여, 더 많은 빛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는 빛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빛을 구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에 미시간 대학교의 한 임원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킴 카메론 교수는 긍정적인 지도력의 개념과 그 굴광성 효과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모든 생명체에는 긍정적인 에너지[빛]로 향하려 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어둠]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세포 유기체부터 복잡한 인간 체계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긍정적인 쪽으로 향하고 부정적인 쪽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고유한 성향이 있습니다.”<sup>6</sup>

그는 또한 풍부한 연구에 힘입어 성공적인 직장 문화의 세 가지 주요 요소, 즉 연민, 용서, 감사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sup>7</sup> 사람들이 긍정적인 (빛)으로 향할 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보여 주신 자질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빛이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빛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교회의 빛

교회는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에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sup>8</sup>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고, 새로운 와드와 지부가 조직되며, 새로운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문자 그대로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구상하신 구조 사업 덕분에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동안 교회 활동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최근에 저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FSY[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회를 방문하여 그곳 청소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수천 명의 청남 청녀들이 한 주일을 보내면서 구주에 대한 사랑을 강화한 뒤,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발산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왔고 끝까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빛에 대한 감수성을 무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인식하고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교회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대낮이 될 것입니다.

### 2.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은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길이며<sup>9</sup>, 그 빛은 우리 가정에서, 또 전 세계의 성전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은 복음의 빛을 통해 오해, 다툼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불화로



인해 분열된 가족은 회개, 용서 및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세를 믿는 신앙을 통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sup>10</sup> 이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가정은 주변의 모든 이에게 큰 빛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과 친절이 증가할 때 그 가정의 빛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신앙, ...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sup>11</sup>으로 가족을 굳건히 한다면, 구주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더 강화될 것이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빛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경전 안내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함과 관련하여 성전에 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가정뿐이다.”<sup>12</sup> 현재 155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며, 더 많은 성전이 생길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가족이 현재와 영원을 위해 인봉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조상들의 구원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점점 더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휘장 양쪽에서 축하하며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대낮이 될 것입니다.

### 3. 그리스도의 빛

세상에 있는 빛에 대해 말하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생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축복하시어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 그리스도의 빛은 태양 빛처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sup>13</sup> 그리스도의 빛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고<sup>14</sup> 성신을 받기 위해 선과 진리를 구하는 자 모두를 준비시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바로 “너희 눈을 밝히”고,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며,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15</sup>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구주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더 많이 인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의 계획에서 일부분이 되는지를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생명과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 온전히 이해할 때 느끼는 행복도 크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 곧 가족과 친구,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얻게 되는 기쁨은 그 어느 것에도 견줄 수 없습니다.

저는 2015년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스테이크 센터에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을 구하려고 소방관들이 용감하게 불과 맞섰다는 이야기에서 그런 기쁨을 느꼈습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 지휘관은 후기 성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성스러운 유물과 성찬 컵을 구해 내려 하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성스러운 유물 같은 것은 없고 성찬 컵도 언제든 구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지휘관은 뭔가를 더 해야 한다고 느꼈고, 소방관들을 불타고 있는 건물로 다시 보내어 그리스도 성화를 모두 벽에서 떼어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소방관들을 보살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그림 한 점을 소방차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에 보여 준 그 지휘관의 친절과 선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그의 감수성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대낮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바울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sup>16</sup>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교회에 더 잘 참여하고 가정에 복음 원리를 더 잘 적용할 때, 우리에게 더 큰 빛이 허락됩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내고, 그들 스스로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빛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결국 “빛들의 아버지”<sup>17</sup>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뵙는 대낮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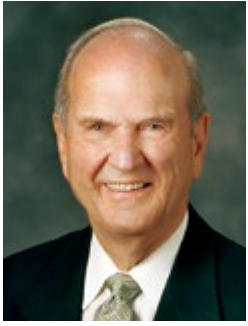
#### 주

1. 고린도후서 4:8~9.
2. 고린도후서 4:6.
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20쪽.
4. 니파이전서 12:17.
5. 교리와 성약 50:24.
6. Kim Cameron, *Positive Leadership: Strategies for Extraordinary Performance*, 2nd ed. (2012), xii; 또한 Kim S. Cameron, “Leading with Energy,” *Wheatley Institution Fellow Notes*, Feb. 17, 2017, wheatley.byu.edu 참조.
7. Kim Cameron, *Positive Leadership*, 33, 36, 39 참조.
8. 쿠엔틴 엘 쿡, “주는 나의 빛”,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65~66쪽 참조.
9. 잠언 4:18.
10.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 (2004), 3쪽.
1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2. 경전안내서, “성전”.
13. 보이드 케이 패커, “그리스도의 빛”,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13쪽.
14. 모로나이서 7:13.
15. 교리와 성약 88:11, 13.
16. 로마서 13:12.
17. 야고보서 1:17; 교리와 성약 67:9.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스테이크 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그리스도의 성화를 구하고 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매우 험난한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 난제와 논쟁, 복잡한 일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런 혼란한 시대를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시대에, 대적이 사람들의 마음에 화를 부추겨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sup>1</sup>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혼란스런 개인 및 사회 문제를 우리 혼자 힘으로 해결하도록 의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진정 사랑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자 독생자<sup>2</sup>를 보내셨습니다.<sup>3</sup>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의 무거운 짐과 장애물, 유혹을 견디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4</sup>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어떻게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sup>5</sup>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sup>6</sup>

우리가 구주의 성역과 사명<sup>7</sup>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또한 그분의 교리<sup>8</sup>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분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올해 초에, 저는 교회의 청년 성인들에게 매주 일정 시간을 내어 표준 경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공부하도록 당부했습니다.<sup>9</sup> 그리고 후기 성도판 영어 경전에서 Topical Guide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권유했습니다.<sup>10</sup>

그런 권유를 한 까닭은 제가 이미 그렇게 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Topical Guide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목 아래 나오는 내용과 더불어 그분에 대한 57개 항목에 이르는 모든 성구를 읽고 밑줄을 쳤습니다.<sup>11</sup> 그 흥미진진한 공부를 마치고 나자 제 아내는 그 일이 제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당신의 지상 사명에 대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을 물론경에서 다시 읽으면서 저는 그분께 헌신하려는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시오.”<sup>12</sup>

우리 후기 성도는 그분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일컫습니다. 이 속죄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었으며, 죄를 회개하고 필수적인 의식을 받고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속죄 희생을 단지 “속죄” 또는 “속죄의 가능하게 하는 힘”, “속죄의

적용”, “속죄로 강화됨” 등의 축약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속죄라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살아 있는 실체와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고통을 겪어지셨던 분은 구주입니다.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던 분도 구주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범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깨끗이 지워 주시는 분도 구주입니다. 우리를 육체적 및 영적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도

구주입니다.

우리가 구조, 치유, 용서 또는 권능을 간구할 “속죄”라는 무형의 실체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십니다. 속죄나 부활같은 성스러운 용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구주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말이기며, 우리는 현세에서 소망을 안고 살 수 있으며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의 희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구주와 연결지을 때 가장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께서 지니신 사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sup>13</sup>

바로 선지자의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 15명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주님의 탄생 2000 주년을 맞이하여 자신들의 간증을 공표하고 서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간증의 제목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sup>14</sup> 여기에 담긴 진리를 암기하신 회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고자 한다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여 구주와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의 희생에 관해 공부하다 보면, 그분의 권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구주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헌신적이며 용감합니다. 저는 최근에 멕시코를 방문해서 정부 관료들과





여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진정한 제자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에서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영웅적이고도 성공적인 우리 회원들의 노력에 모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sup>15</sup>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sup>16</sup>

최근에 저는 한 용감한 월계반 청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고등학교 대표로 미국의 한 주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날짜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청년은 대회 관계자에게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대회를 일찍 떠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실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결심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주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실격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묻자 그 청년은 그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 신앙이 없다면 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행동을 유발하는 신앙을 통해 그분의 권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한 성약을 맺고 정확하게 지킬 때 우리 삶에 구주의 권능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성약을 통해 우리는 그분께 계속되며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충실한 제자로서 회개하고 그분을 따라 침례의 물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약의 길을 걸으며 다른 필수적인 의식들을 받게 됩니다.<sup>17</sup> 감사하게도, 살아 있는 동안 이러한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이 사망한 조상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sup>18</sup>

성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을 방법을 찾고 구하므로 구주의 권능을 얻는 데 걸림돌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충실한 아내이자 어머니인 한 여성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지럽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사랑 많은 선지자, 사도, 지도자의 영감에 찬 인도로 이 거친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던 습관을 중단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매일 아침 휴대폰으로 연차 대회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구주의 권능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신앙으로 그분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sup>19</sup> 그 여인은 구주에 대한 큰 신앙을 행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sup>20</sup>



그런 일념으로 이 충실한 여인은 그분의 권능을 얻기 위해 최대한 손을 뻗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손을 뻗은 행위는 영적으로 손을 뻗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여인처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손을 뻗어 구주의 권능을 내 삶에 끌어올 수만 있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 낼지 알 수 있을 거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야.”

익사하기 직전의 사람이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애타게 공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간절히 얻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께 도달하고자 함을 아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가장 큰 소망이 그분의 권능을 삶에 끌어오는 것임을 느끼실 때,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sup>21</sup>

여러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손을 뻗는다면 그분의 권능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sup>22</sup> 그러면 여러분은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에 나오는 가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께 많은 것 알도록 하시며 ...

###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퍼지오니 땅에 덮인 휘장 거두어지네<sup>23</sup>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올 때 주님과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sup>24</sup>

저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시며, 저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지지합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후서 28:19~30 참조.
2. 요한복음 3:16 참조.
3.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표자가 되도록 그분에게서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가 되도록 기쁨 부음을 받으셨다.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예수께서는 불멸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영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기쁨 부음을 받으셨다.(요한복음 17:24; 베드로전서 1:20 참조)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두 개의 고유한 명칭인 메시아(히브리어)와 그리스도(그리스어)로 불리는데, 둘 다 “기쁨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경전 안에서, “기쁨 부음을 받은 자” 참조)
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에베소서 6:17~18; 데살로니가전서 5:8; 교리와 성약 27:18 참조)

5.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 지상의 창조주가 되셨으며(요한복음 1:2~3 참조), 그 밖에도 무수한 세상을 지으셨다.(모세서 1:33 참조)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구약의 하나님인 위대한 여호와셨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화하신 분도 여호와셨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축복받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신 분도 여호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약을 맺으신 분도 여호와셨다. 예수께서는 이사가가 예언했듯이 약속된 임마누엘이기도 했다.(이사야 7:14 참조)
6. 교리와 성약 131:6.
7. 교리와 성약 76:40~41 참조.
8. 니파이후서 31:2~21 참조.
9.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10. Topical Guide, “Jesus Christ” 참조. 예수 그리스도 제목에 나오는 내용 외에도 그분에 관한 57개의 항목이 더 들어 있다. 영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된 경전은 경전 안내서를 참조한다.
11. 18쪽에 달하는 Topical Guide에 2,200개 이상의 성구가 들어 있다.
12. 제3니파이 27:13~14.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9쪽.
14.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15. 힐라맨서 8:15 참조.
16. 교리와 성약 6:36 참조.
17.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의식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침례(요한복음 3:5 참조), 성찬(교리와 성약 59:9 참조), 성전의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교리와 성약 124:39~42 참조).
18. 교리와 성약 124:29~32 참조.
19. 누가복음 8:43~44 참조.
20. 마가복음 5:28.
21.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22. 충실한 여인이 구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분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서 능력[그리스어로는 *dunamis*]이 나간 줄 알아라.”(누가복음 8:46; 강조체 추가)
23.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24. 제3니파이 17:20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교회 역원 지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및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러셀 엠 넬슨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테일 지 랜런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셨던 브루스 디 포터 장로님께서 2016년 12월 28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의 봉사에 감사드리며, 수전 포터 자매님과 그분의 자녀 및 손자 손녀분들께 우리의 사랑과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장로님처럼 훌륭한 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테일러 지 고도이와 존 시 핑그리 이세를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형제님들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수고해 주신 린다 케이 버튼, 캐롤 엠 스티븐스,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님을 감사의 마음으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본부 상호부조회 위원회 위원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 자매님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진 비 빙엄 자매님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인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님을 해임합니다.

이 자매님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을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테일러 지 고도이, 조니 엘 코호, 아딜슨 드 파올라 파렐라, 존 시 핑그리 이세,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다니엘라 비 외콜로.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진 비 빙엄 자매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쉐런 엘 유뱅크를 제1보좌로,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한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루이스 알 아비주, 데이비드 에이 베날카자, 번 에스 브로드벤트, 데이비드 엘 벅크너, 엘 토드 버지, 루시아노 카스카르디, 텅 충 창, 파블로 에이치 샤베즈, 레이먼드 에이 커틀러, 페르난도 피 델 카피오, 호세 루이즈 델 구에르소, 알렉산드로 에이 드라코프, 아이 레이먼드 에그보, 카를로스 알 푸스코 2세, 조제 에이 가르시아, 게리 에프 게셀, 구일러모 아이 파르디아, 마르셀 구에이, 호세 헤르난데즈, 칼 디 허스트, 렌 에스 존슨, 제이 비 존슨, 앤소니 엠 카쿠, 폴 앤 레키아스, 존 에이 맥킨, 토마스 에스 메르테지아, 아투 제이 미란다, 엘리 케이 문가, 후안 시 포조, 앤소니 콰이시, 제임스 알 래스벤트, 카를로스 지 레빌로 2세, 마틴 시 리오스, 조니 에프 루이즈, 로이 투니클리페, 모세스 빌라누에바.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자신의 스테이크 회장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칠십인 총관리 역원 분들과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여러분은 앞으로 나와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몬슨 회장님은 항상 “천천히 올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프랑코 자매님 부부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코 자매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셨는데, 7월에 귀환하신 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이 부름에서 봉사하실 예정입니다. ■

# 2016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케빈 알 저건슨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 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교회 부서에서 독립된 교회 감사부는 교회가 받은 현금과 사용한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실시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6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합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케빈 알 저건슨  
관리 책임자 ■



# 2016년 통계 보고서

보고자: 브룩 피 헤일즈  
제일회장단 비서

**제** 일회장단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회의 상태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3,266
선교부.....	421
지방부.....	556
와드 및 지부.....	30,304

## 교회 회원

총 회원 수.....	15,882,417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	109,246
침례받은 개종자.....	240,131

## 선교사

전임 선교사.....	70,946
교회 봉사 선교사.....	33,695

## 성전

2016년에 헌납된 성전(프로보 시티센터, 일본 삿포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와이오밍 스타벨리, 코네티컷 하트퍼드 성전).....	6
재헌납된 성전 (피지 수바, 독일 프라이버그 성전).....	2
연말 기준 운영 중인 성전.....	155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특성은 모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굳건히 견디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란 침례를 받고서 기꺼이 구주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도제가 자신을 가르친 스승처럼 되고자 애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따르는 자”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적 속성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영적인 태피스트리(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역자 주)를 만들어 가듯 그리스도의 특성을 하나하나 엮어서 자신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주의 제자가 되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유를 들어 보십시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sup>1</sup>

들으신 것처럼, 영적인 태피스트리를 짜서 제자가 되려면 여러 가닥의 실이 필요합니다. 구주께서 지상에 계시던 시대에, 자신들이 삶의 이런저런 면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선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던 그들은 구주께서 그 거룩한 날에 병자를 치유하신 일을 비난했습니다.<sup>2</sup>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는 했지만 쓰고 남은 만큼만, 즉 자신에게 필요없는 한에서만 주었습니다.<sup>3</sup> 금식을 했지만 슬픈 기색을 보였으며,<sup>4</sup> 기도를 했지만 사람들에게 보일 목적으로만 했습니다.<sup>5</sup>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sup>6</sup> 그런 사람들은 특정 자질이나 행동을 통달하는 데 중점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까지 구주처럼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sup>7</sup>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주의 속성은 곧이곧대로 따라야 할 규약이나 확인하며 지워 나갈 과제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더해져 한데 서로 엮이는, 즉 우리의 내면에서 상호 작용을 하며 발전하는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 한 가지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다른 속성 또한 길러서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속성이 강해질 때, 다른 많은 속성들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와 교리와 성약 4편을 보면, 그 토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8</sup> 신앙은 기폭제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유덕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만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신앙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sup>9</sup>

그렇기에 베드로는 “너희 믿음에 덕을 ... 더하라.”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덕은

성적 순결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몸의 청결함과 기록함입니다. 또한, 덕은 힘입니다. 복음에 충실하게 생활할 때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유덕하게 될 힘을 연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신의 속삭임과 그리스도의 빛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sup>10</sup> 우리는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 갑니다.

베드로의 말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너희] 덕에 지식을 ... 더하라.” 유덕한 삶을 살 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을] ... 알리라.”<sup>11</sup> 이 지식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간증입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우리의 “빛은 [그분의] 빛과 결합하며” 우리의 “덕은 [그분의]

덕을 사랑하”게 됩니다.<sup>12</sup> 유덕한 생활을 함으로써 “나는 믿는다”에서 “나는 안다”라는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제자로서 균형 잡히고 자제력을 지닌 모습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하지는 않습니다.<sup>13</sup> 그저 우리를 단련하는 지상 생활의 난제에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합니다.

이렇게 절제함으로써 인내심을 기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sup>14</sup>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습니다.<sup>15</sup> 모진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우리는 “당신께서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니까?”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건디되 참을성 있게, 그리고 잘 견디며 정진합니다.<sup>16</sup>

베드로는 이런 인내가 경건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내하시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선택의지에 대해 기뻐하고, 그들이 그 선택의지를 통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sup>17</sup>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는<sup>18</sup> 기회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제에서 인내로, 그리고 인내에서 경건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모든 진정한 제자의 특징인 “형제간의 우애”를 얻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설사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보살핍니다.<sup>19</sup>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악의를 품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대합니다.<sup>20</sup> 이보다 더 경건한, 혹은 더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이 있을까요?

구주의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차곡차곡 더해져서 결국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지닌” 자가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sup>21</sup>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규정짓는 특성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sup>22</sup>

신앙,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입니다.<sup>23</sup> “그런즉 …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입니다.<sup>24</sup>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원할 때만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특성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특성은 모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굳건히 견디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진심으로 노력할 때, 이런 특성들이 한데 엮이고 더해지며 우리 내면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강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에게나 친구에게나 똑같은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처럼 정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장소에서도 골방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께 헌신적일 것입니다.

누구나 구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일에는 나이나 성별, 또는 인종적 태생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후기 성도는 개개인이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써 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할 총체적인 힘을 쌓아 올립니다. 지금은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할 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주의 제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시다. 이 대화를 계기로 “옛적과 같이 시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갑시다.<sup>25</sup>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헌신적이고 용감한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영원한 여정에 그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베드로후서 1:5~7.
2. 누가복음 13:14 참조.
3. 누가복음 21:4 참조.
4. 마태복음 6:16 참조.
5. 마태복음 6:5 참조; 또한 엘마서 38:13 참조.
6. 조셉 스미스—역사 1:19; 또한 이사야 29:13; 누가복음 6:46 참조.
7. 마태복음 7:22~23.
8. 모로나이서 7:33.
9. 야고보서 2:20 참조.
10. 고린도전서 2:16 참조.
11. 요한복음 7:17.
12. 교리와 성약 88:40.
13. 모사야이서 4:27.
14. 교리와 성약 58:3 참조.
15. 교리와 성약 101:16.
16. 교리와 성약 121:8 참조.
17. 교리와 성약 98:12.
18. 교리와 성약 50:24.
19. 누가복음 10:33 참조.
20. 마태복음 5:44 참조.
21. 모로나이서 7:47.
22. 고린도전서 13:1~2.
23. 교리와 성약 4:5 참조.
24. 고린도전서 13:13.
25. 몰몬서 9:27.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입으로 부르는 노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우리가 모두 영원히 충실하게 합창단에 남아 있기를 간구합니다.

**일** 라이자 휴잇은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어느 세상보다도 영화롭고 밝게 비치니 예수는 나의 빛”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sup>1</sup> 한 음 한 음에 빛을 담은 이 놀라운 찬송가를 부를 때면 미소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찬송가에 있는 한 구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구절은 노래를 부르거나 미소 짓기가 힘겹게 느껴지고 “축복받은 햇빛”이 “내 영혼”에 비치지 않는 듯한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부르는 기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이 찬송가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예수 들으시네”라는 가사를<sup>2</sup> 굳게 믿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과 굳건함이 시험받는 험겨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타인의 부족함, 또는 삶 그 자체에서 오는 어려움 등,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면 그토록 부르기를 원하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게 되고, 일라이자 휴잇이 “나의 영혼 봄일세”<sup>3</sup>라고 찬미한 약속도 퇴색되고 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사도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여 “...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려야]”<sup>4</sup> 합니다. 기쁨의 선율을 표현할 여력이 없을 만큼 흔들릴 때, 우리는 잠시 조용히 멈춰 서서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주변에 흐르는 아름다운 음악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종종 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더 자신 있게, 그리고 훨씬 더 잘 노래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일도 분명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절대 음감을 지닌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이 붙어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침묵까지도 능히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에서 용기를 얻고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은 주님의 메시아적 중보를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 “화평스런 비둘기[가] 노래[하고] 은혜의 꽃”<sup>5</sup>이 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특히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당부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음이 맞지 않는 것 같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합창단에서는 거룩한 계획에 따라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지니지는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음악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라노, 알토, 바리톤, 베이스 등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후기 성도 자매 두 분이 보내 주신 유쾌한 편지에서 빌린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누구든 합창단에 설 수 있습니다.”<sup>6</sup> 개성을 깎아내리거나, 또는 허구의 고정관념, 즉 탐욕스런 소비문화가 만들어 내고 소설



미디어를 통해 실현할 수 없을 만큼 이상화된 것들을 좇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담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풍부한 음조와 음색을 잃고 맙니다.

물론 이 신성한 합창단에서 모두가 막무가내로 자기만의 노래를 불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양성은 불협화음이 아니며 합창단은 규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작곡된 아름다운 곡조와 성스럽게 계시된 가사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거나 자신이 기여하는 부분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합창단에서 자신의 역할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위대한 필멸의 합창단은 사회나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떠나는 이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라도 합창단을 떠나면 다른 단원들까지도 모두 소리가 줄어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르기가 어려워 보이는 노래라도 신앙을 발휘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불렀어야 했는데 아직 부르지 못한 노래들과 씨름하고 있음을 담백하게 인정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크나큰 경제적 불평등을 볼 때마다 휴잇 자매님이 쓰신 대로 “내가 지금 받는 이 축복 오직 기쁨일세.”라고 노래하기가 편치 않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훌륭하게 보살피기 전에는 그 부분을 온전히 기쁘게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궁핍은 해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고집스레 계속되는 저주와 같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영을 다치게 하며, 가족을 해치고, 꿈을 파괴합니다. 예수께서 거듭 명하셨듯 우리가 빈곤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다면, 어쩌면 이 세상의

불우한 사람 중 몇몇은 생애 처음으로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의 몇 소절을 흥얼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주위에서 많은 이들이 정신적, 심리적 질환, 혹은 다른 건강상의 제약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밝고 흥겨운 노래를 부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힘써 노력하며 도움을 주는데도 이러한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과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지금 그들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세상을 아우르는 이 위대한 합창단이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모두 뛰어넘어 조화를 이룬 목소리로 무기, 비난, 독설은 인류의 대립과 갈등에 대처하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선포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흡족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이로써 사람들이 서로를 이웃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영속적인 구원의 길이 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더는 “더 나은 세상[을] … 바[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천 년 후, 전쟁과 폭력에 치친 모로니는 그 기록을 읽고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더욱 좋은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up>8</sup>

이러한 시련 가운데 때때로 그와는 다른 이유로, 우리가 입으로는 부를 수 없는 또 다른 종류의 노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오하고 개인적이며 너무도 성스러워서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코델리아처럼 말입니다. “내 사랑을 … 말로 다할 순 없을 테니까. … 마음을 말로 다 담을 수는 없을 테니까.”<sup>9</sup> 거룩하고 성스럽게 다가오는 이러한 느낌은 마치 예수께서 니파이인 어린이들을 위해 하신 기도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며, 영적으로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것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어떠한 혀로도 말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록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도 없나니.”<sup>10</sup>

이렇게 성경한 순간을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설사 말로 표현한다 해도 그 말이 곧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필멸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입으로 부를 수 없거나 아직 부르지 않은 노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합창단에 영원히 충실하게 남아서 가장



귀한 성가,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영원히 음미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sup>11</sup> 다행히도, 이 특별한 곡을 부르는 데 자격 제한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사는 곳이 달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독신, 기혼자, 대가족은 물론, 자녀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자신의 신앙을 의심했던 사람도,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성적 성향이 다른 사람도 모두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합창단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행동 철칙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의 선율이라면, 우리의 공통된 목표인 순종은 이 노래에 꼭 필요한 화음입니다. 사랑과 신앙, 회개와 동정심, 정직과 용서라는 신성한 계명이 있는 이 합창단에는 여기 있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sup>12</sup>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시며 “변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결의에 차 계심을 기억하며 웃음 짓습니다.

우리의 승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부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지휘를 따라서 우리가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을 끊임없이 연습하여 “[우리] 왕께 드리는 노래”<sup>13</sup>를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무척 사랑하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수 불마차 타고 하강하실 때  
천국 무리 함께 찬송 부르오니  
호산나 호산나 주와 어린 양!<sup>14</sup>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독생자를 지상으로 보내실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독생자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가 그분의 회복된 교회이며 온 인류에게 그분이 마련하신 복음의 구원 의식과 가르침을 전하는 도구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갈 때,<sup>15</sup> 진정 예수께서 “웃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sup>16</sup>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고 영원한 햇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된 때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2. 찬송가, 153장.
3. 찬송가, 153장.
4. 로마서 8:25.
5. 찬송가, 153장.
6. Bill Staines, “All God’s Critters Got a Place in the Choir,” in Laurel Thatcher Ulrich and Emma Lou Thayne, *All God’s Critters Got a Place in the Choir* (1995), 4.
7. 찬송가, 153장.
8. 이더서 12:4, 11 참조.
9. William Shakespeare, *King Lear*, act 1, scene 1, lines 79–80, 93–94.
10. 제3니파이 17:16~17; 강조체 추가.
11. 엘마서 5:26; 또한 엘마서 26:13 참조.
12. 니파이후서 26:33 참조.
13. 찬송가, 153장.
14.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 찬송가, 31장.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42쪽.
16. 찬송가, 153장.



게리 비 사빈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내적으로 힘을 되찾고 일어서서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아갈 경로를 다시 설정하고, 원대한 희망과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용감하게 “내면에서 일어섭시다.”

몇 년 전에 어린 손녀가 제게 달려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축구 시험에서 제가 세 골을 모두 넣었어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세라!”

그러자 세라의 어머니가 저를 보고 한쪽 눈을 찡긐하며 말했습니다. “점수는 2대 1이었어요.”

저는 누가 이겼는지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연차 대화는 자기 성찰을 하고, 계시를 받고,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네버로스트[NeverLost]’라는 지피에스(GPS) 시스템을 사용하는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이 지피에스 시스템의 안내 음성은 목적지가 입력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면 “이 바보 같으니라고!” 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상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해 준다고 합니다.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유턴하십시오.”

에스겔서에는 이런 훌륭한 약속이 나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고, 또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sup>1</sup>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지만 세 번째 약속을 받으려면 두 개의 율례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고, 모든 것을 지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받습니다. 그러려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 나온 한 남성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남성은 봉투에 현찰을 가득 담아 국세청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익명의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께, 과거에 내지 못한 세금을 보냅니다. 추신: 이것을 보낸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나머지 세금도 모두 보내겠습니다.”<sup>2</sup>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이리저리 따져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sup>3</sup> 우리의 온 마음 말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구주를 따르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전심전력”을 다할 때, 하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움직입니다.<sup>4</sup> 미온적으로나 부분적으로만 헌신한다면, 하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sup>5</sup>

오래전에 저는 보이스카우트 소년들과 함께 사막으로 야영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소년들은 자신들이 지핀 큰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잤고, 저는 여느 훌륭한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그렇듯 제 트럭의 뒷좌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야영지를 둘러보는데, 스카우트 대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을 풀이라고 하였습니다. 풀이 유난히 찌뿌둥해 보여서 잘 잤느냐고 물었더니, “잘 못 잤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묻자, 풀은 “추웠어요. 불이 꺼졌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불은 꺼지게 마련이지. 침낭 속은 따뜻하지 않았니?”

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스카우트 대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풀은 침낭을 안 썼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왜 침낭을 안 썼니?”

침묵이 흐른 후, 마침내 풀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침낭을 펴지 않으면 다시 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풀은 5분의 수고를 아끼려고 여러 시간 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욱 위험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곤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영적인 침낭을 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고, 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매일 복음에 따라 열심히 생활하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닥불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냉담해지게 됩니다.

성약을 안일하게 대한다면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에 관하여, 그리고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sup>6</sup>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피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sup>7</sup>

사실, 부분적으로 현신하는 것보다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분적으로만 현신하거나 전혀 현신하지 않는다면 스타워즈 식으로 말해서, “포스에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행복의 본질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sup>8</sup>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sup>9</sup>

다행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디에 있었던, 우리는 구주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sup>10</sup>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겸손함을 되찾아 힘을 얻고,<sup>11</sup> 삶의 경험에서 풍성한 지혜를 얻습니다. 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sup>12</sup> 영국 시인 테니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힘은 열 사람의 힘과 같으니, 이는 내 마음이 순수한 까닭이라.”<sup>13</sup>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sup>14</sup>

제 아들 저스틴은 평생 질병에 시달리다가 열아홉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스틴은 저희 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성찬식 말씀을 전하며 자신이 깊은 감명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사람 모형의 샌드백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주먹으로 샌드백을 칠 때마다 샌드백은 쓰러졌다가 곧바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샌드백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안에 일어세게 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전심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닥쳐오든”<sup>15</sup> “내적으로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체의 가시를<sup>16</sup> 없애 주시거나 견딜 힘을 주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때, 우리는 내적으로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한 가시는 질병, 장애, 정신 질환,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진 손을 들어 올릴 때 내적으로 힘을 되찾습니다. 점점 빛을 불편해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며<sup>17</sup>

“의인들을 그 의로 인하여 정죄하”는<sup>18</sup> 사악하고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진리를 지킬 때, 우리는 내적으로 힘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도 내적으로 힘을 되찾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양심이 있고, 성신이 주는 확신을 통해 힘과 위안을 얻으며,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sup>19</sup> 영원한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지상 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받자 기뻐서 소리쳤습니다.<sup>20</sup>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용감하게 지키는 옹호자가 되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서서 그분의 계획을 옹호할 때입니다!

최근에 제 아버지는 향년 97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잘 지내시냐고 안부를 물어 오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즘 내 기분을 1에서 10 사이에서 등급을 매기자면, 한 25쯤 된다오!” 아버지는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겨우실 때도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적으로 힘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가 90세이실 때 함께 공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휠체어를 갖다 드릴지를 여쭙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게리. 좀 더 늙으면 그렇게 하자꾸나.”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걷는 게 힘들면 언제든 뛰어가면 된다.”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방식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지 못한다면, 뛰어가야 할 수도 있고 경로를 재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고, 더욱 진실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을 붙잡기 위해서는 세상을 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 점을 이해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버지가 해군에 계셨을 당시, 그곳에는 아버지의 원칙을 조롱하는, 크고 넓은 건물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sup>21</sup> 하지만 아버지의 전우 가운데

데일 매덕스와 돈 데이비드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빈, 자네는 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자네는 도덕 표준도 높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욕설도 안 하는 데다 언제나 차분하고 행복해 보이네.”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이 그들이 몰문에 대해 배운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이 두 전우를 가르치고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노한 데일의 부모님은 데일이 교회에 들어간다면 사랑하는 여자 친구인 메리 올리브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데일의 청에 따라 선교사를 만났고, 그녀 역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그중에는 몇몇의 기혼자들도 있었습니다. 1946년, 데일과 그의 아내인 메리 올리브는 첫 출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데일이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에 그들은 모두 아들 셋과 딸 여섯을 낳아 슬하에 아홉 남매를 두었습니다. 세 번의 선교 사업을 한 데일과 메리 올리브를 따라 아홉 자녀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수십 명의 손자 손녀들 또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 아들 중 존과 매튜 매덕스는 현재 태버나클 합창단의 일원이며, 매튜의 사위인 라이언도 그렇습니다. 매덕스 가족은 이제 144명이 되었고, 그들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일에서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서류를 훑어보던 중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전우였던 돈 데이비드슨의 다섯 딸 중 하나인 제니퍼 리차즈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제님의 의로움 덕분에 저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저희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사랑하셨고 생의 끝까지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 애쓰셨습니다.”<sup>22</sup>

개개인이 내적으로 힘을 되찾을 때 미치는 선한 영향력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두 전우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sup>23</sup> 그들은 대중보다 창조주를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고 한 것은<sup>24</sup> 어쩌면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헛된 말”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화입니다.<sup>25</sup> 그런 대화는 사악함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 자주 이뤄집니다. 또한, “전심전력”을 다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지자가 아닌 욕에 속한 사람을 따르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뤄집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충실한 사람들의 결말을 압니다.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sup>26</sup> 확신을 얻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올바르게 사십시오.”<sup>27</sup>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브리검 영 대학교가 하는 미식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면서도 경기 결과를 직접 접하게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신 나머지 시합은 보러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디오 녹화기가 발명되어 장인어른께서 경기를 녹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가 이기면, 장인어른은 결과를 아시기에 마음 놓고 녹화 경기를 보셨습니다. 팀이 부당하게 벌칙을 받거나 누군가 부상을 입거나 경기 막판에 점수가 뒤처지더라도 결국은 이길 것을 아셨기에 초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sup>28</sup>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실하면 결국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확신을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필멸의 세상이 마냥 쉽다거나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sup>29</sup>

형제 자매 여러분, 내일의 죄를 지어 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나아갈 경로를 다시 설정하고, 원대한 희망과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용감하게 “내적으로 힘을 되찾고 일어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의 사명을 순수하고 용감하게 수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위대한 행복의 계획이 실재함을 간증합니다. 주님의 가장 좋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해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에스겔 18:21~22.
2. 예를 들어, Roy B. Zuck, comp., *The Speaker's Quote Book: Over 5,000 Illustrations and Quotations for All Occasions* (2009), 107-8 참조.
3. 교리와 성약 64:34 참조.
4. 교리와 성약 21:6 참조.
5. 요한계시록 3:15~16 참조.
6. 교리와 성약 84:43.
7. 교리와 성약 29:17.
8. 엘마서 41:11 참조.
9. 이사야 57:20~21.
10. 제3니파이 9:22.
11. 제3니파이 11:37~38 참조.
12. 욥기 17:9.
13. Alfred Tennyson, "Sir Galahad," in *Poems of the English Race*, sel. Raymond MacDonald Alden (1921), 296.
14. 교리와 성약 87:8.
15. 조셉 비 워스틴,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6~28쪽 참조.
16. 고린도후서 12:7 참조.
17. 이사야 5:20 참조.
18. 힐라맨서 7:5.
19. 빌립보서 4:7 참조.
20. 욥기 38:7 참조.
21. 니파이전서 8:26 참조.
22. 제니퍼 리차즈, 마빈 사빈에게 보낸 서신, 2009년 7월 5일.
23. 니파이전서 8:27, 33 참조.
24. 디모테전서 1:6.
25. 니파이전서 8:26~28 참조.
26. 로마서 8:28.
27. Bangambiki Habyarinmana, *Inspirational Quotes for All Occasions* (2013) 참조.
28. 니파이후서 31:20.
29. 고린도전서 2:9.



발레리 브이 코르돈 장로  
칠십인 정원회

# 복음의 언어

가정에서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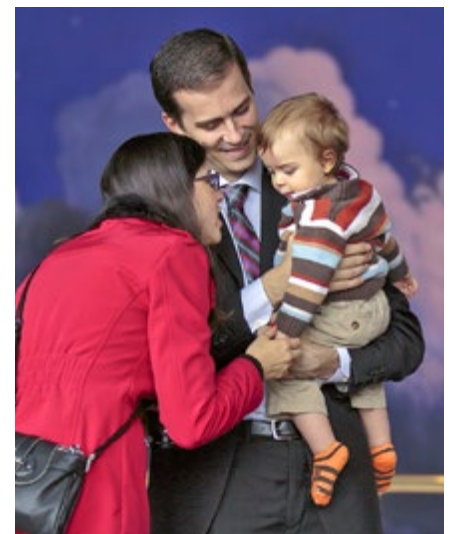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은 후 첫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코스타리카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다양한 민족적 배경과 문화를 지닌 훌륭한 분들을 만나 뵙는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저처럼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태어난 분들도 많습니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히스패닉 1세대는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만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히스패닉 2세대, 즉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이곳에 와서 학교에 다닌 세대는 영어는 아주 잘하지만, 스페인어는 그다지 유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세대에 이르면, 대체로 그들은 조상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sup>1</sup>

이것을 간단히 언어학적 용어로 말하면 “언어 상실”이라고 합니다. 모국어가 잘 쓰이지 않는 외국으로 가족이 이주할 때 그런 언어 상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히스패닉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국어가 새로운 언어로 대체되는 상황이면 누구에게든 발생합니다.<sup>2</sup> 물론경의 선지자 니파이도 약속의 땅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면서 조상의 언어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습니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이 기록을 얻어야 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언어를 보존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요.”<sup>3</sup>

한편, 니파이가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던 언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과 권능으로 전달되어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세상에 전해진





말씀들을 보존하여, 그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니이다.”<sup>4</sup>

저는 모국어를 보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 보존하는 것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는 비유를 통해, 세상의 특정 언어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영원한 언어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어가<sup>5</sup>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언어”란 우리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한 순종, 의로운 전통을 따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복음의 언어를 보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가정에 더 부지런하게 마음을 쓴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뉴얼 케이 휘트니 등 많은 저명한 교회 회원들에게 가정에 질서를 세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뉴얼 케이 휘트니도 ... 징계를 받아, 자기 가족에 질서를 세우며, 삼가 그들이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항상 기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그렇지 아니면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리라.”<sup>6</sup>

언어 상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국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국어를 보존하기 바란다면,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모국어를 보존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모일수록 성공적으로 모국어를

보존해 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sup>7</sup> 그렇다면, 복음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가정에서 복음 교육과 모범이 미흡하면”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그 후손이 교회에 계속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강력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sup>8</sup>

그러므로 가정에서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면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족과 함께, 또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여러 차례 권고받았습니다.<sup>9</sup> 이 권고대로 행하는 가족들은 많이들 매일 더욱 하나가 되고, 주님과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경전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경전을 손에 들고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경전을 공부할 것을 사랑으로 권유할 때, 가족이 매일 경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매일같이 경전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 커다란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 둘째: 가정에서 강력한 모범을 보인다

한 언어학 전문가는 모국어를 보존하려면 “자녀를 위해 언어가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sup>10</sup> 우리의 가르침과 모범이 함께 작용할 때 “언어[는] 살아 숨 쉬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방학이면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을 때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거니?”

저는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일조를 내고 선교 사업을 가기 위해 저금할 거예요.”

8년간만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저는 아버지의 질문에 한결같이 답했고, 아버지는 당신께서 그렇게 제게 십일조 내는 법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실 제가 어느 한 주말을 통해 이 중요한 원리를 배웠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원리를 어떻게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양아메리카의 내전과 관련된 몇몇 사건이 일어난 후, 아버지의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한때 정규직 직원이 200명은 족히 되던 아버지의 회사에는 어느새 5명도 안 되는 재봉사만 남았고, 그것도 일거리가 있을 때만 저희 집 차고에 자리를 잡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십일조를 내야 할지 저희를 먹일 음식을 사야 할지를 두고 의논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아버지 뒤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을 마친 후,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꺼내서 그 안에 십일조를 넣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살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왔고, 그날은 이른 아침부터 누가 저희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오시자, 방문객들은 급하게 재봉을 부탁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일을 마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워낙 사정이 급하니 대금도 미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십일조를 내는 원리와 그에

따르는 축복을 배웠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모범을 보이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sup>11</sup>

자녀들에게 성전 결혼과 금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금식하고<sup>12</sup> 안식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두 끼를 금식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경전을 공부할 수 없고 일요일에 TV에서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방송될 때 TV를 끌 수 없다면, 어떻게 어려움 많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외설물의 유혹을 비롯한 강력한 유혹에 저항할 만큼 영적인 자기 수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셋째: 전통**

언어가 변형되거나 상실되는 또 다른 경우는 하나의 모국어가 다른 언어나 문화와 섞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sup>13</sup>

주님께서는 회복된 교회의 초창기에 여러 저명한 교회 회원을 향해 가정에서 질서를 세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정에서 빛과 진리를 잃게 만드는 두 가지 원인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불순종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 조상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가느니라.”<sup>14</sup>

가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매일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전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피해야 합니다. 가정에 외설물 및 기타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법한 디지털 자료가 들어오는 문이 있다면,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전통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성스러운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론**

경전에는 “언어가 상실된” 사례가 몇 가지 나옵니다.<sup>15</sup>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sup>16</sup>

자라나는 세대에게 복음이 낮선 언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국어를 유지하는 이점에 대해서는 때때로 논란이 있지만, 구원의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의 언어를 상실함으로써 생겨나는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sup>17</sup>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안타까이 여기듯,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수를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언어는 서툴고 또 서툴지만, 주님은 그 진실한 율조림을 마치 아름다운 시구라도 되듯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첫 마디를 내뱉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삶에서 이루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복음의 언어를 잃어버린다면 그 어떤 성취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sup>18</sup>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언어를 익히고자 노력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언제나 우리의 모국어였던 더 높은 수준의 언어를 유창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1. 히스패닉계 3세대에서 “영어를 단일 언어로 사용하는 비율은 ... 72퍼센트이다.”(Richard Alba, “Bilingualism Persists, but English Still Dominates,” migrationpolicy.org/article/bilingualism-persists-english-still-dominates)
2. “3세대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Alba, “Bilingualism Persists, but English Still Dominates”)
3. 니파이전서 3:19; 강조체 추가.
4. 니파이전서 3:20; 강조체 추가.
5. 언어란 “특정 국가 혹은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Oxford Living Dictionaries, “language,” oxforddictionaries.com)
6. 교리와 성약 93:50; 강조체 추가.
7. “[모국어의 보존은] 가능한 일이지만, 헌신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Eowyn Crisfield, “Heritage Languages: Fighting a Losing Battle?” onraisingbilingualchildren.com/2013/03/25/heritage-languages-fighting-a-losing-battle) “예를 들어, 미국 중서부에 거주하며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던 사람들은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도 성공적으로 모국어를 유지했다.”(Alba, “Bilingualism Persists, but English Still Dominates”)
8. David A. Bednar, “Multigenerational Families,” in General Conference Leadership Meetings, Apr. 2015, broadcasts.lds.org.
9. 현대의 한 가지 예는 제일회장단이 전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가족 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권고드립니다.”(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
10. “우리는 자녀를 위해 언어가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그 언어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Crisfield, “Heritage Languages: Fighting a Losing Battle?” 강조체 추가)
11. 요한복음 5:19.
12. “올바른 금식일 준수에는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연속 두 끼 동안 음식과 음료를 삼가고,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고, 궁핍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돕기 위해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이 포함된다.”(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1.1.17)
13. 욥나아서 1:17 참조.
14. 교리와 성약 93:39; 강조체 추가.
15. 본 말씀의 문맥에서 “언어 상실”이란 복음을 어떻게 상실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사사기 2:10; 욥나아서 1:17; 제3니파이 1:30 참조)
16. 모사이아서 26:1, 3; 강조체 추가.
17. 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참조.
18. 마태복음 16:24~26 참조.

#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에서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사모아로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겪으신 아름다운 경험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잠자리에 드신 뒤 “너무나 거룩한 시현을 보”셨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리 있는 아름다운 흰 도시를 보았다. ... 풍성한 열매가 달린 나무와 ... 활짝 핀 꽃을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 한 무리의 사람이 이 도시를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희고 긴 옷을 입었다.] ... 순간적으로 나는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나는 옆 모습밖에 볼 수 없었으나 그가 구주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외모에서 비치는 ... 빛은 그야말로 영광의 빛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 평온이 감돌고 있었다.

... 그곳이 그분의 ... 영원한 도시였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평안과 영원한 행복 속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것 같았다.”

맥케이 회장님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분은 뒤이어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는 듯이 그들 위에 떠오른 반원을 손으로 가리켜 주셨는데 그 반원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금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니,  
참으로 다시 태어난 자니라!’<sup>1</sup>

저는 “이들은 세상을 이긴 자니”라는 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यो ...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입니다.<sup>2</sup>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며,<sup>3</sup> 영생을 받을 것이며,<sup>4</sup>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sup>5</sup>

세상을 이기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 구주를 향한 사랑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분의 신성한 탄생과 완전한 삶, 겻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이룩한 무한한 속죄를 통해 우리는 모두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으시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sup>6</sup>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7</sup>

그리고 후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노라.”<sup>8</sup>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생에서 영원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한 아이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경건하게 “주 예수를 닮으려고”<sup>9</sup>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전서에서 구주의 삶을 공부하고 물문경에서 구주의 속죄 권능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과정은 이어져 나갑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엘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또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니라. ... 그들은 끝까지 충실하였나니.”<sup>10</sup>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진심으로 변화하고 죄를 회개하면 속박은 끊어지고 자유가 찾아오며, “주홍 값”은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sup>11</sup>

### 하나님에 대한 책임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마치 부모님이 출타 중인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신나게 놀면서 24시간 후에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육에 속한 사람을 진정시키기보다 그 욕구를 채우고 충족시키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계와 맞서 대대적으로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적과 일대일로 맞서야 하는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sup>12</sup>라는 가장 큰 계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작가 시 에스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모든 것을 바치라. 내게 바라는 것은 너의 많은 시간과 돈과 수고가 아니니, 내가 바라는 것은 너 자신이니라.’”<sup>13</sup>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침례 성약, 성전 성약, 영원한 동반자에게 충실하겠다는 서약 등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매주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대에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그를 기억하고 그가 지히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sup>14</sup>

안식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당 문이 닫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관심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날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끝났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미식축구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텔레비전을 켜려고 부리나케 달려가기보다는 구주와 그분의 거룩한 날에 끝까지 집중합시다.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끊임없이 휘청이고 있습니다.<sup>15</sup>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sup>16</sup> 경고와 위안, 확신과 깨우침, 그리고 평화를 주는 한 음성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자신을 내려놓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는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며<sup>17</sup> 자신보다 타인에게 눈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8</sup> 배우자의 행복이 나 자신이 추구하는 즐거움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어 줌으로써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기꺼이 나눕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시를 끊임없이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저와 제 이웃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쉽게 짜증을 내고 무관심하고 요구가 많으며 군중의 환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면 겸손, 공감, 인내,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향한 동정심이 생겨납니다.

#### 선지자 안에서 얻는 안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sup>19</sup>

오늘 아침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sup>20</sup>

그리스도의 제자는 신앙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한 뒤 거기에 1,000개의 “좋아요”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호의적인 이모티콘이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관계보다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관계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계신 주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인도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성전에 간다면,] …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 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해 낼 것입니다. … 새로운 힘을 얻으며 강화될 것입니다.”<sup>21</sup>

세상은 유혹과 방해, 왜곡의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충실한 이들이 과거에 겪었던 충분한 영적 경험을 사소한 것으로 깎아내리며, 그것은 어리석은 속임수였다고 믿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주의 사랑과 빛을 느꼈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의 그런 생각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sup>22</sup>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현재의 불공평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세속에서 격리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한 더 넓은 시야를 열어 주고, 우리를 구주와 그분의 약속으로 이끍니다.

완전함은 이생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언젠가 “[구속주]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sup>23</sup>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sup>24</sup>

#### 브루스 디 포터 장로의 모범

작년 12월 28일, 우리의 친애하는

친구이자 사랑하는 총관리 역원이었던 브루스 디 포터 장로님이 지상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64세였습니다.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처음으로 포터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포터 장로님은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러시아의 정치와 역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분은 의견을 펼치고 집필 활동을 하며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었지만, 세상의 부와 찬사는 조금도 그분의 시야를 흐려 놓지 못했습니다.<sup>25</sup>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동반자 수잔,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충실하셨습니다.

포터 장로님은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선교 사업을 끝내고 수술을 받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1995년, 포터 장로님이 총관리 역원으로



어린 가족들과 함께한 포터 장로와 자매.



러시아에서 함께 봉사하고 있는 포터 장로와 자매.



부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봉사했는데, 그분은 러시아와 동유럽 관련 일을 주로 맡으셨습니다.

포터 장로님의 인생은 신장 기능과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1997년을 기점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분은 가족과 함께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칠십인으로 22년간 봉사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입원을 거듭하면서 열 번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이 포터 자매님께 남편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날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포터 장로님은 모두 다 이겨 내셨습니다.

그분은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시며 12년 넘게 혈액 투석을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은 낮에 부름을 수행하고 주말 동안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 한 번에 네 시간씩 저녁에 혈액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신권 축복을 받고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마음에 혼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분은 자신이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를 아셨습니다.<sup>26</sup>

장로님은 2010년에 아들 데이비드의 신장을 이식받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건강이 회복되었고, 장로님 부부는 지역 회장단으로서 사랑하는 러시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솔트레이크시티의 한

병원에서 계속되는 감염과 사투를 벌이던 포터 장로님은 마침내 의사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은 부인에게 “이제 의사들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영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더없이 편안해하셨습니다.”<sup>27</sup>

12월 28일,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간 포터 장로님은 몇 시간 후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브루스 포터 장로님은 오래전에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간증은 내 인생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 주었다. … 그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며, 어려울 때마다 나의 구속주이자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영이 주신 순수하고도 강렬한 증거였지.”<sup>28</sup>

“우리의 과제는 … [구주를] 알아가고,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유희를 이겨 내는 것이란다.”<sup>29</sup>

“그분을 신뢰하면서 충실하고 참되게 살자.”<sup>30</sup>

브루스 더글라스 포터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을 이기기 위해 조금씩 더 노력하기를, 그리고 중대한 죄는 간과하지 말고, 작은 실수나 잘못에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내심을 발휘하며, 영적 진보에 박차를  
가하고, 다른 사람을 후하게 돕기를  
소망합니다. 구주께 더욱 온전히 의지할  
때, 이생에서 더 큰 평안을 얻을 것이며  
영원한 운명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지니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1~2쪽.
2. 요한계시록 3:5.
3. 교리와 성약 76:64.
4. 요한계시록 2장, 머리글 참조.
5. 요한계시록 3:12.
6. 요한1서 4:19.
7. 요한복음 16:33.
8. 교리와 성약 64:2.
9.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10. 엘머서 5:13.
11. 이사야 1:18.
12. 마가복음 12:30.
13. C. S. Lewis, *Mere Christianity*(1960), 153.
14. 교리와 성약 20:77.
15. James E. Faust, "The Voice of the Spirit"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Sept. 5, 1993), speeches.byu.edu 참조.
16. 요한복음 14:27.
17. 마가복음 12:31 참조.
18. 마태복음 23:11.
19. 요한복음 15:18~19.
20.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0쪽 참조.
21.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22. 2004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언급된 닐 에이 맥스웰 장로와의 개인적인 대화, "주가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여."(*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4~46쪽 참조)
23. 이노스서 1:27.
24. 마태복음 25:34.
25. 포터 장로가 23년 전 집필한 400쪽에 달하는 저서 *War and the Rise of the State*에서 그의 지적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여전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널리 회람되고 있다.
26. 2017년 3월 6일 수잔 포터로부터 받은 개인 서한.
27. 2017년 3월 6일 수잔 포터로부터 받은 개인 서한.
28. Bruce D. Porter, *King of Kings* (2000), 14, 15.
29. Bruce D. Porter, *King of Kings*, 7.
30. Bruce D. Porter, *King of Kings*, 18.

# 돌아가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 임무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임무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듣는 임무를 마치시기 전에 제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지켜본 결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비전에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목표와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그곳으로 갈 것인지를 알고 있으면 삶에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성취를 얻게 됩니다.

목표와 계획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목표는 목적지 또는 결과이고 계획은 그곳에 가기 위한 경로입니다. 확실히 모르는 어떤 장소로 운전을 해서 가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자매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가는지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 바로 저기만 지나면 나올 거야." 제 아내가 웃고 있겠네요. 목표는 분명했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계획이 좋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결과에





도달할 방법을 생각해 내는 일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어떤 목적지가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그곳에 이를 확실한 방법이 되는 일에 시간과 노력, 관심을 쏟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의 완전한 예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sup>1</sup>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노력하고 배울 수 있는 필멸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영에 육신의 옷을 입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계명대로 살며 영원한 가족을 이루면,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그분의 자녀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여 해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려면, 먼저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 거기에 이어지는 단기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으로 가는 길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경력을 쌓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 골프를 치기 위해서도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과 가족, 교회 평의회와 부름을 위해서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선교사들에게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적인 목표가 훌륭하고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sup>2</sup>

목표 설정 분야 전문가들은 목표는 간결하고 단순할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말합니다. 목표를 하나의 명확한 이미지 또는 한두 개의 강력하고 상징적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목표는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의 모든 것에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짧게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돌아가다**와 **받는다**입니다.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분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고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 때, 우리는 돌아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sup>3</sup>

루시퍼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루시퍼는 모반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완전히 바꾸려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권능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루시퍼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었[으며], ...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악마"가 되어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sup>4</sup>

사탄은 전세에서 내린 선택 때문에 돌아갈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무너뜨리고 자신처럼 비참하게 만들으로써 아버지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뿐입니다.<sup>5</sup> 사탄은 이렇게 사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 세대, 문화와 사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돌아가서 받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 주시는 성신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크고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sup>6</sup>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에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를 통해 부도덕, 폭력, 비속어, 음란하고 저속한 것들을 보기 좋게 포장하여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여 영생을 향한 목표와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는 있으나 인간의 세속적인 철학에 눈이 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그들의 영원한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이들도 여기 포함될 것입니다.<sup>7</sup>

저는 돌아가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에 집중하려면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개인적으로 접견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신다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이는 모르는 여러분만의 생각과 행동, 소망과 꿈, 목표와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서 받기 위한 여정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은밀하고 개인적인 점검의 시간을 위한 지침으로, 엘마서 5장에 나오는 자기 성찰적인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sup>8</sup> 엘마의 질문은 돌아가서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다음과 같은 구주의 권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sup>9</sup>

죄를 사하고, 불완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영적 상처를 치유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키우도록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신앙이 커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sup>10</sup>

앞으로 몇 주 동안, 시간을 내서 삶의 목표와 계획을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부합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회개하고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을 가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시간을 마련하십시오.<sup>11</sup>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을 우리의 목표 및 계획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없다면 영원한 목표는 절대 불가능하며, 영원한 목표를 이루고자 우리가 세운 계획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2000년 1월 1일에 교회에 발표된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sup>12</sup> 이 글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 그분에 대해 증거하고 서명한 이 영감받은 간증에 담긴 말들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공부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는 가족 선언문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염두에 두면서 선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sup>13</sup>

이것은 오직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구주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오는 구체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경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읽는다면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물몬경의 선지자들이 남긴 간증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주에 대한 신앙이 자랄 것이며, 영원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지켜 나가는 과정에서 끝까지 구주께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단점을 드러내며, 방황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회개할 수 있으며,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

즉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함께 사는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sup>14</sup>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겠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삼아야 합니다.<sup>15</sup>

우리가 필멸의 삶에서 세울 수 있는 목표 중,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표는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일 뿐 아니라 그분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며,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이해하려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분들은 전적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분들의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 그분들의 면전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 뒤면 예수께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면 사망을 이기신 구주를 기념하는

부활절 일요일이 됩니다.

이 특별한 두 번의 일요일을 보내며 구주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한 일생의 약속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에 일치시킵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이 마련하신 축복을 받는 소중한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1:39.
2. 제3니파이 13:33.
3. 니파이후서 31:19~20.
4. 모세서 4:4.
5. 니파이후서 2:18 참조.
6. 니파이후서 32:5 참조.
7. 교리와 성약 84:38.
8. 엘마서 5:14.
9. 마태복음 11:28~29.
10. “하나님과 같이 됨”, [lds.org/topics/becoming-like-god](https://www.lds.org/topics/becoming-like-god) 참조.
11. 교리와 성약 4:5.
12.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야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참조.
1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4. 교리와 성약 62, 70편 참조.
15.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친절, 자애, 사랑

우리 삶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애를 베풀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결심합시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충실한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이 함께한 이 전 세계적인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전에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지자 몰몬은 구주의 주요 특성 중 하나이자 그분의 제자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할 특성 한 가지를 기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뎌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sup>1</sup>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신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였던 조셉 비 위스틴 장로님은 정말로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은 해의 왕국에서 삶의 핵심입니다. 친절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친절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한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친절과 자비의 위대한 본보기이십니다.”<sup>2</sup>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느냐는 친절과 자애,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는냐에 달려 있다고 경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리와 성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sup>3</sup>

형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애를 베풀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때로 험난한 이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 여행자들을 위해 하늘의 권능을 더 잘 끌어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7:44~47.
2. 조셉 비 워스런, “친절의 미덕”,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6쪽.
3. 교리와 성약 121:41~42.

#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

특정 장소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업에 봉사하라는 부름에 비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몬**은 회장님, 회장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항상 회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중대한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숙고하는 동안 성신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sup>1</sup>

##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과 봉사하도록 지명되는 것

해마다 수만 명의 젊은 남성들과 여성, 그리고 수많은 장년층 부부들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오는 특별한 서한을 고대합니다. 서한의 내용은 그것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및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한이 도착하면, 참을성 있고 깔끔하게 봉투를 개봉하기도 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황급히 뜯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서한을 읽는 것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이 서한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의 서명이 들어 있으며, 서두에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나옵니다. “장로님(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_\_\_\_\_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두 번째 문장은 특정 장소와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임무 지명을 나타냅니다. 이 두 문장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 곧 아르헨티나, 폴란드, 한국, 미국 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1829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느니라.”<sup>2</sup>

각 선교사 부름과 지명, 또는 추후 받게 되는 재지명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 오는 계시의 결과입니다. 그 일에 대한 부름은 교회의 회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4백여 개의 선교부 중 한 곳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때 사도는 주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의 승인을 얻어 그 일을 행합니다. 선교사 부름과 임무 지명에는 언제나 예언과 계시의 영적인 은사가 임합니다.

교리와 성약 80편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32년에 스티븐 버넷에게 준 선교사 부름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버넷 형제에게 준 이 부름을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과 특정 장소에서 “봉사하도록 지명받는” 것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복음을 선포하라는 개인적이며 신성하게 지명된 책임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80편의 1절은 봉사하라는 부름입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 나의 종 스티븐 버넷에게 이르노니, 너는 가라. 세상에 가서 네 음성을 듣게 되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sup>3</sup>

흥미롭게도, 2절은 버넷 형제에게 그가 앞으로 함께할 선교사 동반자에 대해 알려 줍니다. “그리고 네가 동반자를 원하는 만큼 나는 나의 종 이든 스미스를 네게 주리라.”<sup>4</sup>

3절에는 이 두 선교사가 어디에서 봉사할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북쪽으로는 남쪽으로, 동쪽으로는 서쪽으로 상관이 없나니,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너희가 그릇 갈 수 없음이니라.”<sup>5</sup>

저는 이 성구에서 주님이 “상관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 당신의 종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든 주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의 사업이므로, 그분께서는 권한을 부여한 종들에게 영감과 인도와 지시를 주십니다. 선교사들이 주님의 손 안에서 더욱 합당하고 유능한 도구가 되고자 애쓰고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덕분에라도 그들은 “그릇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봉사하더라도 말입니다. 구주께서 아마도 이 계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일 것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봉사하라는 지명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사업에 봉사하라는 부름에 비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다음 절은 모든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격 요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었고 진실로 믿으며 참된 줄 아는 일들을 선포하라.”<sup>6</sup>

마지막 절은 버넷 형제와 우리 모두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이 참으로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보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 너희 구속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아멘.”<sup>7</sup>

### 오해를 이겨 냄

그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과 봉사하도록 지명되는 것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이 겉보기에도 분명해 보이는 차이점을 왜 연차 대회와 신권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 사업 동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른 임지로 다시 지명받은 많은 선교사들이 염려와 걱정,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낀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그러한 재지명이 필요한 이유에는 신체적인 사고와 부상, 비자 획득의 지연 및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 선교부의 신설 및 인력 충원, 또는 복음 전파와 관련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거나 시시각각 변하는 요구 사항 등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있습니다.<sup>8</sup>

선교사를 다른 임지로 재지명하는 과정은 처음 지명할 때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들은 재지명을 할 때에도 영감과 인도를 구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충실한 남성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마음속 깊이 묻어 둔 감정을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 모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는 것과 봉사하도록 지명받는 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 직후였습니다. 그 선량한 형제님은 저와 악수를 나누면서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0년이 넘도록 제 어깨를 짓눌렀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남미에 있는 임지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지 못해서 미국으로 재지명되었죠. 그 많은 세월 동안 왜 제가 부름받은 곳에서 봉사할 수 없었는지가 늘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사업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지, 어떤 장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서 가슴이 얼마나 후련한지 장로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 선한 형제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세계 곳곳에서 가르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님과 똑같은 감정을 제게 개인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에 속한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봉사하라는 지명에 대해 오해나 미심, 괴로움, 죄책감의 짐을 불필요하게 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북쪽으로나 남쪽으로,

동쪽으로나 서쪽으로 상관이 없나니, 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너희가 그릇 갈 수 없음이니라.”<sup>9</sup> 여러분이 이 성구에 나오는 말을 숙고하여 마음을 열 때, 성신이 임하여 영혼 깊숙이 깨달음과 치유, 그리고 필요한 회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낀 또 한 가지 이유는 수년 동안 선교사들을 지명해 온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십이사도들에게는, 선교사들을 각각의 임지로 지명하는 책임을 이행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는 과정만큼 이 후기에 계속되는 계시의 실재를 더 강력하게 확증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며, 개별적으로 우리 하나하나에게 마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 이 사업에 부름을 받기 위한 준비

이제, 그 일에 부름을 받도록 준비하는 일에서 기본적인지만 자주 간과되는 측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하고 발전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데 서로 연결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권과 성전과 선교 사업**입니다. 부모, 친구,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때로 청년들의 선교사 준비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는 나머지, 성약의 길을 따르는 과정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단계들을 다소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친 영적 성장과 봉사의 굳건한 토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교사 봉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명된 선교 임지로 가기 전에 받는 신권 및 성전 축복 또한 우리가 온 생애 동안 영적으로 강화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청남 여러분, 아론 신권에 따른 여러분의 의무를 수행하고 소신권인 아론 신권을 존중할 때, 여러분은 대신권인 벨기세택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받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sup>10</sup> 대신권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한 가지는 개인적인 합당성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이타적인 신권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주 의미 있는 봉사를 하며 준비하십시오. 합당해지고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합당해지십시오.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멜기세덱 신권과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청년은 거룩한 성전 성약과 의식을 통해 권능으로 무장됩니다.<sup>11</sup> 여러분은 전인 선교사로서 효과적인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으로 가서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성전의 영을 느껴야 합니다. 청년들과 교회의 모든 회원이 성전의 축복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개인적인 합당성입니다.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한다면, 십 대 시절 내내 여러분은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 의식을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강화되고, 평생토록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해지고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합당해지십시오.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많은 청년과 청년녀가 이미 현행의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조상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합당성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며,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지금도 선교사입니다.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sup>12</sup> 친구와 이웃들이 매일같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의 인도를 받아, 친구들에게 회복된 복음 진리를 소개해 줄 만한 생각이나 권유를 나누고, 아니면 문자 메시지나 트윗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열렬히 봉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부름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신권, 성전, 선교 사업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sup>13</sup> 젊은 선교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서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sup>14</sup>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증가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식으로 대표할 책임을 완수하게 됩니다. 신권 및 성전 성약을 지키고 “경건의 능력”을<sup>15</sup> 신권 의식을 통해<sup>16</sup> 받으며 이타적인 봉사를 하고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결합될 때, 청남은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고<sup>17</sup>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습니다.<sup>18</sup>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로서 준비하고 발전하는 주님의 방식, 즉 신권, 성전, 선교 사업,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정과 교회에서 균형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는 합당해지고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합당해지십시오. 합당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약속과 간증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받고 특정 임지나 분야에 지명받을 때, 영적 은사인 계시의 은사가 임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타적인 신권 봉사와 성전 봉사를 하고 부지런히 준비한다면, 주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간증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합당해지는 일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기쁘게 증거합니다. 그분들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133:37 참조.
2. 교리와 성약 4:3.
3. 교리와 성약 80:1.
4. 교리와 성약 80:2.
5. 교리와 성약 80:3.
6. 교리와 성약 80:4; 강조체 추가.
7. 교리와 성약 80:5.
8. 교리와 성약 124:49 참조.
9. 교리와 성약 80:3.
10. 교리와 성약 84:33~44 참조.
11. 교리와 성약 109:22 참조.
12. 교리와 성약 123:12.
13. 에베소서 1:10.
14. 교리와 성약 4:5 참조.
15. 교리와 성약 84:20.
16.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17. 힐라멘서 15:8.
18. 골로새서 2:7.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옉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엠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드러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케리 이스티븐슨



데이비드 지 렌쇼

## 칠십인 회장단



엠 러셀 벨라드



도널드 엠 홀스트롬



리처드 제이 메이날즈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안슨



올리베스 쇼야레스



린 지 로빈슨



게리 더블유 쿡

## 핵심인출관리역원 (일파넷순)


## 감리 감독단

--	--	--

## 교회 본부 직원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 길을 예비하라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비록 임무와 권세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 사업에서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30세 때 프랑스에 있는 한 소매 유통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저를 사장실로 불렀는데, 그분은 저와 종교가 달랐지만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정말 놀라운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교회에서 제사라고 들었네만, 정말 그런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저는 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제 대답에 호기심을 보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열네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거의 매일 세미나리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거의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놀랍게도 사장님은 저를 다시 부르시더니 계열사 중 한 곳의 총책임자 자리를 제의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난 자네의 원칙을 높이 평가하네. 그리고 자네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알고 있어. 자네가 필요하네.”

사장님은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뒤로 수년간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청남 시절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며 얻었던 경험이 없었다면 그 어떤 성공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그만 지부에서 성장했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별로 없어서, 청소년들이 지부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고 제가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요일마다 성찬을 집행하고, 신권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주중에도 아버지나 다른 성인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자주 회원들에게 가정 복음 교육을 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궁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봉사를 하기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에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 대 시절에 했던 그런 봉사는 제가 간증을 쌓고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신권을 통해 헌신적으로 타인의 삶을 축복하는 훌륭한 인정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그분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저는 교회나 사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많은 청남들이 오늘 이 모임을 직접 참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중을 살펴보니, 많은 청남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어른들, 아마도 아버지나 할아버지, 형이나 신권 지도자들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많은 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인 모습은 하나님의 두 신권 사이의 단합과 형제애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보여 줍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비록 임무와 권세 면에서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구원

사업에서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두 신권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로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신권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 있었던 상호 작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침례 요한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또, 요한이 수행한 예비 사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이제까지 없었던 가장 고귀한 사명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sup>1</sup> 주님을 물로 침례하며,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여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sup>2</sup>은 소신권에 성임되었으며, 자신의 사명과 권세의 중요성 및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고자 그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존경과 추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등장하시자 요한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을 겸손히 따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sup>3</sup>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대신권을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의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시며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sup>4</sup>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의 관계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본보기를 고스란히 따른다면 우리 신권 정원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요한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 신권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sup>5</sup>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와 성찬 의식을 집행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고,<sup>6</sup> “교회를 ... 돌아보며”<sup>7</sup>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돕습니다. 금식 헌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 집회소와 다른 현세적인 자원을 돌보는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며,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이든, 감독이든, 청남 고문이든, 그냥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든 여러분은 구주의 모범을 따라서 소신권을 지닌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함께 일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직접 이런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신권에 성임된 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너희 앞서 보내어 약속을 맺게 하며, 길을 예비하게 하며, 너희가 몸소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이행하게 하라.”<sup>8</sup>

여러분이 그들에게 “길을 예비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그들이 지닌 성스러운 권세를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대신권을 받고 행사하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고, 총명한 제사인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감독님은 큰 실의에 빠져 공과실에 우두커니 홀로 있는 알렉스를 보았습니다. 알렉스는 아버지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스의 아버지는 비회원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울먹거리면서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청남을 염려했던 감독님은 즉각 와드 평의회를 소집해 알렉스를 돕도록 했습니다. 감독님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알렉스가 계속 활동 회원으로 남고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알렉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포진시키고 알렉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신권 형제들과 와드의 모든 회원이 알렉스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아 사랑을 보이고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돈독하고 사랑이 많은 대체사 그룹 지도자가 그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독단도 알렉스를 돌보며 그와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감독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렉스에게 계속 임무를 주었어요. 그는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안내를 맡았고, 무덤을 헌납할 때는 제 곁에서 보조를 해주었으며, 몇몇 새로운 회원에게 침례를 주고, 청남을 아론 신권 직분에 성임하고, 청소년 공과를 가르치고,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 토론을 가르치며, 대회가 있을 때 건물 문을 열고, 대회가 끝난 늦은 밤에 건물 문을 닫았습니다. 또한 봉사 활동을 하고, 저와 함께 호스피스에 계신 연로한 회원들을 방문하고, 성찬식에서 말씀하며, 병원이자 자택에 계신 아픈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감독으로서 제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조금씩 변화했으며, 주님을 믿는 신앙도 커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이 소유한 신권의 힘도 믿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알렉스는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와 알고 지낸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었죠. 알렉스처럼 신권 봉사를 통해 잘 준비된 채 선교 임지로 간 청남은 여태껏 없었다고 확신합니다.”<sup>9</sup>

사랑하는 감독 여러분, 감독으로 성임되고 성별될 때 여러분은 아론 신권 및 제사 정원회의 회장으로 봉사하는 성스러운 부름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책임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들 청남에 대한 의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와드에 있는 아론 신권 소유자를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이 쓸모 없다고 느끼는 청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신권 형제들이 도와줄 수 있는 청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자고 권하십시오.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청남들을 그저 즐겁게 해주려고만 하고 방관자 역할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청남의 신앙과 복음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청남들은 구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늘과 연결되고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은 그저 하나의 연령 그룹이나 교육, 또는 활동 프로그램, 혹은 교회 청남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즉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과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영혼 모두를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권능이자 권세입니다. 아론 신권이 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즉 교회의 모든 청남들이 봉사하고, 준비하고, 성취하는 곳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두 신권을 하나가 되게 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를 강화하십시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이 여러분 앞에서 길을 예비하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네가 필요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아론 신권을 지닌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성인 형제들과 함께 봉사할 때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니라. 보라, 너는 참으로 요한과 같이 내 앞에 ...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느니라.]”<sup>10</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10:7.
2. 마가복음 6:20.
3. 요한복음 1:26~27.
4. 마태복음 11:11.
5. 교리와 성약 35:4.
6. 교리와 성약 20:51.
7. 교리와 성약 20:53.
8. 교리와 성약 84:107.
9. 개인 서한.
10. 교리와 성약 35:4.

## 너희 중에 큰 자

하나님께서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이에게 가장 큰 보상을 내리십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이렇게 영감에 찬 전 세계 신권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몬슨 회장님, 회장님의 메시지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회장님이 전하신 가르침과 권고, 지혜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항상 회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장님은 진정 주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교회의 회장이십니다. 회장님을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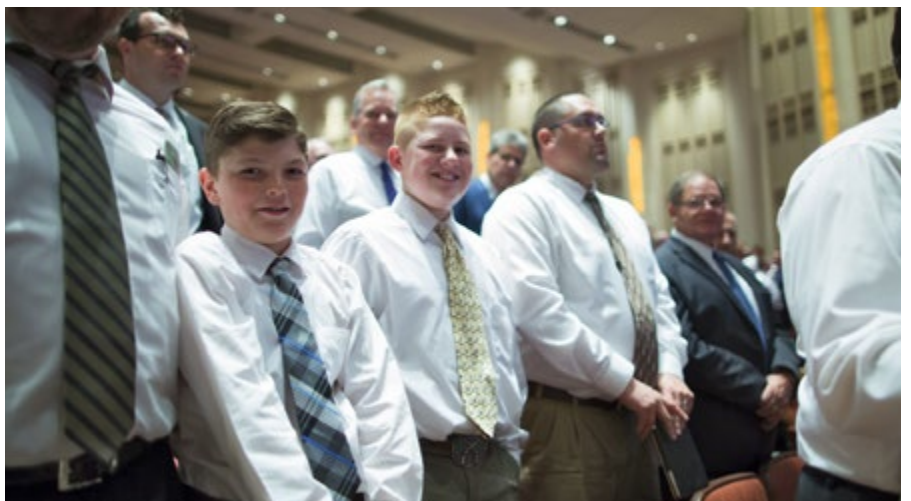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이 헌납되어 주님의 성스러운 집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는 제가 유럽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하던 때라

저와 제 아내는 이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많은 분들과 함께 헌납식 전에 있을 행사의 세세한 부분을 기획하고 조직하느라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헌납식 날짜가 다가올 무렵, 저는 제가 아직 초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역 회장으로서 이 성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해 왔기에, 저는 제가 다소나마 이 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초대장을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내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초대장이 분실된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에 파묻혀 보지 못했거나 광고 우편물에 섞여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옆집에서 기르는 호기심 많은 고양이까지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너무 멀리 살아서 가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나? 나를 깜박 잊었나?

결국,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러한 생각들이 제가 전혀 바란 적이 없는 어떤 곳으로 저를 데려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성전 헌납식이 *저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님을 상기했습니다. 성전 헌납식은 그곳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한 자리도 아니고, 저희의 감정이나 권리를 내세우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헌납한다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건물을 헌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스페인에 있는 교회의 회원들이 기쁨을 누릴 날이었습니다.

물론 초대를 받았더라면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않더라도 제 기쁨이 절대 덜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의 벗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멀리서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프랑크푸르트의 집에 있었지만, 마드리드에 가더라도 한 것처럼 이 위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열렬히 감사드렸습니다.

#### 우れの 아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성임하신 십이사도 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셨던 별칭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우れの 아들*(보아너게)입니다.<sup>1</sup>

보통 그런 별칭을 얻게 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경전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을 살짝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마리아의 마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시기를 청했던 사람들입니다.<sup>2</sup>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기에 분명 다소 세련되지 못한 면은 있었을 테지만, 그들은 자연과 그 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 행동이 앞서는 이들이었습니다.

한번은 구주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고자 준비를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가 특별한 청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별칭에 걸맞은 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여쭙었습니다.

저는 미소 띤 얼굴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구하는 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sup>3</sup>

다시 말해, 하늘 왕국의 영광은 선거 유세와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실세와 친분을 다지는 것” 역시 영원한 영광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れの 아들들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말이 들리자 나머지 열 명의 사도들은 심히

불쾌해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수행할 자들 가운데 다름이 일어나자 분명 곤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권력의 본질을 논하시며, 이것이 권력을 구하거나 장악하려 하는 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세의 직책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하고 믿음 깊은 제자들의 얼굴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구주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sup>4</sup>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도자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지며, 고통받는 자를 들어 올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주께서는 사회 경제적 상황, 인종, 언어, 정치 성향, 국적, 기타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이에게 가장 큰 보상을 내리십니다. 그러한 보상은, 특별리지 않고 봉사하는 이들과 조용히 다른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이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보살피는 이들이 받는 것입니다.<sup>5</sup>

#### 도취되지 마십시오

저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을 모시고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름다운 유타 남부 지역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친절하게도 파우스트 회장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중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총관리 역원을 사랑합니다. 회원들은 형제님을 친절히 대하며, 형제님에 관해 좋은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런 후 파우스트 회장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형제님, 이 사실을 언제나 감사히 여기되,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봉사에 대한 이 중요한 교훈은 교회의 각 정원회에 속한 신권 소유자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2세 회장은 교회의 권세 있는 직책에 부름받은 이들에게 권고하실 때면, 여섯 번째 규칙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여섯 번째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클라크 회장은 “자신을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가 그 여섯 번째 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 규칙은 무엇인가요?”

클라크 회장은 장난기 띤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고는 없습니다.”<sup>6</sup>

교회에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면 다음의 중요한 교훈을 숙지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력이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받고자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 부름은 봉사할 기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라. 이는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님이니라.”<sup>7</sup> 곳곳을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와드 및 지부, 그리고 분명 가정에서 얼마든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구체적인 봉사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회를 “부름”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를 불러 봉사하게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일깨워 주는 단어입니다. 부름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신앙과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돌볼 기회로 여긴다면, 모든 봉사의 행위는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는 물론 종들도 강화하십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되고 충실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숭고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고 겸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름에서 해임될 때 역시 똑같이 정중하고 겸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국에서 더 중요한 부름, 덜 중요한 부름은 없습니다. 크건 작건 우리는 봉사를 통해 우리의 영을 단련하고 하늘 문을 열어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인정하시고 흡족해하신다는 겸허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타인을 보살필 때, 특히 남이 보거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때,<sup>8</sup>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우리 구주의 참되고 선한 제자가 되는 길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 감리에서 청소로

개혁자들의 솔트레이크밸리 도착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던 당시, 마이런 리친스 형제님은 유타 주 헤너퍼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개혁자 이동 경로를 재현하는 행렬이 리친스 형제님이 살던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리친스 회장은 그 행사의 기획에 깊이 관여하셨고, 총관리 역원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과 수차례 모임을 하며 이 일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행사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열리기 직전에 리친스 회장의 스테이크가 재조직되었고, 그분은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다음 일요일, 리친스 형제님이 와드 신권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도자들은 축하 행사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리친스 회장은 다른 분들과 함께 그 일을 자원했고,



작업복을 입고 트럭과 삽을 가져와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행사 당일 아침, 리친스 회장님은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그분은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고 감독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에 그분이 맡은 일은 행렬에 속한 말들을 뒤따라가며 배설물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리친스 회장님은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봉사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구주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sup>9</sup>

#### 제자로서 올바른 행동

우리는 때로 우레의 아들들처럼 중요한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앞장서고 싶어 하며, 주목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즉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서 영향력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에 도취해 버린다면 그 칭찬이 곧 보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맡은 부름입니다. 그 부름이 얼마나 작게 보이든, 또 얼마나 크게 보이든, 우리는 지금 맡은 부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나아가 우리가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벗이자 신권 소유자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sup>10</sup>

#### 명예로운 봉사

다른 이들에게 참되고 겸손한 봉사를 하는 것 대신 교회에서 명예와 명성을 구하는 것은 어서가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선택을 한 것과 같습니다.<sup>11</sup> 지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칭찬은 잃게 되는 큰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인간의 찬사를 구하는 대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우리 구주의 모범을 따릅시다.<sup>12</sup>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합니다. 힘차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롭게 그렇게 합니다. 설사 봉사하는 자신의 행위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대단찮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진절과 연민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축복된 은혜에 힘입어 그간 행한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sup>13</sup>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나 신권으로 다스리는 것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다음 가르침을 숙고하고 이해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제 기도와 축복을 전합니다. 아멘. ■

#### 주

1. 마가복음 3:17 참조.
2. 누가복음 9:54 참조.
3. 마가복음 10:35~40 참조.
4. 마가복음 10:42~44 참조.
5. 마태복음 6:4 참조.
6. John E. Lewis, “Insights: The Gospel and a Sense of Humor, Too,” *Ensign*, June 1974, 24 참조.
7. 교리와 성약 52:40.
8. 마태복음 6:1~2 참조.
9. 마태복음 23:11.
10. 빌립보서 2:3.
11. 창세기 25:33 참조.
12. 요한복음 5:41; 6:38 참조.
13. 마태복음 25:31~46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나와 동행하라”

우리가 받은 신권 성임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며, 그분이 섬기신 방식대로 섬기자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 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목적은 신권 봉사를 하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제 메시지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한 부유한 청년을 만났을 때 구주께서 생각하셨을 목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태복음 19:16) 어쩌면 여러분은 구주를 찾아간 이 청년처럼 여러분의 봉사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했는지 궁금해하며 이 대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어쩌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사랑스런 마음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부유한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구주를 따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발전해 나감에 따라 그런 요청을 받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듣고 그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마태복음 19:20~22 참조) 그보다 저는 여러분이 더 잘하기를 소망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에 여러분이 “흔연히 [여러분의] 길을” 가시리라고 믿습니다.(교리와 성약 84:105)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시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일말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게 자신이 신권 의무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는 여러분이 신권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염려하게 될지 모릅니다. 반면에 만일 여러분이 제게 그 일이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을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강화하시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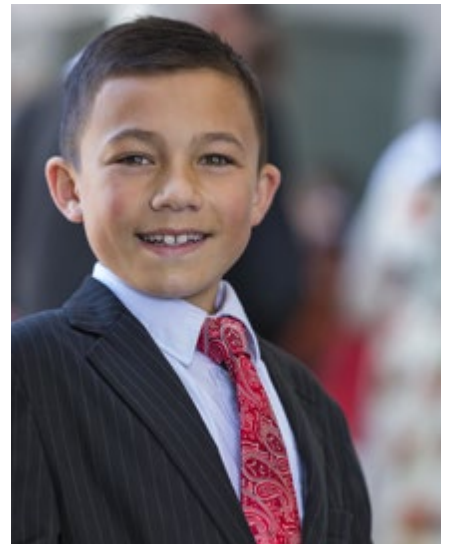
그 점은 부름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재능만으로는 신권 사업을 하거나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어느 정도의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 부름받은

집사이든, 여러분의 사랑이나 보살핌을 원하지도 않는 듯한 어느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도록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젊은 가정 복음 교사이든, 가정을 의로움으로 감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녀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세상은 너무도 혹독하고 적대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시간마저 손살같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여기는 아버지이든 그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약간의 압도감을 느끼신다면 좋은 징조로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신임의 중대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권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심지어 논리 정연한 정의를 암송하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구들 가운데에는 그 안에 담긴 영의 권능을 통해 거룩한 신권에 관한 경외감을 더해 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니는 것이니— 천국의 비밀을 받는 특권을 가지며,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총회 및 장자의 교회와 친교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과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와의 친교와 임재하심을 누리는 것이니라.

...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교리와 성약 107:18~20)

“[신권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니라.

무릇 이것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84:20, 22)

“이 대신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것이요, 이 반차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어온 것이니, 달리 말하면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으며,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의 지식을 따라,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비된 것이라.”(앨마서 13:7)

“이 반차와 부르심을 좇아 성임되는 자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져야 하리니, 이로써 산을 부수며 바다를 가르며 물을 마르게 하며 물을 그 진로에서 돌이키게 하며,

열국의 군대를 물리치며 땅을 가르며 모든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며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통치자들과 세력들을 복종케 하되, 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에 의함이니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14:30~31[경전 안내서 310쪽])

신권 권능에 관하여 이처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에 대해 우리가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자아 성찰을 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하늘이 나를 향해 열린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내가 하는 신권 봉사를 보고 “천사의 성역”이라 말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나는 “경건의 능력”을 내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가져다주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비유적으로라도 산을 부수며, 군대를 물리치고, 누군가의 결박을 끊거나 세상의 힘을 제압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자기 성찰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봉사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그런 성찰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느낌, 곧 주님의 이 경이로운 사업에 더 온전히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신권 봉사를 통해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여호와와 에녹의 대화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극심한 사악함 속에서도 시온을 세운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젊은이일 따름이[며] ... 말이 더딘 자”이기에 자신이 모든 백성에게서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모세서 6:31) 주님께서 어떤 말로 에녹을 격려했는지 귀 기울여 들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또한 신권 소유자로서 다른 이들을 보살피도록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아가라.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행하라. 아무도 너를 찌르지 못하리라. 네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내가 너로 말하게 해 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손 안에 있음이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행할 것임이니라. ...

보라 나의 영이 네 위에 있나니, 그런즉 네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또 산들이 네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들이 그 진로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모세서 6:32, 34)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신권 성임은  
 그분과 동행하자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께서 봉사하시는 방식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시고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축복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께서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렇게 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참된 교리를 비록  
 그것이 인기가 없을지라도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사랑을 담아 증거하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기에(마태복음 11:28) 우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그분께 오라”라고 말합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 행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들이  
 우리의 봉사를 보고 그분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라”라는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하는 신권 봉사는 그  
 본질이 변화됩니다. 그 즉시 더 높고 숭고한  
 봉사가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성취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9년 전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현재의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축복해  
 주셨을 때 그 사실을 매우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분은 축복을 주시면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저는 그 약속을 수없이 의지해 왔으며,  
 제 72년간의 신권 봉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어  
 성찬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실수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 밖으로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이 왔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이 저를 신뢰하심을 느꼈고, 따라서 저도  
 그분의 사업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어렵고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한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제가  
 그것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스스로  
 응답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 여쭙신다면 그분께서  
 알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매님은  
 후에 하나님께 여쭙었고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역시 감독 시절에 저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 음주 운전자가  
 차를 잘못 몰아 은행 유리창을 뚫고 로비  
 안까지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경비원이 자신에게 무기를 겨누는 모습을  
 보자 운전자는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는 물론입니다!”

그 음주 운전자는 최근에 침례받은

저의 와드 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와  
 대화하기 위해 감독실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그가 성약을 깨뜨리고 교회를 난처하게 한  
 행동에 대해 어떤 말을 해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수 있을지를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그를 바라볼 때에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제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듯이  
 너도 그를 보게 하리라.” 그러더니 짧은 순간  
 동안 그의 외양 전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리벙벙한 젊은이가 아니라 환하게 빛나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현은 우리의 대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갖 성임받은 가장  
 어린 집사조차도 아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너무 작거나  
 보잘것없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봉사를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신권 봉사를 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해결책이 주님께서 선호하시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그저 단순히 효과적인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모세서 1:39) 결국 이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결점이  
 있는 필멸의 존재에게 신권 권세를 주시어  
 당신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하는 것이 곧 그분의  
 일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권 봉사를 하며 구주와  
 동행한다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눈을 통해 사람들을 보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외모를 지나서 마음속을 본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6:7 참조) 이것이 바로 구주께서 시몬을 걱정적인 어부가 아니라 베드로, 즉 반석처럼 깨끗하게 당신의 교회를 이끌 미래의 지도자로 보신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5:1~11 참조) 마찬가지로, 주님은 삭개오를 남들의 평처럼 부패한 세리장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올곧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1~9 참조) 여러분이 충분히 오랫동안 구주와 동행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그들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구주와 계속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지니신 또 다른 은사, 즉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는 은사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 면에서 우리는 첫 부활절 주일에 엠마오를 향해 길을 걷던 두 제자와도 같습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신 아침이었지만, 그들은 부활이 있었는지, 또는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으나 부활을 가르치는 경전의 모든 내용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애를 쓸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복음 24:13~34 참조)

우리가 신권 봉사의 길을 걸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 곧 그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보다 앞서 가며,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이 무엇인지, 혹은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에 (누가복음 24:32)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눈이 뜨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에 미치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위대한 일에서 그분을 섬김으로써 그분을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겐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모사이야서 5:13)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닌 신권은 바로 그분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 엄숙한 간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권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권능임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신을 보내시어 우리가 받은 모든 신권 책임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강화해 주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권 열쇠들을 받았으며, 그것들은 계속 전해져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내려와 현재에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몰몬경의 권능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보도록 간청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이 장엄한 연차 대회에서 다시 만난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성전 건립이 예정된 다섯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질 브라질리아, 필리핀 대마닐라 지역, 케냐 나이로비,

미국 아이다호 주 포커텔로, 미국 유타 주 새러토가스프링스.

오늘 아침 저는 몰몬경의 힘과 더불어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숙고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몰몬경에 대해 확고하고 분명한 간증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어려움과 악이 난무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죄와 악이 활개 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몰몬경을 읽지 않으신다면, 매일 몰몬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성신께서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엄숙하게 몰몬경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몰몬경이 참되다면,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몰몬경이 참되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신권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유익과 축복을 전하기 위해







조이 디 존스  
본부 초등회 회장

회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간증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면, 간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간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 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업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보길 간청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의 음성을 듣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으며,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이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고 용감하게 무장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 년 반 전에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를 가르치고 키워” 낼 필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sup>1</sup> “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세대”란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순종적인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지닌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확고히 서 있습니다.<sup>2</sup> 그들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서지 못하고, 여린 마음에 상처를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sup>3</sup> 사방에서 날아오는 “대적의 불화살”<sup>4</sup>로 공격받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강화와 지지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죄와 싸워야 한다는 중대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약 43년 전,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루시퍼에 대항하고자 그리스도의 명분으로 소집되었습니다. …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항쟁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부상을 입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으며 ...

이제 이 전쟁에서 그 누구도 중립일 수 없습니다.”<sup>5</sup>

오늘날 이 전쟁은 그 강도가 더욱 세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최전선에서 적군과 대치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전략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도록 강화하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 가족, 교사, 지도자의 일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부모를 향해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회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 [그리고],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sup>6</sup>

가족마다, 아이마다 서로 다르기에 어떻게 하면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한 가지로 답하기에 매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범 세계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영은 우리가 자녀에게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반드시 이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성한 정체성과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왔는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를 사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로 인식하도록 돕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성한 기대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회개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죄에 저항하다 보면,

죄에 대한 면역력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sup>8</sup>

청년 병사들은 “용기[에] 있어 심히 용맹스러웠거니와 ...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sup>9</sup> 이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미덕들을 무기로 삼아 대적에 맞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상황들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용기가 매일 필요합니다. 용기는 중대한 사건을 겪을 때만이 아니라 결정을 내릴 때나 주변 상황에 대응할 때 더욱더 필요합니다.”<sup>10</sup>

우리 자녀들은 매일 개인적으로 제자로서의 생활 양식을 확립해 가면서 영적인 갑옷을 입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상적인 제자 됨의 개념을 이해하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우리에게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하라고]”<sup>11</sup> 권고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도록 돕는 세 번째 열쇠는 우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와 원리를 경전, 신앙개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 초등회 노래, 찬송가,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안식일 예배를 지속하면 온전함, 내적인 지속성, 강한 도덕적 가치, 즉 영적인 고결성이 생겨납니다. 고결성이 거의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참된 고결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마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침례식과 성전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때 말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결심을 지키는 일은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아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을 준비시킨다.”<sup>12</sup>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 목적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sup>13</sup>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대적은 그것을 알기에 성약을 맺는다는 개념을 혼동시켜 왔습니다.<sup>14</sup> 자녀가 성스러운 성약을 이해하고 맺고 지키도록 돕는 것은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세대를 키워 내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약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 발전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간단한 약속을 지키도록 가르치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거룩한 성약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예 하나를 들겠습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다섯 살인 리지는 오빠 케빈이 자기를 심하게 놀려서 기분이 나쁘진다고 불평했습니다. 케빈은 마지못해 동생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고 어머니는 여동생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케빈은 고민한 후에 하루 동안 동생을 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일과를 마치며 가족 기도를 위해 모였을 때 아버지가 케빈에게 약속을 잘 지켰는지 물었습니다. 케빈이 “아빠, 전 약속을 지켰어요!”라고 답했고 리지도 기쁘게 동의하자 가족들은 케빈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케빈의 어머니는 하루 동안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이틀간 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케빈은 다시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케빈은 약속을 잘 지켰고 리지는 더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킨 이유를 묻자 케빈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지켰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고결성을 얻게 됩니다. 약속을 꾸준히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밴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을 맺는, 침례와 성신의 은사라는 첫 번째 성약을 받아들이고자 영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sup>15</sup> 약속과 성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느부갓네살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sup>16</sup> 명을 따르지 않으면 활활 타는 풀무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경고가 무색하게 그들은 왕명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sup>17</sup>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마디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성약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젊은이는 구조되는 것을 조건으로 순종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킬 작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는 별개로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 용사들처럼, 이 세 청년은 죄에 대한 면역력과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이러한 모범은 우리 가정과 가족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sup>18</sup> 더하면서 자녀가 조금씩 성공을 맛보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지킬 때 삶에서 영을 느낍니다. 조셉 비 워스런 장로님은 “고결한 성품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성신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19</sup>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sup>20</sup> 고결성이라는 샘물에서, 강인하며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세대가 탄생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를 꼭 끌어안고, 그들에게 일상에서 여러분의 독실한 행동을, 약속과 성약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어린이는 모방의 귀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이십시오.”<sup>21</sup> 우리는 참으로 약속에 약속을 더하고 성약에 성약을 더하여,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춘 세대를 주님께 이끌고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최윤환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구주의 방법대로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이 죄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고 용감하게 무장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니파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 주시겠습니까?”<sup>22</sup> 구주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간증합니다.<sup>23</sup>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필멸의 인간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합니다.<sup>24</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러셀 엠 벨슨,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7쪽.
2. 모사이야서 5:15.
3. 아람서 2:9 참조.
4. 니파이전서 15:24; 또한 힐라맨서 5:12 참조.
5. 브루스 알 맥콩키, “믿음의 씨움에 용감하라”,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38쪽.
6. 교리와 성약 68:25, 28.
7. 교리와 성약 93:40.
8. 야고보서 4:7; 또한 엘마서 19:33 참조.
9. 엘마서 53:20~21.
10. 토마스 에스 몬슨, “강하고 담대하라”,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67쪽.
11. 헨리 비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1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96쪽.
13. 제프리 알 홀랜드, “성약을 지키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리아호나*, 2012년 1월호, 48쪽.
14. 니파이전서 13:26~28 참조.
15. 모사이야서 18:10 참조.
16. 다니엘 3장 참조.
17. 다니엘 3:17~18.
18. 니파이후서 28:30.
19. 조셉 비 워스런, “고결한 성품”, *성도의 빛*, 1995년 11월호, 44쪽.
20. 교리와 성약 121:45.
21. 익명.
22. 니파이후서 4:31.
23. 제3니파이 27:14~15 참조.
24. 요한복음 15:13 참조.

# 옆이 아닌 위를 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며 고개를 들고 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볼 때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 목적은 “다른 사람[이] ...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sup>1</sup> 이것은 여러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봄으로써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여섯 살 때 제 부모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열네 살이었던 제 동생 최경환 형제가 제 외삼촌인 이영직 형제를 통해 먼저 교회로 개종했고, 그런 뒤 가족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열 명이 나 되는 저희 가족은 모두 각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에 참된 진리를 찾게 되어 다들 행복해했고, 침례를 받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은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바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리를 배우고 나누는 일로 가장 신이 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서 두 시간 동안 경전을 공부하셨습니다. 또 퇴근하신 뒤에는 거의 매일 선교사들과 함께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침례받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는 저희 가족과

친지 중 스물세 명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듬해에는 아버지의 회원 선교 사업을 통해 130명이 침례를 받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역사도 중요하게 여기셨기에 8대조 조상에까지 이르는 가족 역사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후로, 열네 살이던 제 동생을 통해 시작된 저희 가족의 개종은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노력을 들인 끝에 저희 가계도는 이제 직계 32대에 이르며, 이제는 그 가계도에서 이어지는 방계 가족들에 대해서도 성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조상과 후손들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저는 놀라움과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오하이오 콜럼버스 성전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시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성전에 앉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생애에 대해 생각하다가 저는 제 딸, 제 딸아이의 딸, 제 손녀의 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현듯 제 앞의 세 세대와 제 뒤의 세 세대를 아우르는 일곱 세대의 정중앙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집에서 제가 조상에게서 받은 모든 유산을 제 이후에 올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sup>2</sup>

우리는 모두 영원한 가족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중요한 변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핑클리 회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세대를 이어 주는 연결 고리에서 여러분이 약한 고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sup>3</sup>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충실하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 안에서 강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을까요?

침례를 받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몇몇 교회 회원들이 서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들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헐뜯는 것을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는 복음이 회복되었고 그것은 완벽하지만, 회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그것은 아버지와 저도 마찬가지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혼들림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강화하라.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거라!”

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아버지의 현명한 조언은 그 이후로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 신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다음 가르침을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sup>4</sup>

제가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를 감리할 때, 그곳은 일 년 내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비가 오더라도 바깥에서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입을 열어 그 비를 마시십시오! 그렇게 위를 볼 때, 여러분은 힘을 받고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입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선교 사업이 끝나더라도 어려움이 닥칠 때면 위를 바라보라는 상징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디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선교부에서 봉사할 당시, 하루는 피아니스트인 제 딸 아들 선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여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무척 행복했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동안 제 아내는 저희가 아들의 연주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희가 선교부에서 봉사하기 전이나 봉사를 마친 후에 이런 축복을 주셨다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아쉽습니다.”

아내는 기도를 마치기 무섭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갈 수 없으므로 네 아들이 이 특권을 받은 것이다. 네 아들이 받은 축복과 바꾸고 싶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부모가 주님의 왕국에 충실히 봉사하며 헌신할





때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실적인 시각으로 주변만을 살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불편함, 잃은 것, 짐, 또는 외로움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를 바라본다면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sup>5</sup> 그러므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어떤 일로든 참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 앞서 오신 조상들과 여러분 뒤에 올 세대들에게 강력한 축복이 될 단단한 연결 고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희 가족 중 많은 이들이 성약의 길에서 충실히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빈자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활동이 되거나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떠나기로 하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회 회원 및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들과 다시 ...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는 결정은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sup>6</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쉽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7</sup>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위를 바라보기에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팔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앞 세대들과 우리의 뒤 세대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제가 스테이크 회장 부름에서 해임되었을 때, 제 아들들은 이제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삼 주 후에 저는 칠십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이들이 실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막내아들은 겸손하게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이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입니까? 저는 이 필멸의 삶을 생각하며 옆을 먼저 보았기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제 아들은 영원과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옆이 아닌 위를 보았기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복음을 반대할 때, 여러분이 아주 작은 교회 단위 조직의 회원일 때, 배우자가 회원이 아닐 때, 결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자일 때, 자녀가 길을 벗어났을 때, 편부나 편모로 지내게 될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등 이렇게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힘과 균형과 치유를 받기 위해 위를 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 [여러분에게] 선을 ... 이[를] 것입니다.”<sup>8</sup>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전하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며 구속주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할 때, 그리고 매주 진실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그분을 올려다볼 힘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의 회원이고 세계 영원한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며 고개를 들고 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볼 때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힐클리 (2016), 82쪽.
3. Gordon B. Hinckley, “Keep the Chain Unbroken”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30, 1999), 3, speeches.byu.edu; 강조체 추가.
4. 교리와 성약 6:36.
5. 교리와 성약 130:21.
6. 엠 러셀 벨라드,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91쪽.
7.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6쪽.
8. 교리와 성약 100:15.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성령 인도하시어

성신의 신성한 임무는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영감을 주고, 간증하며, 가르치고, 알려 주는 것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뵙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처럼 저도 주님께서 이 사업을 서두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회장님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sup>1</sup> 우리는 이 주말 동안 풍성한 영을 느꼈습니다.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있던 집에서 보고 있던, 아니면 지구 반대편의 집회소에 모여 있던,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느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은 대회에서 배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확인해 줍니다.

잘 알려진 다음의 찬송가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인도하시어  
참된 것 가르치고  
그리스도 간증해  
우리 맘 비추소서<sup>2</sup>

우리는 후기의 계시를 통해 신회가 뚜렷이 구별되는 세 분의 개별적인 존재, 즉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sup>3</sup>

오늘 저는 우리 삶에 성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필멸의 생을 살며 어려움과 시련과 혼란을 겪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문과 낙담, 유혹과 약점으로 씨름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적 힘과 신성한 인도를 주시고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신을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신은 우리를 주님과 연결해 줍니다. 성신의 신성한 임무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영감을 주고, 간증하며, 가르치고, 알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sup>4</sup> 저는 이 약속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지면 매일의 삶을 영원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고난과 심적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안겨 줍니다. 또, 위안과 용기를 주고 복음 진리를 펼쳐 보여 주며,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축복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면으로 이런 축복을 잊고 단념해 버립니다.

매주 성스러운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그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이 성스러운 성약을 지키면, 우리는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sup>5</sup>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영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성신은 “매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십니다.<sup>6</sup> 주께서 권고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sup>7</sup>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sup>8</sup>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기도하고, 성전에 참석하며,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이라는 신앙개조 제13조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기꺼이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sup>9</sup> 저는 뉴저지 스코치플레이нс에서 봉사하던 젊은 선교사 시절에 이 약속에 대한 이해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7월의 어느

아침에 동반자와 저는 템플스퀘어에서 소개해 준 사람을 방문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저와 동반자는 엘우드 샤피가 사는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샤피 부인은 정중히 저희를 거절했습니다.

부인이 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에 발을 끼워 넣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바로 열여섯 살인 샤피 부인의 딸 마티였습니다. 마티는 바로 전날에 인도를 구하며 열심히 기도를 한 참이었습니다. 마티는 우리를 만났고, 머지않아 그녀의 어머니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마티가 침례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티의 가족 여럿을 포함해 136명이 침례를 받고 복음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제가 영에 귀를 기울이고 황급히 문 사이에 발을 끼워 넣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티와 사랑하는 그녀의 가족 몇 분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는 영이 함께할 때 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은 대체로 느낌으로 소통하십니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속삭여 주는” 말씀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께서 니파이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며 니파이인들이 보인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무리가 듣고 증거하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에 깨닫더라.”<sup>10</sup> 니파이인들은 그분이 하신 기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고요하고 작습니다.

구약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음성”이 우레로 내려와 그들이 바친 희생에 불을 붙여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음성도, 불도 없었습니다.<sup>11</sup>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sup>12</sup>

이 음성을 아십니까?

몬슨 회장님은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영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sup>13</sup> 영은 우리가 “느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느낌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도록, 무언가를 말하도록,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대답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둔감해져서 건성으로나 안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을 감지하는 능력이 퇴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니파이는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sup>14</sup>

지난 6월에 저는 어떤 임무를 받고 남미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를 방문하는 10일간의 일정을 바쁘게 소화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의 도시 포르토비에호와 만타에는 대지진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많은 주택과 마을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두 도시에 거주하는 회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손상되어, 그곳에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희를 말렸지만, 영의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두 도시를 모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 대한 공지가 늦었던지라, 저는 급하게 조직된 이 모임에 지역 신권 지도자 몇 분만이 참석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 스테이크 센터에 도착해 보니, 예배당은 무대 뒤쪽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지역의

충실한 회원이자 굳건히 교회에 남아 있는 개척자들, 곧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함께 예배하고 삶 속에서 영을 느끼도록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앞줄에는 지진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잃은 회원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참석하신 모든 분께 사도의 축복을 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앞에 서 있었지만, 제 손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았고,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 백성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sup>15</sup> 저희는 에콰도르에 있었고,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는 중이었으며, 이들은 그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첫 번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니파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느니라.]”<sup>16</sup>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속삭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을 합리화하며, 자신이 영적인 느낌을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느낌이 그저 자신의 생각일 뿐인 건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여 의구심이 또다른 의구심을 낳게 되면, 우리가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는 영을 쫓아 보내고 신성한 권고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선지자 조셉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면, 열에 아홉은 잘 해낼 것입니다.”<sup>17</sup>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신에 따라 행했으니 화려한 성공과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하는 사업에 몸담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시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때, 선교사 몇 명과 함께 브롱크스의 어느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가족이 와서 저희 근처에 앉았습니다. 황금 구도자 같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그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급히 식당을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랑스러운 가족이 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곧바로 장로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일어나 그 가족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는 항상 첫 번째로 받은 느낌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느낌이 바로 성신입니다!”

첫 번째 속삭임은 하늘에서 오는 순수한 영감입니다. 그 느낌이 우리에게 확인해

주거나 간증해 줄 때, 우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결코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신은 많은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특히 가족과 친구에게 다가가는 느낌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속삭이며 파고드는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sup>18</sup>은 복음을 가르치고,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지지와 관심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 중 하나를 구조할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를 최초 대응 기관이나 최초 대처 요원이라 불리는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극과 재난, 참사가 일어나면 최초 대처 요원은 소방관과 경찰관, 구급대원입니다. 이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합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이분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보다는 덜 눈에 띄지만, 이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 타인을 도움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아십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알려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응답하여 움직이도록 요청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청에 응답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거듭 요청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느새 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주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sup>19</sup>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전달하는 영적인 최초 대처 요원이 될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계시의 영 안에서 성장하여 영적인 통찰력과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을 신뢰하라.”<sup>20</sup>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라고 하신 주님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셨으면 합니다.<sup>21</sup> 그분은 성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속삭임에 따라 속히 행하고 그 느낌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인식하며 영과 가까이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신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주

1.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찬송가, 29장.
2. “성령 인도하시어,” 찬송가, 73장.
3. 교리와 성약 130:22.
4. 교리와 성약 11:13.
5. 교리와 성약 20:77.
6. 엘마서 58:40.
7. 교리와 성약 25:10.
8. 힐라맨서 4:24.
9. 교리와 성약 8:2.
10. 제3니파이 19:33.
11. 열왕기상 18:17~29 참조.
12. 열왕기상 19:11~12.
13.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나라,” 성도의 빛, 1985년 7월호 75쪽.
14. 니파이전서 17:45.
15. 제3니파이 17:21.
16. 니파이전서 4:6~7.
17. Truman G. Madsen, *Joseph Smith the Prophet* (1989), 103 참조.
18. 교리와 성약 85:6.
19. 토마스 에스 몬슨, “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2쪽.
20. 교리와 성약 11:12.
21. 교리와 성약 78:18.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매일의 행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일에 진정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구주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경전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분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구주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잔치를 잘 치러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회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가 동이 난 것입니다. 걱정이 된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돌항아리는 마실 물을 담는 용도가 아니라 모세 율법의 의식을 위해 몸을 씻는 데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갔다 주라 하시매 갔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잔치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그토록 늦게 나온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sup>1</sup>

대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기 때문에, 즉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나, 요한의 기록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사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양육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sup>2</sup>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해 지상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적으로 탄생하신 것을 알았고, 그분이 죄가 없으며,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나니, 이는 어느 누구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sup>3</sup>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혼인 잔치에 포도주를 내놓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권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건이나 단서는 물론, 어떤 제한도 두지 않은 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로 불리며 “[여인들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어] 놀라 …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이 가져온 소식이 좋은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마리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인태하여 …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단언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세한 내용을 묻지 않았습다. 자신의 인생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틀림없이 많은 의문이 들었을 테지만, 그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노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요구하시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거의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sup>4</sup>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sup>5</sup>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매일의 행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일에 진정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진정한 의도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들은 지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들을 충분히 해 나갈 영적인 역량을 키워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단순한 믿음의 습관들은 기적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미약한 모습에서 역동적인 힘을 지닌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리하여 우리는 삶의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우리는 굳건해진 영혼으로 상황에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게 하십니다.<sup>6</sup>

몇 년 전에 저는 한 젊은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은 매주 많은 시간을 들여 와드의 회원들과 상담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주목할 만한 점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와드의

회원들이 겪는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교회 회원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일, 가정, 교회에서의 책임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을 찾으며 외설물을 피하는 것, 교회 정책이나 교회 역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등의 문제 말입니다.

감독님이 와드 회원들에게 매우 자주 권고했던 내용은 우리가 몬슨 회장님께 권고받았듯 물문경을 읽고, 십일조를 내고,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등 단순한 신앙을 행사하는 일부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은 달라요, 감독님. 그런 일들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감독님이 저를 이해하거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 중 과연 어떤 일이 제가 지금 겪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젊은 감독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살아오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작고 단순한 일”<sup>7</sup>에, 사소해 보이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신앙과 힘을 축복받게 됩니다. 그런 작은 행위들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신앙과 힘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며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과 우리가 겪는 크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앙에 따른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확립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맞서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 말입니다. 사소한 신앙의 행위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특정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러한 행위는 우리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어린 여종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관해 말하자, 나아만은 하인과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스라엘에 전할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에게 주님의 명이라며 전한 말은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용사는 그 간단한 처방을 아주 비논리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하며 체통을 깎는 일로 여겨졌던 모양인지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제안에 화를 냈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엘리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나아만은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나아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엘리사가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까닭을 알지 못하더라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본 후, 회의감은 들었으나 그 지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병이 기적으로 나았습니다.<sup>8</sup>

순종에 대한 보상은 빨리 오기도 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야 오기도 합니다. 값진

진주에는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계명을 지켰던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어찌하여 희생을 드리느냐고 묻자 아담은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답했습니다. 천사는 아담이 바친 제물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여러 날”을 주님께 헌신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뒤에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sup>9</sup>

우리가 흔들림 없이 복음에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시간표를 미리 보여 주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여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신앙과 소망,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을성 있게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쉬운 응답이나 빠른 해결책이 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십니다. 아무리 시험을 견디기가 힘들고 응답이 늦게 오더라도, “신앙이 시련”을 겪는 동안 곳곳이 서서 견딘다면 매사가 형통할 것입니다.<sup>10</sup> 저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주님이 완벽하게 선택하신 시기에 대한 사려 깊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sup>11</sup>

신앙의 시련이 올 때면 늘 단순하고도 일상적인 신앙의 행위를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간절히 바라던 신성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기와 이유와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한 후에야 비로소 “신앙과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sup>12</sup> 진정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조건 없이,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sup>13</sup>

우리는 모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매일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합니다.<sup>14</sup> 그리고 충실하게 행하는 일상의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의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sup>15</sup>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바로 “길”이시기에 그분이 길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sup>16</sup> 우리는 우리만의 물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워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우리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방도로 이를 수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2:5~9; 또한 요한복음 2:10 참조.
2. 앨마서 7:10.
3.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3:25.(경전 안내서 부록에 있음)
4.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The Messianic Message of the Book of Mormon* (1997), 18 참조.
5. 누가복음 1:26~38 참조.
6. 로마서 8:28; 교리와 성약 90:24.
7. 앨마서 37:6.
8. 열왕기하 5:1~14 참조.
9. 모세서 5:5~11 참조.
10. 이터서 12:6 참조.
11. 보이드 케이 패커, “선택의지와 통제,”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02~105쪽; Robert C. Oaks, “Believe All Things,” *Ensign*, July 2005, 30~33 참조.
12. 앨마서 32:43.
13. Jeffrey R. Holland, *Christ and the New Covenant*, 18 참조.
14. 여호수아 24:15.
15. 잠언 3:6 참조.
16. 요한복음 14:6.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신화와 구원의 계획

우리는 신화를 알고,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지상 생활의 여정에서 최고의 지침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 1.

신앙개조 제1조에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우리는 여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을 믿지만,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교리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첫번째 시현에서 서로 다른 두 인격체, 즉 두 분의 존재를 보았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신화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믿음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신비한 존재라는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와 그분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알며, 그 진리가 우리 교리의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한 열쇠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증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업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지상 생활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생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승영에 관한 모든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은 휘장을 통과하고 나서도 한참 후일 것입니다.”<sup>1</sup> 우리가 전세, 즉 영의 세계에서 습득한 지식은 우리의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그리고 그분과 그분 자녀들의 관계를 가르치고자 애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이사야 40:18, 21)

우리는 신화의 세 분이 서로 각각 분리된 별개의 존재임을 압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130:22)

선지자 조셉은 세 분이 수행하시는 각각의 역할에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화에서 누리시는 최고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누구든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이라면 하늘에는 권능의 열쇠를 지니신 세분의 인격체가 계시며, 한 분이 모두를 감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

이 인격체들은 ... 창조주이신 첫 번째 하나님, 구속주이신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증인 혹은 증언자이신 세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머리 혹은 회장으로서 감리하시고, 예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리고 성신은 증거하는 자 혹은 증인으로서 서 계[십니다.]”<sup>2</sup>

## 2. 계획

우리는 구원의 계획에 관한 계시를 통해 신회의 구성원들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경전에 “구원의 계획”, “위대한 행복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라 지칭되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엘마서 42:5, 8, 11)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전세에서 영생을 간절히 바라며 할 수 있는 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육신을 입고 겪는

필멸의 경험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창조를 이끄셨으며, 우리를 지상에 보내시기 전에 우리가 가진 전세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지상 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경험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상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첫 부모의 타락에 따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져 영적인 죽음을 겪고 죄로 더러워지며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러한 모든 장벽은 예상된 것이었기에 이를 극복할 방법도 제공되었습니다.

## 3. 신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목적을 알아보았으므로, 이제 그 계획에서 신회의 세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신회의 구성원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관련하여 거의 즉흥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혹은 친교<sup>3</sup>]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린도후서 13:13)

성경의 이 구절은 신회를 나타내며, 모든 것을 규정짓고 동기를 유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구원 사명, 성신의 친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은 비교적 적지만,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 그분이 누리시는 최고의 지위, 그분과 우리의 관계, 구원의 계획과 창조 및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감리하시는 그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전능하신 엘로힘이며, 절대자요 우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이다.”<sup>4</sup>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십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옹호하셨던 첫 번째

기본적인 진리는 이것이었으니, 곧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의 주재자시라는 것입니다.”<sup>5</sup>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대체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과 가르침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언급했듯, 예수님의 성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필멸의 인간들에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참된 본질을 보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 만들”도록 알리는 것이었습니다.<sup>6</sup>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라는(히브리서 1:3) 사도의 증언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요한복음 14:9) 가르치신 것에 대한 보충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의 창시자시며, 그분 자녀들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한 이 계획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성취됩니다.

### 아들

필멸의 인간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신화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909년에 제일회장단은 중대한 교리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아들 중에서 장자이며, 영으로는 처음 난 자요, 육신으로는 독생자”라고 선언했습니다.<sup>7</sup> 모든 이 중 가장 위대하신 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아버지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행사하여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고(모세서 1:33 참조),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음에서 구하셨으며, 또한 속죄를 통해 그들을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숭고한 희생”을 참으로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칭합니다.<sup>8</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들을 소개하시는 특별하고 성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가복음 9:7; 누가복음 9:35; 또한 제3니파이 11:7;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그러므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며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sup>9</sup> 그렇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온 땅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1:14) 따라서 예수님은 종종 물문경의 선지자들과 후기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말씀하시며, 이는 100년 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영감 어린 교리를 해설할 때 설명한 칭호입니다.<sup>10</sup>

### 성신

신화의 세 번째 구성원은 성신으로, 성령, 주님의 영, 보혜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분은 신화의 일원이며 개인적인 계시를 주는 대리자입니다. 영의 인격체인 그분은(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 경전 구절에는 그분의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요한복음 15:26; 제3니파이 28:11; 교리와 성약 42:17 참조) 구주께서는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26; 16:13 참조) 그러므로 성신은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도록 돕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를 인도하며, 지상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돕습니다.<sup>11</sup> 그분은 또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즉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수단이 됩니다.(니파이후서 31:17; 제3니파이 27:20; 모로나이서 6:4 참조)

### 4.

그렇다면 신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해 제시된 이 하늘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도전에 직면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신회,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 인생의 목적,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지상 생활의 여정에서 최고의 지침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목적을 압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도 압니다.(교리와 성약 93:19 참조)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오는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에베소서 4:13) 묘사한 것을 얻으려면 지식 습득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여 이를 통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도록 가르치는 세상의 제도와는 달리,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인 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 없이는 모든 이들이 잃어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분이나 그분의 사명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배워야 하며,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 의식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에 대해 제 모든 영혼과 겸손한 마음을 담아 간증합니다. 그것은 이곳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완벽한 길입니다.”<sup>12</sup>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는 성신이 있음을 간증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268쪽.
2. 가르침: 조셉 스미스, 42쪽.
3. 이것은 흥정여 성경의 번역자가 communion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의미였다.(The Oxford Universal Dictionary, 3rd ed., revised 1955, 352 참조)

4. Bruce R. McConkie, *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1985), 51.
5. David O. McKay, Conference Report, Oct. 1935, 100.
6.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쪽.
7. First Presidency, “The Origin of Man,” *Ensign*, Feb. 2002, 26, 29.
8. 에를 들어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40쪽;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참조.
9. Joseph Fielding Smith, *Doctrines of Salvation*, comp. Bruce R. McConkie (1954), 1:27 참조.
10. First Presidency and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The Father and the Son,” *Ensign*, Apr. 2002, 13-18 참조.
11. 로버트 디 헤일즈, “성신”,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05~107쪽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행복으로 향하는 완벽한 길”,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0~81쪽.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겸손, 희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속된 이 세계적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함께 모이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특히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이 대회에 함께해 주셔서 기쁩니다. 몬슨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권고와 지혜가 담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항상 회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의 일인데, 스테이크 모임이 끝난 뒤 저와 친한 한 자매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곤히 잠든 사람이 네댓은 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는 잠은 건강에 가장 이로운 잠 중의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이 대화를 옆에서 들은 저의 훌륭한 아내

해리엇은 나중에 그것이 제가 한 가장 친절한 대답 중 하나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 대각성 운동

몇백 년 전에 북미에서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농촌 지역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조셉 스미스는 이런 종교적 각성에 동참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셉이 개인적인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간절한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설교가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극적인 설교 방식을 사용했으며, 죄인을 기다리는 불타는 지옥의 공포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sup>1</sup>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악몽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과 방식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교회로 들어오게 하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

역사적으로, 종종 두려움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두려움의 힘을 잘 알기에 그것을 자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광고는 특정 회사의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사지 않거나 최신 비디오 게임, 혹은 휴대폰을 구매할 기회를 놓치면 비참한 삶을 살다 외롭고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피식 웃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교묘하게 조종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얻어 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두려움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두려움의 문제점

먼저, 두려움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건강한 식사를 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거나, 저축을 하거나, 심지어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누구나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일종의 두려움에서 기인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과 품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드물며, 절대로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옳은 것을 말하고 행할 수는 있어도 옳은 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무력감, 분개심, 심지어 분노를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감정은 불신, 적대심, 급기야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지도력에 관한 이런 잘못된 접근법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집이나 교회 부름, 직장, 또는 타인과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에서 교회 회원들이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종종 사람들은 남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멋대로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남들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말로, 감정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징벌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sup>2</sup>

목적에 따라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으며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통제하고 조종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sup>3</sup>

### 더 나은 방법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도하시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앙갚음을 하지 않으십니다.<sup>4</sup> 하나님의 목적, 즉 그분의 일과 영광은 우리를 인도하고 승영을 가져다주시며 당신이 누리는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sup>5</sup>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sup>6</sup>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sup>7</sup>

혹여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에 반하는 행동을 용납하거나 눈감아 주신다는 뜻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단순히 행동만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변화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손을 뻗어 쇠막대를 굳게 잡고, 두려움에 맞서며, 험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용감하게 앞으로, 그리고 위를 향해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바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신을 따르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십니까?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시기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득과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십니다.<sup>8</sup>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더 강해지길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시며,  
우리의 위대하고 소중한 희망이십니다.  
그분은 신앙으로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십니다.

또,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우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방법입니다!<sup>9</sup>

### 세상의 악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세상의 악에 집중하고, 심지어 세상의 악을 과장하여 남을 조종하길 바랍니다.

분명, 지금까지 세상은 늘 불완전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무자비함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날의 타락과 사악함은 전례가 없을 정도이며, 심히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도 저는 세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유례 없는 번영과 문명, 편익이 주어진 시대에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위험을 조망하고, 그것을 어떻게 피하거나 대처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생각할 때, 저는 모든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열중하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sup>10</sup>

그분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셀 수 없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찾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sup>11</sup>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sup>12</sup> 일깨워 주십니다.

### 주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입니다. 이 명칭에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합시다. 옹당한 자신감으로, 또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되 타 종교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낮추어 보지는 맙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표적과 인자가 올 징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sup>13</sup>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무지하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의 짐을 지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도전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무한한 위대함과 선하심과 절대적인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잡아 신앙, 용기, 결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sup>14</sup>

우리는 제자의 길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여호와 그가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sup>15</sup>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sup>16</sup>

두려움이 닥칠 때 용기를 얻고 신앙을 발휘하며 다음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sup>17</sup>

우리는 위태롭고 혼란스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18</sup>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여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성스러운 성약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올바르게 걸으면 …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sup>19</sup>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겸손, 희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당연한 자신감으로 살아갑시다.

###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여러분, 만일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살고 있거나 우리의 말, 태도, 행동이 타인에게 두려움을 유발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을 통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제 온 영혼의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sup>20</sup>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타인을 해지거나 강요하거나 괴롭히거나 억압하려는 유흘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겸손과 위엄, 강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우리의 인도자이자 희망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및 선하심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부름에서,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웁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뀌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성한 계획, 그분의 복음과 계명을 알고, 신뢰하며, 믿게 될 것입니다.<sup>21</sup>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보살피고, 그분의 사업에 좀 더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날 것이고,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안에서 기쁘고 자신 있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활기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sup>22</sup> 형제 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sup>23</sup> “그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sup>24</sup> 이 기도와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이런 설교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조지 화이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다.
2. 교리와 성약 121:37.
3. 갈라디아서 5:22~23.
4. 구주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고자 하셨으나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하여

들어가지 못하신 일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두 명은 마음이 몹시 상해 주님께 이렇게 여쭙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누가복음 9:51~56, New King James Version [1982] 참조)

5. 사도행전 1:39 참조; 또한 사도행전 3:19 참조.
6. 출애굽기 34:6.
7. 에베소서 3:19 참조.
8. 교리와 성약 121:41 참조. 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멸의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신다면, 모든 덕을 갖춘 완전한 존재이신 그분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실 것이다.
9. 전세의 천국 회의는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일례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회의에서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표하셨다. 그 계획의 핵심 요소로 선택의지와 순종,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무시되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다. 무시되는 모두가 순종할 것이며 아무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압과 무력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계획을 용납하실 리가 없었다. 그분은 자녀들의 선택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려면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구주를 보내시어 그의 영원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많은 이가 무시되는 포임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시고서 강압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따르게 하셨는가?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는 자녀들에게 겁을 주고 위협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반을 막으실 수도 있었다. 반대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강요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다.
10. 디모데후서 1:7.
11. 예레미야 1:9; 예레미야 1:9; 이사야 41:13; 누가복음 12:32; 요한복음 16:33; 베드로전서 3:14; 교리와 성약 6:36; 50:41; 61:36; 78:18 참조.
12. 누가복음 12:32.
13. 교리와 성약 68:11.
14. 모세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 권고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애굽기 14:13)
15. 신명기 31:6.
16. 출애굽기 14:14 참조.
17. 이사야 54:17.
18. 요한복음 16:33.
19. 교리와 성약 90:24; 또한 고린도후서 2:14; 교리와 성약 105:14 참조.
20. 요한1서 4:18.
21. 구주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요한복음 3:17) 실제로, “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다.(니파이후서 26:24)
22. 요한1서 4:18; 또한 요한1서 4:16 참조.
23. 마가복음 5:36.
24. 요한복음 15:10.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 경고의 음성

선지자들이 경고해야 하는 의무를 특히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지자만이 이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약 2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주전 597년에 스물다섯 살이던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큰 무리의 포로들 속에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여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sup>1</sup> 아론 제사장의 혈통이었던 에스겔은 나이 서른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sup>2</sup>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며 파수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sup>3</sup>

반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sup>4</sup>

그런 후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직접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이다.”<sup>5</sup> 그 경고란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sup>6</sup>

흥미롭게도 이 경고는 의로운 이에게도 적용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sup>7</sup>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sup>8</sup>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께서는 전혀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sup>9</sup>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따라서 에스겔을 비롯해 그 전이나 그 후의 모든 선지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의 적인 사탄에게서 돌이키고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 왔습니다.<sup>10</sup>

선지자들이 경고해야 하는 의무를 특히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선지자만이 이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sup>11</sup>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그 실천 강령인 계명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느껴야 합니다. 그 지식으로 이곳과





영원 속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경고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그 답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로 시작하는 비유에서<sup>12</sup>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두 가지 큰 계명, 즉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과<sup>13</sup>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의 음성을 높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경고를 “부드럽고 온유”하게,<sup>14</sup> 그리고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으로], …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sup>15</sup> 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때로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는 아이에게 주의를 줄 때처럼 급박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는 분명해야 하며 때로는 단호해야 합니다. 때로는 경고가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하듯이 꾸짖음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sup>16</sup> 그러나 그럴 때라도 경고는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사랑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분명 부모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들을 사랑하므로 자녀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란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과,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라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sup>17</sup> 주님은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우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 하였느니라.”<sup>18</sup>

경고를 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의기소침하게 하는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하는 기쁨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노스의 다음 기사에서 무엇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죄 사함을 받으며 개종하도록 이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내가 숲에 짐승을 사냥하러 갔더니,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sup>19</sup>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더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셨기에 주저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역을 시작할 때부터 복음을 “전파하여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20</sup> 그분은 아무 길로나 천국에 이를 수는 없음을 아셨기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sup>21</sup>

또한, 죄인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sup>22</sup>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위선을 조금도 물려섬 없이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분은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하시고, 또 명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sup>23</sup> 분명 어느 누구도 구주께서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들 또한 구하기 위해 고통을 겪으셨고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분명하게 바로잡지 않고서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모든 이를 받아들이되 또한 그들에게 죄에 관해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경고해야 하기 때문이다.”<sup>24</sup>

때로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폄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리는 상대적이며 도덕적인 표준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재 통용되는 “올바른 사고”의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가장 혹독한 비난을 일삼기도 합니다. 한 저자는 이를 가리켜 “수치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죄의식 문화에서는 양심으로 느끼는 바에 따라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안다. 수치의 문화에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바에 따라, 즉 그 공동체가 자신을 존중하는지 배척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안다. [수치의 문화에서] 도덕적 삶은 옳고 그름의 연속성이 아니라 수용과 배척의 연속성 위에 세워진다.

... 수용과 배척의 바탕 위에 형성된 도덕 체계 안에서는 모두가 끊임없이 불안정하다. 항구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쉽게 변하는 균중의 판단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과민성과 과잉 반응, 잦은 도덕적 공황으로 대표되는 문화이며, 이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득불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긴다.

... 죄의식의 문화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가혹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죄는 미워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다. 현대의 수치 문화는 이른바 수용과 배척을 가지로 여기지만,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다수와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유독 잔혹한 면이 있다.”<sup>25</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구속주의 반석”은 공의와 덕으로 이루어진 안정되고 항구적인 토대입니다.<sup>26</sup> 예측할 수 없는 규칙과 소셜 미디어 폭도의 분노에 휘둘리기보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고 제어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보다는<sup>27</sup> 진리를 아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옳고 그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죄 안에서 쇠락하며 후회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복음의 표준대로 살고자 힘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고의 음성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나의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sup>28</sup> 파수꾼이자 제자인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길”을 두고서<sup>29</sup> 중립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도 이 땅에 같이 임함을 보며 “나팔을 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sup>30</sup> 물론 이 말씀은 이웃 집 문을 세계 두드리거나 공공

광장에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으로 그것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내심 정말로 원하는 것은 모두 회복된 복음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의 음성은 일반적으로 정중할 뿐 아니라 시편 저자의 표현처럼 “즐거운 소리”입니다.<sup>31</sup>

Deseret News(데저렛 뉴스)의 사실 편집자인 할 보이드는 잠자코 있는 것이 어떻게 폐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예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미국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관념이 여전히 “지적 논쟁”의 주제가 되지만, 실생활에서는 결혼 그 자체가 그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엘리트들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이 안정된 결혼 생활의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실천하는 것을 전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도덕적 지도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이른바 "강요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 수준이 높고 가족 관계가 굳건한 이들이 중립을 가장하기를 그만두고 결혼 및 육아와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하는 것들을 전하여 ... 동료 미국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sup>32</sup>

우리는 특히 주님께서 다가오는 미래에 당신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시는 자라나는 세대, 즉 청소년과 청년 독신 여러분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나 없는 데서나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의 표준을 한결같이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을 무지 가운데 갈광질광하며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잘못된 관용 또는 사회적 용인이라는 개념에 굴하지 마십시오. 또한 불편함, 반감,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구주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sup>33</sup>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선택과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sup>34</sup>

심판자로서의 주님의 위상을 생각하며, 저는 엘마의 다음 말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큰 염려를 가지고



바라노니 ... 너희 죄를 던져 버리고,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고,

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

주를 믿으며, 영생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너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워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라."<sup>35</sup>

우리 각자가 다윗과 같이 주님께 이같이 말씀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sup>36</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Richard Neitzel Holzapfel, Dana M. Pike, and David Rolph Seely, *Jehovah and the World of the Old Testament* (2009), 344 참조.
2. 에스겔 1~3장; Holzapfel, *Jehovah and the World of the Old Testament*, 344 참조.
3. 에스겔 33:3~4.
4. 에스겔 33:6.
5. 에스겔 33:7.
6. 에스겔 33:8~9, 14, 16.
7. 에스겔 33:13.
8. 에스겔 33:11.
9. 엘마서 41:10.
10. 니파이후서 2:27.
11. 교리와 성약 88:81.
12. 누가복음 10:30.

13. 누가복음 10:27.
14. 교리와 성약 38:41.
15. 교리와 성약 121:41.
16. 교리와 성약 121:43.
17. 교리와 성약 68:25 참조.
18. 교리와 성약 93:40.
19. 이노스서 1:3~4; 강조체 추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6개월 전에 있었던 연차 대회에서 이를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분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야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20. 마태복음 4:17.
21. 마태복음 7:13~14.
22. 누가복음 5:32.
23. 마태복음 23:23.
24. Chris Stefanick, *Absolute Relativism: The New Dictatorship and What to Do about It* (2011), 33.
25. David Brooks, "The Shame Culture," *New York Times*, Mar. 15, 2016, A29.
26. 할라맨서 5:12.
27. 에베소서 4:14. 우리가 경고하려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진정으로]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17~18)
28. 교리와 성약 1:4; 또한 교리와 성약 1:5 참조.
29. 고린도전서 12:31.
30. 에스겔 33:6.
31. 시편 66:1; 98:4.
32. Hal Boyd, "Hey Progressive Elites! It's Time to Preach What You Practice," *Deseret News*, Oct. 20, 2016, deseretnews.com. 그는 또한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더블유 브래드포드 윌콕스의 말도 인용한다.
33. 마태복음 5:11~12.
34. 제3니파이 27:14.
35. 엘마서 13:27~29.
36. 시편 40:10~11.



호아킨 이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친구 여러분과 교회를 알아보고 계신 구도자 여러분께

계시를 받기 위해 값을 치르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며,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늘이 열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19** 88년 9월 16일 금요일  
오후, 저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비센테 로페즈 와드의 집회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침례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스파누스라는 아주 훌륭한 친구에게 침례를 받은 그날, 저는 날아갈 듯 행복했으며 더 깊은 배움을 향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침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었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분이 듣고 계시다면 제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게 그랬듯,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 1. 선교사를 만나다

힘겨운 시련을 겪고 있지도 않고,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궁금한 질문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왜 선교사를 만나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 할까요? 사실, 저는 사랑 때문에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르네라는 여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르네는 낯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던 여성들과는 표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근사한 직장에 다니던 스물네 살의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반드시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영원한 가족을 꾸리는 것이 목표라며 제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르네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선교사를 만날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글썄요, 적어도 제겐 그랬습니다.

처음 선교사를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교사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새로운 종교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선교사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어떻게든 저와 결혼하도록 르네를 설득할 시간을 벌기만을 바랐습니다.

이제, 제 모든 자녀가 이미 선교 사업을 다녀왔거나 현재 선교 사업 중에 있으며, 저는 이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를 잘 압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저를 가르쳤던 훌륭한 선교사님들, 리차드슨 장로님, 퍼렐 장로님, 하일런드 장로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 일단 선교사를 만나면 진지하게 대화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삶의 중요한 시기를 내려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 2. 교회에 간다

처음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보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꿀벌반이 누구며, 아론 신권은 무엇이고, 상호부조회는 또 무엇인가?

교회 모임에 처음 참석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어리둥절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은 여전히 기억납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평화롭고 기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성신은 제 귀와 마음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야.”라고 말입니다.

이 교훈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그 느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 3. 물문경을 읽는다

선교사를 몇 번 만났지만 저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는 르네가 물었습니다. “물문경을 읽고 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들의 토론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르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은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물문경을 읽은 다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문경을 읽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문경이 참되고 교회가 참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모로나이사 10:4)

그럼 세 번째 교훈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문경을 받고서 이 책이 참된지 읽어 보고 하나님께 여쭙 보라는 권고를 받거든, 꼭 그렇게 하십시오!



## 4. 회개한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관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토론을 모두 끝내고 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제 인생에 굳이 변화가 필요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커틀러 장로님은 스페인어는 서툴렀지만 확신에 찬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아킨 형제님, 형제님의 이름을 넣어서 엘마서 42장을 같이 읽어 봅시다.”

저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커틀러 장로님이 말할 대로 1절을 읽었습니다. “또 이제, 내 아들 [호아킨]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바, 네 마음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이 얼마간 더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아! 책이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도 읽었습니다. “이제 보라, 내 아들 [호아킨]아, 내가 이 일을 네게 설명하리라.” 이어서 아담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절이 이어졌습니다. “또 이리하여 우리는 [호아킨]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나니.”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세 구절에 이르기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강한 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책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 [호아킨]아,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끄는]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29절)

돌아보면, 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시를 받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것이 제게는 어리석게만 보였습니다. 비록 제 세속적인 눈에는 우습게 보이는 일이었지만, 저는 겸손하게 그 권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간절히 회개하기를 바랐으며, 침례받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회개란 오로지 죄나 범법과 얽힌,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새로운 관점이 생기면서, 회개를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워 내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커틀러 장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눈을 밝혀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했던 바로 그 순간은,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내린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치르신 속죄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경험하십시오. 변화하려는 열망보다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교회의 구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르침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크나큰 기쁨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힘을 다해 권유합니다. 와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의 삶까지도 바뀌 놓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가족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르네와 결혼하여 네 명의 예쁜 자녀를 얻었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기에 그 옛날의 선지자 리하이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인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니파이전서 8:15; 11:25 참조)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경험담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 선교사들을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2) 교회에 가 보시고 영적인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3) 물문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주님께 여쭙 보십시오. (4) 회개를 경험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계시를 받기 위해 값을 치르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며,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듯 여러분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저의 구주이자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에스 마크 파머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힘든 일을 요구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을 보시고, 사랑하시며, 당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아내 재키와 함께 워싱턴 스포컨 선교부를 감리하는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많은 훌륭한 젊은 선교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책임감에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으로 선교 임지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배정 면에서 다 제각각이었지만, 금세 저희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아주 훌륭하게 봉사했으나 부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힘들어하는 선교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람들이 싫습니다.” 스스로 다소 엄격한 선교사

규칙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고, 순종하는 기쁨을 미처 배우지 못한 이 선교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워싱턴 주와 아이다호 주의 경계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밀밭 사이로 차를 몰며 신약전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구주께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여쭙는 익숙한 일화를 듣던 중에, 예상치 못했던 심오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는 지금도 저에게 성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켜 왔다고 말하는 부분이 막 지나간 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주께서 청년에게 “네게 ...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 네게 있는 것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드럽게 훈계를 하시겠구나<sup>1</sup> 하며 성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구절에 앞서 제 귀에 들린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듣거나 읽어 본 적이 없는 듯한 네 마디 문구였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경전에 새로 첨가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받은 영감 어린 깨달음은 경이로웠습니다.

저에게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친 네 마디는 무엇이였을까요? 경전 전체에서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어찌 보면 평범하기만 한 그 문구를 여러분은 알아차릴 수 있으실지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어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sup>2</sup>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구절을 듣자, 주님께서 잠시 그대로 청년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주님은 마치 청년의 영혼을 깊숙이 꿰뚫어 보시고 그의 선함과 잠재력을 알아보심은 물론,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이해하시는 듯 그를 보셨습니다.

그다음 한 마디는 사랑하사입니다. 주님은 이 선한 청년에게 강한 사랑과 연민을 느끼셨으며,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소유한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요구는 극히 어려운 것이었지만, 청년은 그토록 큰 사랑을 한몸에 받고서 과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변화가 필요한 것은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도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좌절감을 느끼는 선교부 회장이 어려움에 빠진 선교사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채워서 선교사가 나를 통해 그 사랑을 느끼고 변화하겠다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이 단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의 참모습과 잠재성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때 이후로 순종과 관련된 문제로 힘들어하는 젊은 선교사와 마주 앉을 때면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소망을 행동으로 옮겼던 충실한 젊은 남녀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애정 어린 부모의 심정이 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sup>3</sup> “장로님(또는 자매님), 제가 장로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장로님이 선교 사업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될지 마음이 쓰입니다. 장로님이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바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교사들과 접견을 하러 갈 때마다 먼저 저는 주님의 눈으로 이들 한 명 한 명을 볼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간구했습니다.

지역 대회 시작 전마다, 저와 아내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으며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말을 하지 않고도 접견을 한 것 같았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아들딸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곤 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얻은 이 매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인생을 바꿀 만한 교훈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네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있으면 담대하게 말하는 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sup>4</sup>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사실 가장 절실하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참된 가르침이나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이 없으면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부모든, 교사이든, 지도자든 진정한 가르침은 비난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은 자녀들에게 적대적인 장소가 아닌,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3. 자녀나 친구, 가족이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자 청년이 슬픈 마음으로 돌아간 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이 더 쉬운 길을 택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변함없이 그를 온전히 사랑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 큰 재산을 소유한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을 때, 청년은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권유하셨던 그 경이로운 경험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4.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다면, 회개하고 회생하고 봉사하라는 주님의 권유를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징표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라는 권유는 용서와 평안이라는 훌륭한 은사를 받으라는 권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sup>5</sup>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쁜 습관이나 중독에서 벗어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안식일에는 좋아하는 활동을 멀리하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 사람을 용서하는 등 어려운 일을 요구받는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세상의 것에서 마음을 돌려 나를 따르라고 권유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시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분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양팔로 안아 주시며, 우리를 보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실 그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10:21.  
2. 마가복음 10:17~21; 강조체 추가.  
3. 니파이전서 8:37 참조.  
4. 요한1서 4:18.  
5. 히브리서 12:5~6.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성신은 경고하고, 성신은 위로하며, 성신은 증거합니다.

**얼**마 전 월요일 저녁에 아내 리사와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젊은 부부의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이 가족은 가정의 밤을 함께 하자고 권했는데, 아홉 살 난 아들이 공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했습니다!

개회 찬송과 기도와 가족들 간에 해야 할 이야기를 마친 후, 아홉 살인 그 소년은 직접 손으로 써서 준비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영감 어린 질문을 읽으며 공과를 시작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으로 가족들은 의미 있는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생각과 통찰을 나눴습니다. 그날 그 어린 교사가 준비한 공과와 그가 던진 훌륭한 질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거듭해서 제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성신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특별히 곧 여덟 살이 되어 침례를 준비하는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과 최근에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침례받은 수많은 개종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에게,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성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도록 제안합니다. 이 질문에 관해 생각했을 때 저는 곧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직후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께 들려드린 것이기도 한데, 헤일즈 장로님은 교회 잡지에 저를 소개하는 글을 쓰시며 그 일화를 언급하셨습니다.<sup>1</sup> 이미 들어 본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열한 살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산을 오르시는 동안 저는 길가에 늘어선 큰 바위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커다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었던 저는 그 바위를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제 허리띠를 잡아 재빨리 끌어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위는 오르지 말거라. 등산로만 꼭 따라가자꾸나.”

몇 분 뒤, 더 높이 올라간 후 아래를 내려다보니 놀랍게도 제가 기어오르려 했던 바로 그 바위 꼭대기에서 햇빛을 쬐고 있는 커다란 방울뱀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버지께서 제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뱀이 있는 줄 아셨어요?”라는 질문 말입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자 대화의 주제는 성신으로, 그리고 성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배운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성신이 어떻게 저를 도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성신의 작고 고요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죽음의 위험에서 저를 구해 주신 것을 영원토록 감사드릴 것입니다.

## 우리가 성신에 관해 아는 것

“성신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성신에 대해 계시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 영원한 진리들이 많지만, 오늘은 그중 딱 세 가지만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개조 제1조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sup>2</sup>

둘째, 성신은 영의 인격체입니다. 현대의 경전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sup>3</sup> 이 말은,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달리 성신은 영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신을 부르는 다른 여러 이름, 즉 성령,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약속의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sup>4</sup>

셋째, 성신의 은사는 안수로 주어집니다. 침례 뒤에 오는 이 의식은 우리가 성신을 항상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sup>5</sup> 합당한 벨기세틱 신권 소유자들은 이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손을 의식을 받는 자의 머리 위에 얹고,<sup>6</sup>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이 가진 신권 권세를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한 뒤, “성신을 받으라”라는 중요한 문구를 말합니다.

###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성신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므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성신은 경고합니다

제 어린 시절 경험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성신은 물리적 또는 영적 위험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지역 회장단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성신의 경고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당시 저는 일본 센다이 선교부의 리더 타테오카 회장님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봉사했는데, 타테오카 회장님은 선교부의 일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선교부 남쪽 지역의 선교사 지도자들과 모임을 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모임이 있기 며칠 전, 타테오카 회장님은 예정된 소수의 장로와 자매 선교사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남쪽

구역의 모든 선교사를 초대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계획을 말하자, 누군가는 이 모임이 모든 선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 지도자만을 위한 모임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받은 영의 인도에 따라 관행을 뒤로하고 모든 선교사를 초대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해안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후쿠시마도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기로 한 2011년 3월 11일, 선교사들은 이 규모가 커진 선교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내륙 지역에 있는 코리아마 시로 모였습니다.

모임이 진행되고 있던 사이, 진도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센다이 선교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해안 도시들이 파괴되고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선교사들이 봉사하던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는 이후에 원전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날 선교사들이 모임을 하던 집회소도 지진 피해를 보기는 했으나, 성신의 인도를 따른 타테오카 선교부 회장 부부와 모든 선교사들은 안전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피했으며, 쓰나미와 원전 사고의 피해 상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신이 주는, 대부분 조용하고 세밀하게 오는 그 느낌에 귀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현세적 위험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신은 여러분에게 경고함으로써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 아버지와 타테오카 회장님에게 그러했듯 말입니다.

### 성신은 위로합니다

“성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하기 위해 이번엔 보혜사의 역할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슬픔과 고통, 실망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도 성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혜사, 즉 위안을 주는 자는 성신을 부르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온하고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sup>7</sup>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 다섯 아들을 둔 한 가족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족은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지도자들, 코치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장남인 페르난도와 그의 남동생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페르난도는 후에 집을 떠나 학업을 계속했고 대학에서 미식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만난 여자 친구, 베일리와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페르난도와 베일리가 학교를 마쳤을 무렵, 그들은 첫 아이의 출산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하려 했고, 가족들도 이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베일리와 여동생은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끔찍한 다중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베일리와 태중의 아기는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페르난도와 베일리의 부모 형제들은 깊은 고통을 겪었으나,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깊었던 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고통과 대조되는 평안과 위안이었습니다. 성신은 보혜사로서 페르난도가 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하는 동안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영은 페르난도에게 지속되는 평안을 속삭였고, 그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의 태도를 보이도록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베일리의 부모는 당시 선교사로 봉사하던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누나의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당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다음과 같이 편지에 썼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 생각나는 거라곤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누나가 거기 없을 거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 구주와 그분의 계획에 대한 가족들의 견고한 간증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거나 가르칠 때 눈물이 고이도록 만드는 그 다정한 영이 제 마음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위안을 받았고 제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sup>8</sup>

성신은 페르난도와 베일리의 가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로하고 도울 것입니다.

### 성신은 간증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모든 진리에 대해 간증하고 증거를 전합니다.<sup>9</sup>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sup>10</sup>

증인이라는 성신의 값진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페르난도와 베일리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난도와 그의 동생은 침례를 받았습디만, 그의 부모와 세 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들과 만나보라는 권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족들은 거절했습니다.

베일리와 여자 아기가 비통하게 사망한 후, 페르난도의 가족들은 슬픔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페르난도와, 그리고 베일리의 가족과는 달리 그들은 어떤 위안이나 평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며느리의 가족이 그 무거운 짐을 대체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들에게는 있고 자신들에게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며, 그것이 평안과 위안의 원천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들은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간증이 생겼고, 자신들이 애타게 찾던 평안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를 얻었습니다.

베일리와 태어나지 못한 손녀가 세상을 떠난 지 두 달 만에 페르난도의 부모와 두 동생은 침례와 확인을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 다. 막내동생은 어서 여덟 살이 되어 침례 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각자는 영, 즉 성신이 복음의 참됨을 증거해 주었고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해 주었다고

간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신은 페르난도의 가족에게 그러했듯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증거해 주고 도울 것입니다.

#### 요약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신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계시된 진리를 거론했습니다. 이는 성신이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고, 영의 인격체이며, 성신의 은사는 안수를 통해 주어진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성신은 경고하고, 성신은 위로하며, 성신은 증거합니다.

#### 은사를 유지하기 위한 합당성

침례받고 확인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최근에, 또는 오래전에 침례와 확인을 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신의 은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 영적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고, 개인 및 가족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고, 가족 및 친구들과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영에 가까이 머무십시오. 그러면 영이 여러분 가까이에 거할 것입니다.

#### 간증

이제 권유와 저의 확실한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이 노래의 가사를 더 온전히 삶에 실천하기를 권유합니다. “들어보라 성신의 속삭임을 들어보라 작은 음성”<sup>11</sup>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신회를 구성하는 세 분, 즉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영광스럽게 존재하심을 간증합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중 하나는 성신의 은사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성신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한 성신이 여러분을 도울 것임을 압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저의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이해심의 소유자”, *리아호나*, 2016년 6월호, 14쪽 참조.
2. 신앙개조 제1조.
3. 교리와 성약 130:22.
4. 모사이야서 18:13; 엘마서 5:46; 9:21; 교리와 성약 88:3 참조.
5. 니파이전서 13:37; 니파이후서 31:12; 교리와 성약 121:46 참조.
6. 교리와 성약 138:33 참조.
7. 요한복음 14:16.
8. 개인 서한, 2016년 12월 18일.
9. 히브리서 10:15; 니파이후서 31:18; 야곱서 4:13 참조.
10. 요한복음 15:26.
11. “고요하고 작은 음성”, *리아호나*, 2006년 4월호, 13쪽.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영생은 곧 이것이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그분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청소년 및 미혼과 기혼인 청년 성인 모두를 포함하는, 주님의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악행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매우 혼란스럽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축복과 위대함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는 많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삶에서 여러분의 목적을 아는 데 도움이 될 두 가지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sup>1</sup>

두 번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sup>2</sup>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앞서 읽은 성구에 나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들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 가십시오

젊은 친구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829년 4월 7일, 스물두 살 된 청년 올리버 카우더리는 스물세 살의 청년 조셉 스미스를 위해 서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처럼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올리버는 복음의 회복과 이 사업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확인받으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그는 다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물었고 이에 내가 네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었음을 너는 알고 있나니 ...

그러하도다.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은 네 생각과 네 마음의 의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

네가 증거를 더 원하면 ...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

내가 ...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sup>3</sup>

여러분이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도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경전 공부로 그분을 알아 가십시오

경전을 공부하면, 구주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주를 알게 됩니다.

1985년 4월,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작고하시기 13일 전에 열린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은 말씀 말미에 이런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 보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고, 구원은 그분의 속죄의 피를 통해 오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sup>4</sup>

그날 맥쿱기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당시 느꼈던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서두에서 자신의 간증이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일들에 관해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 말씀이 경전의 말씀[이라] ...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먼저 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이 참됨을 제게 증거해 주었으므로 그 말씀은 제 것이 되었으며, 이제는 마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압니다.”<sup>5</sup>

경전을 공부하며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어 마침내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들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밝혀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와 원리들이 여러분의 일부분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경전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 외에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영의 음성을 깨닫는 법을 익히기를 바랐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가족이 함께 물론경을 공부함으로써 그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성스러운

진리들을 토론하면서 우리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경전 공부는 영이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지침을 제공하는 채널과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매일 경전을 공부하면, 여러분은 영의 음성을 깨닫는 법을 익히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을 알아 가십시오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구주는 이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sup>6</sup>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sup>7</sup>

성약을 명예롭게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 론다와 저의 부모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부모님에 대해 정말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셨고 저희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제 장인 장모님이 결혼하신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당시 23세였던 장인어른께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두 살배기 딸을 뒤로하고 선교 사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어른의 귀환이 7개월이 남은 시점에 장모님도 함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어린 딸은 친척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몇 년이 흘러, 자녀는 네 명이 되었고, 장인어른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가족과 함께 몬태나 주 미줄러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사한 지 채 몇 달 되지 않아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과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께서 장인어른을 당시 새로 조직된 미줄러 스테이크의 초대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겨우 서른네 살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는 가운데 대학 진학은 미뤄졌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30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인봉자, 어머니는 의식 봉사자셨습니다. 그분들은 또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몽골 울란바토르, 케냐 나이로비, 일리노이 나부 성전,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 등 5개 지역에서 함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무척 애쓰셨는데, 80대의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은 삶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좇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쪽을 추구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과,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그와 같은 모든 헌신적인 후기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주님께서 힐라맨의 아들인 선지자 니파이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가 [지치지 아니하고]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 [네가] 네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sup>8</sup>

하나님과 이웃을 충실하게 섬겨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심을 느끼고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됩니다.

#### 구주와 같이 됨으로써 그분을 알아 가십시오

구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신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sup>9</sup>

합당성은 주님과 같이 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하도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 너희 손[을] …

깨끗이 하여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라].”<sup>10</sup> 주님과 같이 되는 여정은 회개하고 용서받아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돕고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영혼은 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sup>11</sup>

구주의 속죄 희생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구주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되도록 도와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물론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그가 나타날 때에 …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 할지이다.”<sup>12</sup>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힘써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 멘토를 따름으로써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우리의 노력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할 모델과 멘토들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분 중 한 분이셨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웰 장로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 노력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응시킨 분이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장로님은 암 진단을 받은 직후의 심정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의] 이편이든 저편이든 나는 주님의 팀에서 뛰고 싶네. 그냥 벤치에 앉아 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경기에 나가 뛰고 싶다네.”<sup>13</sup>

그 후 몇 주 동안 장로님은 하나님께 병을 낮게 해 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을 주저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로님의 부인인 맥스웰 자매님은 예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부르짖으셨다는 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주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sup>14</sup>라고 말씀하신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자매님은 장로님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라 먼저 도움을 간구하고, 그런 뒤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바치도록 권했으며, 장로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sup>15</sup>

그 후 1년 가까이 힘들고 강도 높은 항암 치료가 진행된 후, 맥스웰 장로님은 건강을 회복하시어 자신의 바람대로 “경기”에 완전히 복귀하셨고 7년을 더 봉사하셨습니다.

그 7년 동안, 저는 장로님과 함께 몇 번의 임무 수행을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친절과 연민, 사랑을 느꼈습니다. 장로님은 지속되는 고통 속에서 계속 봉사하면서 구주를 닮으려 노력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장로님이 영적으로 더욱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역할 모델이자 멘토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sup>16</sup> “와서 나를 따르라.”<sup>17</sup>

저의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생에 걸친 과제입니다. “영생은 곧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sup>18</sup>

“이 위대한 대업에 ... 나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 [젊은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갑시다.<sup>19</sup>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그분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추구하며, 구주와 같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고, 의로운 멘토들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들의 성임받은 특별한 증인으로서 제가 드리는 요청입니다. 그분들은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3:16.
  2. 요한복음 17:3.
  3. 교리와 성약 6:15~16, 22~23.
  4. Bruce R. McConkie, “The Purifying Power of Gethsemane,” *Ensign*, May 1985, 11; 강조체 추가.
  5. Bruce R. McConkie, “The Purifying Power of Gethsemane,” 9; 강조체 추가.
  6. 요한복음 6:38.
  7. 제3니파이 11:11; 강조체 추가.
  8. 힐라맨서 10:4.
  9. 제3니파이 27:27.
  10. 교리와 성약 88:74.
  11. 교리와 성약 93:1; 강조체 추가.
  12. 교리와 성약 7:48; 강조체 추가.
  13. similar statements in Bruce C. Hafen, *A Disciple’s Life: The Biography of Neal A. Maxwell* (2002), 19 참조.
  14. 마태복음 26:39; 강조체 추가.
  15. Bruce C. Hafen, *A Disciple’s Life*, 15 참조.
  16. 요한복음 14:6.
  17. 마태복음 19:21.
  18. 요한복음 17:3; 강조체 추가.
  19. 교리와 성약 128:22.



벤자민 데 호요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우리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합시다

구주의 복음과 회복된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동료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라고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약 구주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랐을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 시대에 구주를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도 그러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질문과 그들이 내린 결론을 깊이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구주께서 주신 다음의 산상수훈을 제가 직접 들었더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구주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실은,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838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다음 내용을 공표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나의 교회는 이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임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4~5)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특별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시현에도 나왔습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는 오늘날을 보고 교회의 목적에 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이사야 11:12)

경전상에서 기치, 혹은 기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두고 연합한 사람들 옆에 두는 깃발을 뜻합니다. 고대에 기는 전투에서 군사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몰몬경과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모든 나라를 향한 깃발인 것입니다.(경전 안내서, “의식” 참조)

의심의 여지 없이, 후기의 중요한 깃발 중 하나는 바로 이 장엄한 연차 대회입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업과 계획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이곳 말입니다.(모세서 1:39)

연차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일은 후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훌륭한 간증이기도 합니다.(신앙개조 제9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열방의 기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시온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모으는 이 경이로운 순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계시해 주십니다.(니파이후서 28:30)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으며, 그것이 사소해 보인다고 해서 놀라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8:30)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배우고 지도자들의 권고를 귀담아듣는 가운데 우리는 등을 채울 기름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써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기가 되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중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안식일 준수, 휘장 양쪽에서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것, 그리고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은 교회와 가정에서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빛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온전히 지킬 때, 주님의 거룩한 날에 성찬을 바칠 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우리의 헌신을 바침으로써 우리가 항상 그분의 영광 함께할 때 더욱 밝아집니다. 그 빛은 바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이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언급하신, 우리가 용서받은 느낌으로 집에 돌아올 때 밝아지고 더 눈에 뜨이게 되는 그 빛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수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성찬을 취할 때 느끼는 용서받은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무한한 희생을

하신 구주에 대해 더 큰 사랑과 감사함을 느낍니다.”(“안식일에 드리는 감사”, 리야호나, 2016년 11월호, 100쪽)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찬을 취하면, 단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빛도 더 밝아집니다.

그 빛은 시간을 바쳐 조상의 이름을 찾아 성전에 제출하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칠 때도 밝아집니다.

휘장 양편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성스러운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은 주님의 성전 건설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는 친족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고 오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 일정도 있기에, 아내와 저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름을 찾아 성전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함께 기치, 또는 기와 같이 빛을 발합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저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눕니다. 새로운 교수법 교재 표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복음 교사—모든 부모, 공식적으로 부름 받은 모든 교사, 모든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주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 영으로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016년])

바로 지금, 신앙이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빛을 높이 들어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교사 평의회 모임은, 학생들이 그리스도 교리의 깃발 주변으로 모이는 이때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방법이 됩니다. “구주께서 가르치신 것같이 가르치기 위한 열쇠는 구주께서 사신 것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4쪽)

우리가 모두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좀 더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빛이 더욱 밝아져 숨겨지지 못하고 구주의 빛을 찾는 이들을 모으는 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빛을 숨겨 두지 마시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빛이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빛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구주의 복음과 회복된 교회가 있기에 우리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반사해야 할 빛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신앙의 기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치르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정** 말 감명 깊은 연차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되었습니다. 연차 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앙의 기초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많은 일이 그렇듯, 개인적인 기초는 일반적으로 단계와 경험, 도전, 후퇴, 성공이 천천히 하나하나 쌓여 이루어집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은 아기의 첫걸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을 땔 수가 없습니다. 아기의 얼굴에 결단과 기쁨, 놀라움과 성취감이 뒤섞인 사랑스러운 표정이 떠오르는 이 첫 걸음마는 진정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희 가족도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아들이 네 살 정도 되었을 때, 아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신이 난 얼굴로 가족들을 향해 사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난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끈도 묶고, 붕붕이도 타고, 지퍼도 올려요.” 아이는 신발 끈을 묶을 줄 알고, 세발자전거를 탈 줄 알고, 외투의 지퍼를 채울 줄 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웃음을 터트렸지만,

아이에게는 그런 일들이 기념비적인 성취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으며, 크게 성장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신체적 성장은 매우 쉽게 눈에 띕니다. 우리는 걸음마를 내딛는 아기로 시작하여,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장하고 발전하여 마침내 성인이 됩니다. 발전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훌륭한 운동 경기나 음악 공연을 볼 때, 그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다고 말하곤 합니다. 대개 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과라는 것은 수년간의 준비와 연습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저명한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이를 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경기, 음악 공연, 학업 능력, 전문적인 업무 기술, 의학, 법률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이 만큼의 연습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분야를 연구한 한 전문가는, “무슨 분야든지 세계적인 전문가 수준에 이르려면 1만 시간을 연습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sup>1</sup>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준비와 연습이 있어야만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해 가는 이 세상에서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오래 건디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기초를 확립하려면 일정 수준의 영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해가





생기는 지고한 순간을 강조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특별한 영적 통찰을 성신이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일의 중요성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견디고 끊임없이 영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아기의 초기 걸음마 단계와도 유사하다고 할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스러운 성찬식과 경전 공부, 기도,

그리고 부름받은 대로 봉사하는 일에 신성한 노력을 들여 전념해야 합니다. 최근에 열세 자녀를 둔 한 아버지에게 바쳐진 추도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충실히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여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렇게 하여 자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흔들림 없는 기초를 얻었습니다.”<sup>2</sup>

저는 열다섯 살 때 제 삶의 기초가 된 일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심 깊은 저의 어머니는 제가 삶에 신앙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도와주시고자 담대하게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성찬식과 초등학교에 참석했고, 그 후 청남 모임과

세미나리에 참석했습니다. 물문경을 읽고, 늘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랑하는 저의 형이 선교 사업을 고려하게 되면서, 저희 집에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지만 교회에서는 저활동 회원이셨는데, 형이 학업을 중단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이 일로 가족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보다 다섯 살이 많은 제 형은 놀라운 토론을 이끌어 냈으며, 저희 가족은 선교사 봉사에 대한 형의 결정이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한 분인가? (2) 물문경은 참된가? (3)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였는가?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고, 영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진리를 모두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그날 저녁에 영적인 확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저에게 기초가 다져져 있었던 것은 거의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증이 있던 형은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결심했고, 마침내 아버지의 지지도 얻어 냈습니다.

영적 인도는 주님이 정하신 시점에, 그분의 뜻에 따라 필요한 때에 옵니다.<sup>3</sup>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입니다. 최근에 저는 물문경 초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스물세 살 때 물문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조셉이 이 번역에 사용한 도구들을 잘 압니다. 조셉은 1830년 초판본에 짧은 서문을 적으며, 간략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sup>4</sup> 그렇다면, 번역의 보조 수단으로 쓰였던 선견자의 돌 그리고 우림과 둠뎀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없었다면 안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들은 자전거의 보조 바퀴처럼 조셉이 더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데 필요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필요한 물건이었을까요?<sup>5</sup>

신체적, 또는 정신적 역량을 얻으려면 반복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듯,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판을 받을 준비로서 모로나이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네 차례나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매주 성스러운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함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경전을 가끔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고할 때, 삶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 삶을 바꿀 지고한 신앙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권능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봉사할 때, 훌륭한 저의 선교부 회장님<sup>6</sup>께서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가진 것을 모두 들여 의사의 치료를 받았으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심오한 방식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성구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구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이 나으리라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 여인은 곧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함께 걸던 자들이 모두 밀려들어 구주를 미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virtue*라는 단어의 어원은 쉽게 “권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에서도 이 말을 “권능”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구주께서는 그 여인을 보신 것도 아니었고, 여인의 필요 사항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시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구주의 옷자락을 만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니신 치유하는 권능을 끌어내릴 만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7</sup>

저는 성인이 된 후로 늘 이 이야기를 숙고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상으로 삶에서 축복받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보여 준 것과 같은 신앙의 기초를 얻고자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확신을 받아서

신앙의 기초가 생겼다고 하여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으로 개종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교회사와 교리와 성약에 기록된 계시에서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누구나 겪는 우여곡절과 어려움에 대처한 훌륭한 사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완공은 교회 전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영이 충만해졌고, 교리가 계시되었으며, 교회 설립을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열쇠가 회복되었습니다. 오순절에 고대 사도들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회원이 커틀랜드 성전 헌납과 관련하여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sup>8</sup>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듯,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앞으로 어려움이나 고난에 직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의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금융 위기, 즉 1837년의 공황과 직면하여 영혼을 시험받게 되리라는 것은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sup>9</sup>

회복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팔리 피 프랫도 이 금융 위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1837년 초, 사랑하는 아내 생크폴을 잃었습니다. 첫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만에 프랫 장로는 아내와 사별하고 비탄에 빠졌습니다.

몇 달 후, 프랫 장로는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를 겪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토지 투기가 일고,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설립한 금융 기관에 어려움이 닥치는 등 지역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자 커틀랜드에는 불화와 반목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현세적인 생활에서도 늘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랫 장로는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한동안

선지자 조셉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sup>10</sup> 그는 날 선 비판을 적어 조셉에게 보냈으며, 연단에 올라가서 그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sup>11</sup>

아내와 토지와 집을 잃은 프랫 장로는 조셉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미주리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주리로 가는 길에 그는 커틀랜드로 귀환하던 동료 사도인 토머스 비 마쉬와 데이비드 패튼을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십이사도 정원회가 다시 화합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함께 돌아가자고 프랫 장로를 설득했습니다. 프랫 장로는 그때 조셉 스미스와 그 가족만큼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찾아가 흐느끼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내 생크폴이 세상을 떠난 뒤 몇 달 동안 “검은 구름 아래” 있었으며, 두려움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sup>12</sup> 반대와 유혹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조셉은 프랫 장로를 “깨끗하게 용서했으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sup>13</sup> 프랫 장로와 더불어 충실하게 남아 있던 이들은 커틀랜드에 닥친 어려움을 통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커졌고 더욱 고결해졌으며 정결해졌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이 지닌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역경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잃었다거나 축복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은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운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연단하는 자의 불의 한 부분입니다.<sup>14</sup> 선지자 조셉이 리버티 감옥에 있을 당시, 주님은 고난과 그릇된 비난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결론지으셨습니다.

“지옥의 바로 그 턱이 입을 크게 벌려 너를 삼키려 할지라도, 내 아들아,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sup>15</sup>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이 가르침에서, 조셉의 날은 알려져 있고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밝히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sup>16</sup>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신앙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sup>17</sup>

신앙의 정도에 따라 성령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sup>18</sup>

구원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옵니다.<sup>19</sup>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따라 힘을 얻습니다.<sup>20</sup>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땀 자가 아니면, 누구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sup>21</sup>

기도는 신앙에 따라 응답됩니다.<sup>22</sup>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sup>23</sup>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영원한 구원과 승영에 꼭 필요한 기초가 됩니다. 힐라맨이 아들들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sup>24</sup>

이 대회에서 신앙의 기초가 굳건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치르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제 확고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Malcolm Gladwell, *Outliers: The Story of Success* (2008), 40 참조. 여기서는 신경과 전문의 대니얼 레비틴의 글이 인용되었다.
2. Obituary of Bryant Hinckley Wadsworth, *Deseret News*, Jan. 15, 2017, [legacy.com/obituaries/deseretnews](http://legacy.com/obituaries/deseretnews).
3. 니파이후서 28:30 참조.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지식이나 원리를 모두 받지는 못한다. 그것들은 필요할 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 주어진다.
4.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0년에 인쇄된 물문경의 첫 번째 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했음을 알린다.”라고 적었다. (물문경 [1830] 소개 참조) 물문경의 그 후 판들에는 비슷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그 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전달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그 판들을 번역하였다.” (물문경 [2005] 소개 참조)
5. 울슨 프랫은 조셉 스미스가 신약전서를 번역할 때 여러 차례 함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셉이 왜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지를 궁금하게 여겼었다고 회고했다. “조셉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고, 자신이 영감을 주는 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림과 돌림을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영이 역사하는 것을 이해했으며 그 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크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Two Days’ Meeting at Brigham City, June 27 and 28, 1874,” *Millennial Star*, Aug. 11, 1874, 499; 또한 리처드 이 텔리 이세, 로빈 에스 젠슨 및 마크 애서스트-맥기, “선지자 조셉,”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10~17쪽 참조).
6. 선교부 회장은 총관리 역원이기도 했던 매리온 디

행크스 장로였다.

7. 누가복음 8:43~48 참조.
8. 사도행전 2장 참조.
9. 모사이아서 2:36~37 참조; 또한 아이어링, “영적인 준비: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행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37쪽 참조,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지를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폭풍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그 시험을 이겨 내지 못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영광 중에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10. Terry L. Givens and Matthew J. Grow, *Parley P. Pratt: The Apostle Paul of Mormonism* (2011), 91–98; volume introduction and introduction to part 5.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5: October 1835–January 1838*, ed. Brent M. Rogers and others (2017), xxviii–xxxii, 285–93 참조.
11. “Letter from Parley P. Pratt, 23 May 1837,” 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5: October 1835–January 1838*, 386–91 참조.
12. “History of John Taylor by Himself,” 15, in *Histories of the Twelve, 1856–1858, 1861*, Church History Library; Givens and Grow, *Parley P. Pratt*, 101–2 참조.
13. *The 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874), 183–84 참조.
14. 니파이후서 2:11 참조.
15. 교리와 성약 122:7–8.
16. 교리와 성약 122:9.
17. 이노스서 1:5~8 참조.
18. 예이롬서 1:4 참조.
19. 모로나아서 7:26, 38 참조.
20. 엘마서 14:26 참조.
21. 제3니파이서 27:19 참조.
22. 모로나아서 7:26 참조.
23. 이터서 12:12 참조.
24. 힐라맨서 5:12.



느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본다.

### 청소년

- 93, 117쪽: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항상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성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성신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과 다른 많은 질문들에 대해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와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가 답변했다. 래스번드 장로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 영향력을 무시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라고 말씀했다. 여러분은 그 책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 33쪽: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상호향상회 주제 성구의 일부를 인용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 1:6)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분에 대해 더 연구하고 알아본다.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과 평안을 느꼈던 때를 기억해 본다.
- 86, 9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유했다. “매일 물문경을 읽지 않으신다면, 매일 물문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케릴 에프 맥קי키 자매는 이렇게 질문했다. “우리는 휴대폰을, 결코 끝이 없는 할 일의 목록을, 그리고 세상의



##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과 함께 연차 대회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다음 활동과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 8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물문경을 매일 읽을 것을 촉구했으며, 그렇게 할 때 “성신께서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알려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혼자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가족과 물문경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은 또한 중요한 성구나 경전의 일화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해 보거나 기타 게임이나 활동을 만들어 볼 수 있다. Friend.Lds.org에 가서 2016년 리야호나 잡지들을 살펴보고 물문경 이야기, 읽기 진도표 및 다른 자료들을 찾아본다.
- 117쪽: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아버지가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가족 토론을 해 보자고 말해 본다. 성신이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었거나,

위안을 주었거나, 또는 진리를 증거해 준 경험을 나눈다. 그런 경험을 글로 써서 자신만의 영적인 경험을 담은 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87쪽: 조이 디 존스 자매는 여러분이 지금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우으로써 나중에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는지 때때로 확인해 달라고 한다.
- 90쪽: 최우환 장로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거라”라는 조언을 소개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잊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럴 때 위를 보라! 여러분의 방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 둘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가서 잠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영을

관심사를 제쳐 놓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는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초대하게 됩니다.” 매일 물문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플래너에 써 놓거나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놓는다.

### 청년 성인

- 62쪽: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업, 가족, 또는 운동이나 취미를 위한 목표도 좋지만, 엠러셀 벨라드 장로는 “아무리 개인적인 목표가 훌륭하고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목표에 여러분은 어떻게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가?
- 39쪽: 올해 초,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청년 성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다. “매주 시간을 내어 [표준경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전부 공부하십시오.” (“선지자와 지도력,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청년 성인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7년 1월 8일], broadcasts.lds.org) 넬슨 회장은 구주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요소의 하나로서 위의 사항을 다시 언급했다. 넬슨 회장의 말씀을 공부하여 “이 시대의 무거운 짐과 장애물, 유혹을 견디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100, 26쪽: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줄 지도가 있다면 어떻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는 신뢰,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 인생의 목적,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지상 생활의 여정에서 최고의 지침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옥스 장로와 웨터포드 티 클레이튼 장로 모두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 우리가 맞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다. 그분들의 말씀을 공부해 보고, 영원한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지도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본다.

- 104쪽: 두려움이 동기를 부여하기는 경우도 있지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두려움이 “절대로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이 품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성인

- 86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가 매일 물문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숙고한다면, “영의 음성을 듣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으며,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물문경을 매일 읽는 목표를 세운다.
- 39쪽: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청년 성인들에게 준 목표에 동참한다.(위 “청년 성인” 부분 참조) 이 목표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구주에 대해 더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토론해 본다.

- 93, 117쪽: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와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의 말씀을 읽어 보고 항상 영을 동반할 수 있는 방법과 영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 우리 삶에 임하는 그분의 영향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 39, 62쪽: 러셀 엠 넬슨 회장과 엠러셀 벨라드 장로는 회원들에게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공부해 보라고 격려했다.(표지 안쪽 참조)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글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감받은 간증에 담긴 말들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읽고 각자 배운 것을 토론해 본다.
- 127, 97쪽: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신앙의 기초가 “단계와 경험, 도전, 후퇴, 성공이 천천히 하나하나 쌓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신앙에 따른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확립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에 맞서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매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와 경험을 선별한 목록이다. 이 목록은 개인 학습,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연사	일화
닐 엘 앤더슨	(58)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시현을 통해 구주와 “세상을 이긴 자”들을 보다. 브루스 디 포터 장로가 신장 질환으로 고통을 겪으나 구주에 대한 그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이기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6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실망해 있던 한 귀환 선교사를 돕다.
마크 에이 브래그	(36) 소방관들이 한 스테이크 센터 화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화를 구하다.
엠 조셉 브로	(23) 엠 조셉 브로 형제의 부친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현명한 조언을 듣다. 어린 시절 엠 조셉 브로 형제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두고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다. 엠 조셉 브로 형제가 선전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다.
린다 케이 버튼	(12) 드루실라 헨드릭스가 남편이 부상으로 전신이 마비된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 한 상호부조회 회장이 암 투병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다.
제럴드 코세	(75) 당시 30세였던 제럴드 코세 감독이 세미나리 때문에 승진하다. 와드 회원들이 한 청년이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최윤환	(90) 최윤환 장로의 아버지가 “엎을 보지 말고 위를 보거라”라고 가르치다. 최선빈 형제가 그의 부모가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축복을 받다. 최윤환 장로가 받은 침실인 정원회의 부름은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으나, 그의 아들은 그들이 “영원한 가족”이기에 이를 걱정하지 않았다.
엘 휘트니 클레이튼	(97) 한 젊은 감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에 충실하라고 권고하다.
웨더포드 티 클레이튼	(26) 웨더포드 티 클레이튼 장로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산모에게 주는 기쁨을 목격하다. 한 충실한 후기 성도 자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두 딸이 구주를 믿는 신앙을 통해 위안을 얻다.
쿠엔틴 엘 쿡	(127) 쿠엔틴 엘 쿡 장로의 네 살 난 아들이 “이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다. 쿠엔틴 엘 쿡 장로가 청년 시절에 회복된 복음에 대한 영적인 확증을 얻다. 팔리 피프렛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충실하게 믿음으로써 지혜를 얻고 더욱 고결해지다.
보니 에이치 코든	(6)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의 어린 손자가 경전을 더 읽자고 부탁하다.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신뢰할 용기와 평안을 느끼다. 암으로 투병하던 자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힘을 얻고 병을 이길 용기를 찾다.
발레리 바이 코르돈	(55) 발레리 바이 코르돈 장로가 청년 시절 그의 가족이 십일조의 율법을 통해 축복받는 것을 보다.
호아킨 이 코스타	(112) 호아킨 이 코스타 장로가 선교사 토론을 들으면서 더 겸손해지고 회개를 성장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식하게 되다.
헨리 비 아이어링	(15) 오스트리아의 겸손한 회원들이 성신을 통해 성찬식을 하던 철제 창고 안을 환하게 밝히다. 성신을 통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사납게 뛰던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다. (19) 최신 기술도 개인적인 계시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게 되다. (82)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신권 봉사를 하면서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고 천사가 그를 받쳐 주리라는 약속에 의지하다.
시 스코트 그로우	(121)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의 부모와 장인 장모가 선교 사업을 하다. 시 스코트 그로우 장로가 닐 에이 맥스웰 장로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목격하다.
조이 디 존스	(87) 오빠가 다섯 살짜리 여동생을 놀리지 않기로 한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다.
캐럴 에프 맥콩키	(9) 가나에 사는 열세 살의 꿀벌반 회장이 친구들의 집안일을 도와 주고 그들이 교회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다.
러셀 엠 넬슨	(39) 한 월계반 회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실격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모임에 참석하다.
에스 마크 파머	(114) 에스 마크 파머 장로가 선교부 회장이었던 시절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러하시듯 선교사들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93)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가 전일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발을 끼워 넣고 질문하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가 영의 속삭임을 듣고 지진을 겪은 에쿠아도르의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여 축복하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 선교사들에게 첫 번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라고 가르치다.
데일 지 랜런드	(29) <i>레 미제라블</i> 에서, 한 주교의 연민을 통해 장발장이 다른 삶을 살게 되다. 데일 지 랜런드 장로가 십대 시절 유럽에서 따돌림과 박해를 받다.
게리 비 사빈	(52) 한 보이스카웃 소년이 추위 속에서 밤을 보내다. 샌드백이 “그 안에서 일어서게 하는 뭔가가 있어서” 쓰러져도 곧바로 일어선다. 게리 비 사빈 장로의 아버지의 의로운 모범을 통해 두 명의 전우가 감명을 받고 교회에 대해 배우다.
올리세스 소아레스	(33) 한 전일 선교사가 그의 누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다.
게리 이 스티븐슨	(117)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가 아홉 살짜리 어린이의 가정의 밤 공과에서 감명을 받다. 영의 속삭임을 통해 어린 시절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가 방울뱀으로부터 보호되다. 일본의 한 선교부 회장이 받은 영의 인도를 통해 선교사들이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다. 비극적인 자동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성신을 통해 위안을 받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04)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 헌납식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성전의 완공을 기뻐하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이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에게 회원들의 칭찬에 “도취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이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여섯 번째 규칙을 지키라고 권고하다. 한 전임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행사에서 말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에 자원봉사자로 나서다.





## 테일러 지 고도이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테**일러 지 고도이 장로는 의료계에 입문하여 경력을 쌓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병원을 개업한 치과 의사였을 뿐 아니라, 구강외과 교수로서 장래가 촉망되던 차였다. 하지만 존경하고 신뢰하는 한 신권 지도자가 그에게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 근무하기를 권고했다.

변창하는 직장을 떠나는 일을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여겼던 그 젊은 치과 의사는 2017년 4월 1일,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 많은 동료들이 어떻게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버릴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한 충실한 확신은 교회 개종자들의 특징이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것은 그의 삶을 규정하는 기회이자 축복이 되어 왔다.

교회 교육 기구에서 근무하던 시절 고도이 장로는 종교 교육원 교사, 코디네이터, 책임자 및 국가 책임자를 역임했다. 가장 최근에는 남미 북서 지역의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지역 책임자였다.

테일러 기예르모 고도이 아타나치오는 1968년 페루 리마에서 테일러 고도이 아타나치오와 아달자한다 아타나치오 슬하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지만, 사랑 많은 의붓아버지 엘리아스 레바자 슬하에서 성장했다. 고도이 장로는 27살에 교회에 개종했다.

페루 리마 북 선교부에서 봉사를 마치고 고향인 아레키파로 돌아온 그는 그곳에서 캐럴 라체코라는 젊은 여성과 우정을 쌓기 시작했다. 그 두 개종자는 1994년 5월 31일 페루 리마 성전에서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고도이 장로는 1993년 산타마리아 가톨릭 대학교에서 치의학 학사 학위를 받고, 2006년 마드리드 공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 지역 홍보 책임자 및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 조니 엘 코흐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조**니 루이스 코흐 장로는 브라질 교회 2세대 회원이다. 그의 부모인 루이스 코흐와 에텔카 가스초 코흐는 신혼 시절 영적 진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교회를 찾아다녔다.

그의 어머니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몇 시간 뒤 선교사들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 뒤 6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

코흐 장로는 1962년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조인빌리에서 나고 자랐다. 헌신적인 초등학교 교사와, 아버지 같은 감독, 훌륭한 스테이크 회장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그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코흐 장로는 브라질 상파울루 북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를 마치고 미국 유타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공부했다. “브라질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구가 있는 와드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장차 제 아내가 될 자매를 만났습니다.”라고 코흐 장로는 말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결혼했는지 물었죠.” 8개월 동안의 장거리 연애—실제로 만나서 함께한 날은 15일에 불과했다—를 마치고 그는 1988년 4월 26일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릴리안 미셸 루트비히와 결혼했다. 그들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BYU를 졸업하고 경영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친 뒤 코흐 장로는 국제 물류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 이후 교회에서 전임 봉사직으로 부름받기까지 25년여 동안 여러 회사에서 재직했다.

그는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으며,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을 당시 모잠비크 마푸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저는 복음 대로 생활하며 얻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간증을 쌓았습니다. 물론 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제 간증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가 여덟 살 무렵, 선교사들이 그의 가족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복음의 회복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2017년 4월 1일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은 파렐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조셉 스미스가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데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파렐라 장로는 1962년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의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구아루자에서 피오리반트와 바니 드 파울라 파렐라 슬하에서 태어났다.

그의 두 형은 모두 선교 사업을 했다. 그는 형들의 모범과 더불어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멘토가 되어 준 사랑하는 감독 앙헬리노 보르지스 드 프레이타스의 모범을 통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선교사로 봉사하며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실재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층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미국 유타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해 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Kodak Polychrome Graphics에서 상무이사, Korn Ferry International에서 공동 경영자 직을 역임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Caldwell Partners에서 공동 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1988년 12월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일레인 핀홀트와 결혼해 슬하에 다섯 아들을 두었다.

파렐라 장로는 지부 회장, 감독, 고등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으며, 2009~2012년에는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선교사들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자신이 여덟 살에 경험했던 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이 잠시 맛보았던 진리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이는 참으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



## 존 시 핑그리 이세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20**17년 4월 1일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은 존 시 핑그리 이세 장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경전을 읽으며 영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간증을 쌓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1966년,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카르멘 핑그리와 존 시 핑그리 슬하에서 태어난 핑그리 장로는 부모의 헌신을 통해 삶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제가 태어난 다음 날, 아버지께서 제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간직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가 전임 선교사로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 제게 그 편지를 부치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간증과 아버지께서 제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가르침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 저는 부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핑그리 장로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스페인어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는 유타 대학교에서 영어와 정치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3월에 앤 펙슬리와 결혼해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그는 주로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일에 종사해 왔다. 그는 인도주의 의료 지원 기관 대표, 두 곳의 의료 서비스 회사의 부대표로 재직했다.

그는 2011~2014년까지 텍사스 휴스턴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종교 교육원 및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했다.

“주님께서는 ‘만일 네가 원하면, 너는 이 세대에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뜻에 순종한다면, 나는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기회를 찾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



##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는 2017년 4월 1일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시받았다.

테일러 장로는 1964년 미국 유타 주 오그덴에서 로웰 문 테일러와 마리 킹 테일러 슬하에서 태어났다. 낚시와 운동을 좋아하는 가정에서 다섯 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그는 케이즈빌 근교에서 성장했다.

형인 크레이그는 유타 주 로건에 있는 유타주립대학교에 농구 장학생으로 선발되자 선교 사업을 할 것인지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제가 [형에게] 말했죠. ‘형, 형이 선교 사업을 가면, 나도 갈 거야.’”라고 테일러 장로는 회상한다. 스페인 세비야 선교부로 부름을 받은 테일러 장로와 그의 형 둘 다 결국 선교 사업을 마쳤다.

테일러 장로는 선교 사업을 하기 전 1982년~1984년까지 브리검 영 대학교 농구팀에서 활약했으며, 현재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일원으로 봉사 중인 데브 지 듀란트 형제도 당시 같은 팀에 있었다.

그는 BYU 재학 시절 지금의 아내인 질 페더스톤을 만났다. 당시 그녀는 학생 와드에서 복음 교리반 교사였는데, 테일러 장로는 형의 소개로 그녀가 가르치던 공과에 참석해 그녀를 만났다. 사랑을 꽃피운 두 사람은 1987년 4월 30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해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었다.

테일러 자매는 명예 총관리 역원인 본 제이 페더스톤 장로와 멀린 페더스톤 자매 슬하의 일곱 자녀 중 외동딸이었다. 테일러 장로는 장인 장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은 정말로 친절하게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자마자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BYU에서 학사를 마친 테일러 장로는 공안 기관 간의 긴급 통화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회사를 비롯해 다수의 사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종교 교육원 교사, 고등평의원, 와드 청남 회장,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칠십인으로 부름받을 당시 텍사스 델러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



##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는 1994년 3월 침례를 받은 이후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해 왔다.

와콜로 장로는 1967년 피지 라우 로마로마 섬에서 타니엘라 보사 와콜로와 테말레시 부아드로모 와콜로 슬하 여섯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저는 지극히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아주 풍족했습니다.”

와콜로 장로는 12세에 부모님 슬하를 떠나 12~19세 연령대의 소년 5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던 기숙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계 엄청난 배움과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제력을 배웠습니다.”

그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니타 허버타 모이모이와 1년여간 교제한 뒤 1987년 8월 22일, 피지 수바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와콜로 장로는 바로 개종하지 않았다. 결혼 후 8년 동안 그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다. “8년 동안 [선교사] 토론을 네 차례나 마쳤습니다. 거쳐 간 선교사들만 24명이었죠.”

한 선교사가 했던 교회 이름에 관한 단순한 질문이 침례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교회 이름은 그 교회의 주인의 이름을 따라야 합니다. 제게는 바로 그게 답이었습니다.”

와콜로 장로와 아내는 1995년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그들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침례는 바로 봉사의 기회로 이어졌다. 침례받고 2주 뒤 그는 와드 청남 회장단으로 부름받고, 아내와 함께 세미나리를 가르치도록 부름받았다. 그 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으며, 이어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을 당시 그는 아칸소 리틀록 선교부를 감리하고 있었다.

와콜로 장로는 경영학과 행정학을 공부하고,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피지 교회 서비스 센터 책임자로 재직했다. ■



## 진 비 빙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진** 비 빙엄 자매는 여러 차례 이사를 하면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1952년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서 로버트 바루스와 이디스 조이 바루스 슬하에서 태어난 빙엄 자매는 여섯 명의 자매와 두 명의 형제 사이에서 자랐다. 그녀는 미국 텍사스와 미네소타 주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며, 뉴저지 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쳤다. 뉴저지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빙엄 자매와 그녀의 형제들만이 학교에서 유일한 후기 성도 학생들이었다. 뉴저지로 이사하고 나서야 그녀는 같은 반에 새로 이사한 와드의 청녀가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뻐했다.

1972년 12월 22일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브루스 빙엄과 결혼한 뒤 남편의 학업을 위해 일리노이 주로 이사했다.

빙엄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뒀는데, 그들 외에도 위탁 양육을 맡았던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자녀라고 말한다. 빙엄 자매는 가족 생활을 전공하여 준학사 학위를 받고, 막내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다시 학업을 시작해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빙엄 자매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상호부조회에서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어머니 교육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재에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매님들의 모범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훌륭한 기회였습니다.”

빙엄 자매는 초등회 본부 임원회와 본부 초등회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아주 많은 지역을 방문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얻는 축복과 과제를 모두 경험했다.

빙엄 자매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서로에게 내재된 선함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반대이며 그분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녀는 상호부조회는 각 자매들이 영원한 관점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가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중심을 맞출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 쉐린 유뱅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쉐** 린 유뱅크는 후기 성도 인도주의 서비스에서 막 일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목격했던 고통, 슬픔, 비탄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순 있지만 그러한 슬픔은 자신의 소임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책임을 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짐을 지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분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 답은 공감하고 봉사하는 그녀의 능력에 변화를 가져왔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유뱅크 자매는 교회의 인도주의 단체인 후기 성도 자선회 책임자로서 전 세계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고, 자립을 활성화하는 일을 해 왔다.

2017년 4월 1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지지받은 그녀는 후기 성도 자선회 책임자 직분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유뱅크 자매의 설명에 따르면 후기 성도 자선회와 상호부조회 간에는 “엄청난 연결 고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회 임원들이 후기 성도 자선회 이사진이라는 것이다. 두 조직에 모두 몸담고 있는 그녀가 맡은 책임을 통해 그 연결 고리는 강화될 것이다.

쉐린은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 레딩에서 마크 유뱅크와 진 유뱅크의 일곱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미국 유타 주 바운티풀에서 자란 유뱅크 자매는 12,000평에 달하는 대지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구도 따고 스프링클러를 직접 수리하기도 하며, 유타의 산악 지대에 인접해 살았다.

유뱅크 자매는 유타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영어와 역사 학사 학위를 받고, 핀란드 헬싱키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교회 복지부 외에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의회에서도 근무했으며, 작은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기도 했고, 일본과 프랑스에 거주하기도 했다.

모든 기회가 각각 현재 그녀가 활용하고 있는 능력들을 습득하고, 교회 안팎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 언어 및 음식을 접하고 사랑하게 해 주었던 “신앙의 도약”이었다. ■



##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는 1963년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노엘 블랑코 카르도자와 델비 카르도자 슬하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하시어 저희 가족을 부양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라고 아부르토 자매는 말한다.

그녀가 아홉 살이던 1972년 12월 23일, 자정을 막 넘길 무렵 지진이 마나과를 덮쳤다. “제 뒤에 가구가 있어서 저는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가 끼여 있었죠.” 그녀와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이웃들이 달려와 폐허가 된 토담집에서 그들을 구조했다. 그들은 잔해 속에서 그녀 옆 침대에서 오빠의 시체를 찾았다. “물질적인 소유는 그저 일시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아부르토 자매는 21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길에 올랐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 때 선교사들을 소개받고 교회에 가기로 했다. “그 건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대회였는데 모든 메시지가 저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졌죠.” 그녀는 1989년에 침례를 받았다.

이 무렵 그녀는 카를로스 아부르토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아부르토 자매가 유타 주 오렘으로 이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1993년 5월 8일, 유타 조던리버 성전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2017년 4월 1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 지지받은 아부르토 자매는 Novell Inc.와 Lemoine International 등에서 근무하며 25년 이상 번역 사업에 종사해 왔다. 그녀와 남편은 현재 작은 번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니카라과 마나과에 있는 센트럴어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4년간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1997년 유타 밸리 주립 칼리지에서 컴퓨터 공학 준학사 학위를 받았다.

아부르토 자매는 2012년~2016년까지 초등학교 본부 임원회에서 봉사하는 등 다양한 교회 부름에서 봉사해 왔다. ■



## 크리스티나 프랑코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는 어린 시절, 의문에 부딪힐 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열한 살 무렵 어머니께 교리에 관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것이 참된지 여쭙았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때 자신을 사랑하시며 기도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7년 4월 1일,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에 지지받은 크리스티나 베아트리스 프랑코는 195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고 알 프라가와 마리아 에이 고도가 프랑카 슬하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세 살 때 선교사들이 집 문을 두드렸다. 8개월 동안 공부하고 교회에 참석한 뒤 프랑코 자매의 부모는 교회에 개종했고, 복음 안에서 가족을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로돌포 시 프랑코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훗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프랑코 자매는 18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유타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그녀와 로돌포는 결혼하고자 했지만, 당시 로돌포는 아르헨티나 군대에서 복무를 앞두고 있었다. 로돌포가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둘은 편지를 주고 받았으며, 군 복무를 마친 후 1978년 12월 15일 그들은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

시계 제조공이었던 프랑코 자매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시계 전문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다.

프랑코 자매는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2005년~2010년까지 초등학교 본부 임원회에서 봉사했으며,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으로 부름받던 당시 아르헨티나 레시스텐시아 선교부를 감리하던 남편과 함께 봉사하고 있었다. ■



## 상호부조회 목적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상호부조회와 함께 갱신되었다.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키우고, 의식과 성약을 통해 개인과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궁핍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단합하여 일하는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준비되도록 돕는다.”

이 문구에는 후기 성도 여성들이 신성한 정체성과 영원한 사업, 그리고 상호부조회 각각의 자매들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 추가되었다. ■

## 새로 발표된 부름

**연** 차 대회에서 여섯 명의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과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재조직된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테일러 지 고도이 장로, 조니 엘 코호 장로, 아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존 시 핑그리 이세 장로,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장로,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가 부름받았다.

진 비 빙엄 자매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제1보좌에 쉐런 유뱅크,

제2보좌에 레이나 아이 아부르토 자매가 봉사하게 되었다. 빙엄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부름받기 전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던 보니 에이치 코든 자매가 새로운 제1보좌로,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가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이 지도자들의 약력은 135쪽부터 나와 있다. 새로 부름받은 36명의 지역 칠십인들도 발표되었다.(44쪽 참조) ■

## 다섯 개의 성전 신축 발표

**도**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섯 개의 성전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그 지역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 브라질리아.** 브라질 브라질리아 성전은 브라질에서 10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그중 6개의 성전은 현재 운영 중이고 나머지 3개 성전은 이미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이다.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브라질에 제일 많은 후기 성도들(13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 브라질의 인구는 약 2억 1100만 명이다.

**필리핀 대마닐라.** 이 성전은 마닐라에서 두 번째이자 필리핀에서 네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필리핀에는 거의 75만 명에 달하는 후기 성도가 있으며, 필리핀 인구는 1억 4백만 명이다.

**케냐 나이로비.** 이 성전은 케냐에 사는 1만 3천 명의 회원들을 포함하여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3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케냐의 인구는 4천 8백만 명이다. 아프리카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축 중이거나, 이미 발표된 성전은 8개이다.

**미국 아이다호 주 포커텔로.** 아이다호 포커텔로 성전은 아이다호에서 여섯 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아이다호 주에는 약 45만 명의 후기 성도들이 있으며, 인구는 170만 명이다.

**미국 유타 주 새러토가스프링스.** 이 성전은 유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한 곳에 세워지게 되며, 유타 주에서 18번째 성전이 될 것이다. 교회 본부가 소재한 유타 주에는 210만 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유타 주 인구는 약 310만 명이다.

다섯 개의 성전이 발표됨에 따라 운영 중인 성전(155개)과 발표되었거나 건축 및 보수 중인 성전(27개)의 총수는 182개로 늘어났다.

2016년 10월 연차 대회 이후로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포트콜린스 성전, 와이오밍 스타벨리 성전, 코네티컷 하트퍼드 성전이 헌납되었으며, 피지 수바 성전이 재헌납되었다.

향후 헌납식 일정은 아래와 같다.

성전	헌납일
프랑스 파리	2017년 5월 21일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미국)	2017년 6월 4일(재헌납식)
애리조나 투손(미국)	2017년 8월 13일
아이다호 메리디안(미국)	2017년 11월 19일
유타 시더시티(미국)	2017년 12월 10일

매니토바 위니펙 성전(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성전, 콜롬비아 바랑키야 성전, 페루 아레키파 성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성전은 착공되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탈리아 로마 성전이 건축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상과 최초의 십이사도상이 방문자 센터에 설치되었으며, 모로나이 천사상은 침탑에 세워졌다. ■

최신 정보와 자세한 내용은 [temples.lds.org](http://temples.lds.org)에서 찾아본다.

## 교육의 통로

**제**일회장은 BYU-Pathway Worldwide라고 하는, 교회의 지구촌 고등 교육 조직을 새로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기구는 2017년 5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된다. 이 기구는 다른 방법으로는 교육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Pathway는 온라인 대학 교육 세상으로 연결되는 다리이자 생계를 훌륭하게 영위할 기회를 얻도록 통로 역할을 합니다.”라고 제일회장의 제2보좌인 디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말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pathway.lds.org](http://pathway.lds.org)에서 찾아본다.



# 사도들의 범세계적인 성역이 계속되다

**선** 지자와 사도들은 온 세상에서 성역을 계속 이어간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성역은 다음과 같다.

**미국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실시간 대화 방송에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얻으라고 권고했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러한 것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내십시오.”라고 말했다.

**멕시코**에서 러셀 엠 벨스 회장은 멕시코 국민의회(하원)에 소개되었으며,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고 가족을 강화하는 일에서 교회에서 수행한 선행에 찬사를 받았다. 벨스 회장은 또한 회원들 및 선교사들과 모임을 하며 회원들이 “각자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왕성한 힘”이라고 말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religiousfreedom.lds.org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본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팔리스크리크(스와힐리어) 지부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이 지부의 대다수 회원들은 아프리카 국적의 난민들이며, 우흐트도르프 회장 자신도 두 번이나 난민 생활을 했던 적이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그는 말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디 토드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베드나 장로가 필리핀의 교회 회원들을 방문하고 있다; 러셀 엠 벨스 회장이 국민의회(멕시코 하원) 의원들과 회합하여 종교적 자유를 논의하고 있다; 몰몬 및 미국 출신 유대인 지도자들이 함께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예방하고 있다; 스티븐스 장로가 우루과이에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회에서 고문으로 봉사하는 한 청년 독신과 인사를 나눈다; 미국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십대들이 홀런드 장로 및 아이어링 회장과 함께하는 생중계 방송에 참석해 있다; 렌런드 장로 부부가 통가에서 열린 모임에서 자매들을 맞이한다; 래스번드 장로가 과테말라 과테말라시에 있는 암 전문 아동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로마 가톨릭 솔트레이크시티 교구의 신임 주교 취임식에 참석하여 그 지역으로 부임한 그를 환영했다.

성지에서 홀런드 장로와 쿠엔틴 엘 쿡

장로는 후기 성도 지도자들과 미국 출신 유대인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에 합류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적지에 모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1805~1878) 장로가 그 땅을 유대인



민족의 집합 장소로 헌납한 지 175주년이 된 것을 기념했다.

홀랜드 장로는 또한 **일본, 한국, 괌**에 있는 회원들 및 선교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재확신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영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생중계하여 수만 명의 회원들과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메시지를 최대한 멀리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언급했다.

**미국 뉴욕 주**에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결혼에 관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대의 큰 과제 중 하나이자 다양한 종교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대의 중 하나는 사람들이 결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드나 장로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후기 성도들을 방문하여 이 교회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후기 성도들의 근면과 친절, 충실함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베드나 장로는 또한 **필리핀**에 있는 수천 명의 교회 회원들에게 말씀하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의 21개 선교부 중 7개의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가르쳤다.

**멕시코**에서 닐 엘 앤더슨 장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성전 참석, 안식일 준수, 가족 관계 강화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그들에게 구주를 더욱 온전히 생활 속으로 영접하라고 권유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자신이 총관리 역원으로 갓 부름받아 **필리핀**에서 봉사한 이후로 20년 만에 그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필리핀의 교회가 그때 이후로 규모 면에서 두 배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에는 지부였던 곳이 이제는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알았던 아이들은 이제 귀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환 선교사들은 이제 스테이크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쿡 장로는 회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그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독신들은 특별히 뛰어나며 구주와 그분의 속죄 및 부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아프리카 서 지역**에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이번 방문을 통해 그곳 회원들이 직면하는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후기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찾는 사랑과 기쁨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후에 스티븐슨 장로는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대회에 참석하여 말씀했다. 그는 청소년들 다수가 “선교 사업을 나가고 또한 성전에서 결혼하고 ... 고등 교육을 [받겠다]는 목표를 관철하기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는 **중미 지역**에 있는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성약에 충실하고 난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했다. 그는 **과테말라**에 있는 암 전문 아동병원을 방문했고, **엘살바도르**에서 교회가 후원하는 종교적 자유 학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니카라과** 대통령과 만났다.

**통가**에서 데일 지 렌런드 장로는 여왕을 비롯하여 왕가 일원들과 회합했다. 그는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그 지역 회원들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

이 교회 지도자들의 성역에 관한 최신 정보는 그들 각자가 사용하는 Facebook 페이지와 [prophets.lds.org](http://prophets.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더 나은 선교사, 더 나은 교사

**전** 세계로 내보내는 방송을 통해 422개 선교부에 소속된 거의 71,000명의 장로와 자매들이 더 나은 선교사 및 교사가 되는 방법에 관하여 훈련을 받았다. 이 훈련 과정에서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가 승인한 변경 사항들이 발표되었다. 새로 짜인 일과표에 따라 선교사들은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고 자신이 봉사하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일과표를 좀 더 유연하게 구성한 목적은 선교사들이 매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좀 더 엄감 어린 목표를 세우며, 더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좀 더 건강하며, 선택의지를 통해 시간을 가장 잘 선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 외 발표된 변경 사항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오는 모든 원리가 중요하며 그것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었다. ■



## 새 제품 및 자원

**교** 회에서 최근에 출시한 새 제품 및 자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전 이야기 및 색칠하기 그림책. 교회에서는 개인 및 가족 경전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 경전 이야기 자원 신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2~8세 아동용 색칠하기 그림책 시리즈가 먼저 선을 보였다. PDF 무료 그림책은 [scripturestories.lds.org](http://scripturestories.lds.org)에 있으며, 출판된 그림책은 [store.lds.org](http://store.lds.org)와 배부 서비스 센터에서 주문할 수 있다.

색칠하기 그림책은 후기 성도판 경전이 있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될 것이다. 번역판은 2017년 중에 스페인어를 시작으로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번자체), 독일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로 이용 가능하게 된다.

경전. 제일회장단에서는 프랑스어 몰몬경 합본이 새로 번역되어 [ecritures.lds.org](http://ecritures.lds.org)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번역본에는 성찬 기도문 중 하나에서 한 가지 사소한 용어 변경도 가해졌다. 제일회장단은 또한 크로아티아어 몰몬경 합본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크로아티아어, 러시아어, 아이슬란드어로 출판된 몰몬경 합본 또한 최근에 출시되었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을 극복하고자 애쓰는 가족들을 위한 도움. 회원들이 자신의 가족 안에서, 교회의 회원들 사이에서, 또는 그 외의 상황에서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상황에 부딪칠 때 세심하고 주의 깊게 반응하도록 돕기 위해 [mormonandgay.lds.org](http://mormonandgay.lds.org) 사이트가 새로 제작되었으며, 자주 묻는 질문과 교회 가르침을 포함하여 동성에게 이끄는 성향에 관한 복음 주제가 (영어로) 업데이트되었다.

최신 복음 자료실 앱. 전 세계 회원들이 경전과 연차 대화 말씀, 기타 자료들을 공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앱은 최근에 iOS와 Android 양쪽에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했다. 버전 4에서는 학습 도구가 좀 더 직관적이고, 기능이 더욱 단일화되고, 새로운 동영상 길라잡이도 이용 가능하다. 이제 모든 내용에 주석을 달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하이라이트, 메모, 링크, 꼬리표 추가가 가능해졌으며 모든 콘텐츠를 노트북으로 불러들여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영상, 경전의 장 머리말 및 학습 보조 자료, 여러 공과 교재의 목록, 찬송가와 초등회 노래 등에 주석을 달 수 있다.

최신 후기 성도 도구 앱. 후기 성도 도구 모바일 앱의 3.2.0 버전을 사용하면 성전에 참석하기가 수월해진다. 회원들은 추가된 기능을 통해 자신의 구역에 있는 성전을 보고, 가장 가까운 성전 다섯 개를 찾아보며, 성전에 연락하거나 문을 닫는 기간이 언제인지 알아보고, 추천서가 완료되기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

##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20**16년 11월 5일, 교사들을 위한 전 세계 방송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우리 모두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르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홀런드 장로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자료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방송에서 토론된 교사 평의회 모임과 새로운 교사 오리엔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한다. 이 방송은 [teach.lds.org](http://teach.lds.org)에서 10개 언어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교수법을 다져 줄 다양한 동영상과 기타 자료들을 볼 수 있다. ■



# 가족

##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시편 127:3)이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 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디서 살든지 법률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남편과 아내 곧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 의무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 따라 이러한 원리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친척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확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우**리는 온 세상의 책임 있는 시민과 정부 관리들에게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본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이 말씀의 일부로 낭독한 것이다.



“우리는 큰 어려움과 악이 난무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죄와 악이 활개 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교회의 제187차 연차 대회에서 위와 같이 질문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물문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보길 간청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의 음성을 듣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으며,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